

독서 아카고라 연구

기획논문: 성인을 위한 독서의 열린 활동성

- 오길주 성인을 위한 독서의 열린 활동성에 대한 탐색
- 조예신 성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낭독 기법 연구
- 홍유화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한국어 설화 읽기 모형 개발 연구
- 김은옥 독서교육을 위한 성인 독서 활동의 사례

일반논문

- 김현경 읽기 능력 향상과 전공 연계 교육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
- 김경희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 출판 양상과 교류 전망

북공연: 아카펠라 공연

- 김충근 풀피리 부는 도깨비, 풀깨비

북토크

- 노경실 『한 줄도 좋다, 그 동료』와 함께 읽는 인간의 성장 본능과 독서

책세상

- 표인혜 나에게 맞는 커피 찾기
- 정명자 함께 읽기 Zoom으로 만나다
- 안남재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
- 김유진 인생은 지금

부록

『독서 아카고라 연구』 정관 | 편집위원회 규정 | 투고 규정 | 투고 논문 심사 규정 및 심사서 양식
| 연구 윤리 규정 및 서약서 양식 | 저작권 이양 및 활용 동의서

기획 논문 | 성인을 위한 독서의 열린 활동성

성인을 위한 독서의 ‘열린 활동성’에 대한 탐색 오길주	7
성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낭독기법 연구 조예신	31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한국어 설화 읽기 모형 개발 연구 홍유화	57
독서교육을 위한 성인독서활동의 사례 : 서울독서교육연구회의 책고리 운동을 중심으로 김은옥	73

일반 논문

읽기능력 향상과 전공연계교육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 김현경	111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의 출판 양상과 교류에 대한 전망 김경희	123

북공연: 아카펠라 공연

풀피리 부는 도깨비, 풀깨비 김충근	163
-----------------------	-----

북토크

『한 줄도 좋다, 그 동료』와 함께 읽는 인간의 성장 본능과 독서 노경실	169
--	-----

책세상

나에게 맞는 커피 찾기 표인혜	201
함께 읽기 Zoom으로 만나다 정명자	204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 안남재	211
인생은 지금(Now or Never) 김유진	217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정관	221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26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투고 규정	229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투고 논문 심사 규정 및 심사서 양식	231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연구 윤리 규정 및 서약서 양식	234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저작권 이양 및 활용 동의서	239

기획 논문

성인을 위한 독서의
열린 활동성

성인을 위한 독서의 ‘열린 활동성’에 대한 탐색

Exploring the Open-Ended Activity of Reading for Adults

오길주*

국문요약	성인들의 독서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 독서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사회적 독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성인들의 독서실태를 알아보고 독서에 관한 인식과 태도, 독서 동기와 경험이 독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인독서의 다양한 실천 형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성인의 독서에는 함께 읽고 공유하고, 지적인 욕구를 해소하며 독서를 통한 지성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한 독서가 많았다. 또 치유 중심의 독서, 지적 교양 환경과 문화 향유로서의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직은 성인 독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성인의 독서에 관심을 갖고 그 발전 방향과 실천 형태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 것에 이 연구의 의미를 둔다.
	핵심어
성인독서, 독서 동기, 지적 욕구해소, 지성의 네트워크, 치유, 문화향유	

차례	1. 여는 말
	2. 성인 독서 및 독서 실태
	3. 독서 실천 양상
	4. 성인 독서 활동의 특색
	5. 맺는 말

* 경민대학교 영유아통합보육과 교수

1. 여는 말

현대사회에서 독서는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 및 대중적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독서 텍스트의 종류는 물론 방법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독서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사회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제3차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독서를 넘어 ‘사회적 독서’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정책의 목표를 사회적 독서 활성화,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 미래 독서 생태계 조성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 독서의 가치는 영유아 및 학령기 학생들을 위한 학습적인 관점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많았다. 독서 및 독서 교육에 있어서도 주된 대상이 이들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성인의 독서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독서교육의 목표를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¹인 평생 독자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할 때, 평생 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인층의 독서 형태와 변화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다. 성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동, 청소년 기보다 길고, 20대, 30대뿐 아니라 그 이상의 연령에서도 독서를 즐기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노년의 풍요로운 삶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꾸준한 독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의 성인 독자가 될 영유아 및 학령기 학생들의 독서교육 방향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들의 독서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한편 독서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사회적 독서 양극화 상황이 현재는 매우 심각하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독서 실태와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인독서의 특징을 정리하여 앞으로의 발전에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이 분야 연구 성과가 적은 가운데 이런 시도가 성인독서를 더 풍성하게 하고 이 분야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데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2. 성인 독서 및 독서 실태

성인 독자에 들어서는 시기는 중등학교 졸업 이후에 해당하며, 이후 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거나,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이나 사회로 나가는 때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독서는 학업독서, 직업독서, 교양독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독서 발달 단계로는 ‘독립적 독서기(independent reading)’로, 이상적 독자상은 ‘자율적 독자(self regulated reader)’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독자 스스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책을 선택하고, 읽고, 책과 독자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이 시기는 독자에서 비독자(non reader)로 전환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²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초등학교 때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데 30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자료³에 의하면 성인의

1 정옥년, 「평생독자의 성장과 교육적 지원」, 『독서연구』 43, 한국독서학회, 2017, 40쪽.

2 천경록, 「독서발달과 독자발달의 단계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55, 국어교육학회, 2020, 335~336쪽.

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출판문화독서진흥과, 2022년 1월 14일자.

독서율을 점점 감소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9.1~ 2021. 8.31에 이르는 시기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2019년에 비해 각각 8.2%, 3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 년간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성인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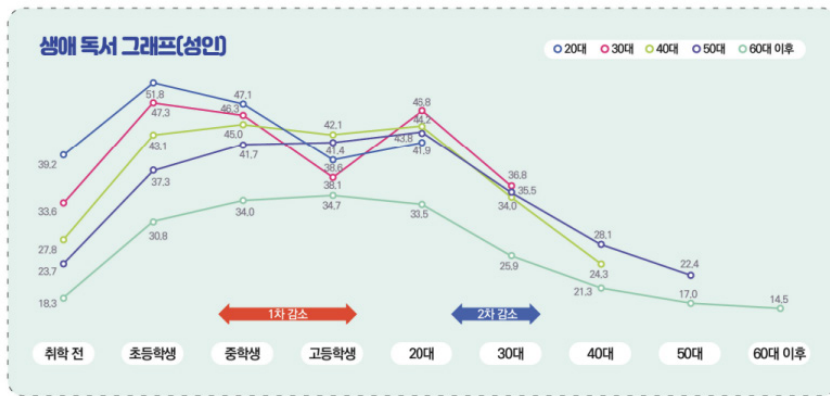


그림 1 | 생애 독서그래프⁴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를 꼽았고 다음으로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26.2%)이라고 응답했다.

*Base: 전체, n=1,2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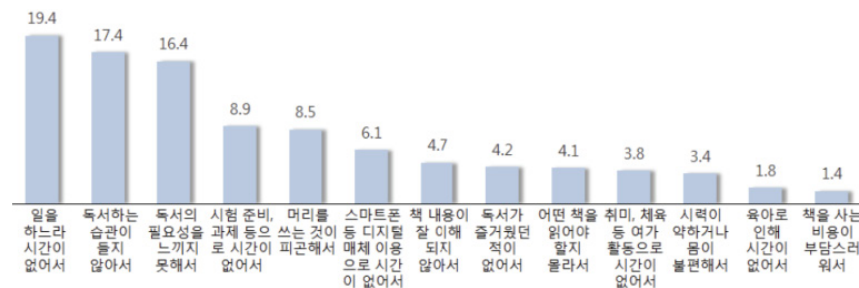


그림 2 | 독서 장애 요인

4 문화체육관광부,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 독자개발 연구보고서, 2018.

책 외에 다른 매체를 독서 방해 요인으로 꼽은 것은 학생들과 비슷하나, 일 때문에 독서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이유는 성인들이 처한 환경의 특성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여가·취미활동 때문에’라는 대답도 많은 것은 어린 시절의 독서 습관이 성인기의 독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책을 읽는 것보다는 다른 취미활동에서 의미를 찾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2.1. 독서에 관한 인식과 태도

독자가 독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는 독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독서에서 ‘독서 태도(reading attitude)’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독서 태도를 ‘책을 읽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행동을 강조하여 독서 횟수, 독서 시간, 독서 선호 매체 등 독자들의 행동에 집중하여 독서 태도를 연구하기도 하고⁵ “느낌과 감정이 결합한 정신 상태로, 책을 더 읽게 하거나 적게 읽게 한다.”라고 하였다.⁶ 독서 태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며, 이를 구성하는 세부 요인과 연구 방법 역시 다양하다. 그림에도 이들의 공통 견해는 독서 행동에 있어 독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성공적인 독서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긍정적인 독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독서를 잘할 확률이 훨씬 높다. 성인들의 독서 태도 역시 독서 습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서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5 이정춘·이종국 편, 『독서와 출판문화론』, 범우사, 1988.

6 Schutte, N. S., & Malouff, J. M., Dimensions of reading motivation: Development of an adult reading motivation scale, *Reading Psychology* 28(5), 2007, pp.469~489.

한다. ‘태도’가 독서에 대한 좋고 싫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치’는 그 효용성 및 의미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가치’가 평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독서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서는 글을 읽으며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동적 사고 행위이자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를 창조하고 소통하는 문화행위이다. 학습자는 독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닌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시대와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독서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고 건전한 세계관과 바람직한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주요 통로이므로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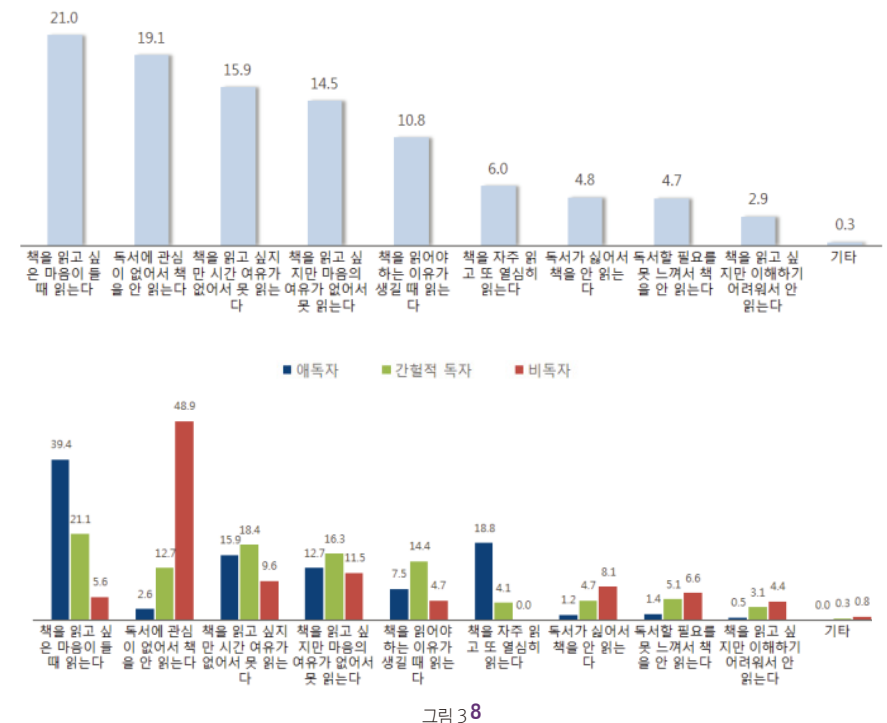
학습자가 다양한 독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 속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폭넓게 이해하고, 생각과 간접 경험의 폭을 넓히며 글과 소통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독서 태도의 성취기준을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 독서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독서문화를 형성하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⁷

교육과정에서 이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독서의 가치가 다소 원론적이고 포괄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독서 가치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 교과로 독서를 배우는 동안 학생들은 명확한 독서의 가치나 목적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독서의 가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학습도구’로서만 독서의 가치를 인식한다면, 성인이 된

7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91~99쪽.

후의 독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동력을 얻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독서교육 측면에서 독서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도 주로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글 읽기,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 읽기 등으로 구성하는데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독서의 목적이라기보다 텍스트의 목적에 해당된다. 독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독서하느냐가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그간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독서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그동안의 독서 목적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서적 목적과 도구적 목적으로 나누거나 학습목적과 여가 목적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인지적 목

8 문화체육관광부,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 독자개발 연구보고서, 2018.

적과 관계적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⁹ 성인의 독서 역시 대부분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독서를 좋아하는 애독자가 독서를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라고 한 것에 비해 책을 읽지 않거나 가끔 읽는 사람인 경우에는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독서하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독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독서 습관 미형성이 독서의 장애 요인이 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독서에 있어 독자가 그 가치와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은 독서 태도를 결정하는 동시에 독자와 비독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독서 동기와 독서 경험

Schutte와 Malouff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성인 216명을 대상으로 독서 동기와 그에 관한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조사 결과에서 독서 동기는 독서와 자아의 연관성, 독서 효능, 인정받기 위한 독서, 다른 분야를 위한 독서로 나타났으며, 이들 동기는 모두 독서 빈도 및 시간과 관련이 있었다. ‘독서는 자아의 일부’라고 답변한 사람은 독서 시 즐거움을 더 많이 느꼈고, 독서 빈도가 더 높았다.

이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또한 비슷하며 독서 동기 중에서 ‘즐거움’은 독서량과 연관이 깊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정보 습득과 즐거움 추구를 위해 책을 읽고, 비독서자는 정보 습득을 위해서만 책을 읽는다

9 김호현, 「목적에 따른 독서의 교육 내용 재구조화 연구」, 『한국언어문화』 66, 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61~100쪽.

고 하여 즐거움의 유무가 독서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⁰

이들 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즐거움 추구는 내적 동기로 인한 독서에 해당하며 즐거움 추구를 위해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독서량이 많고, 독서 시간이 길며, 빈도도 높고, 독서 능력도 뛰어나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서 동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의 엘리트 독자들은 자기 확인 동기, 정보 추구 동기, 대리 경험 동기에 의해 독서를 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으며, 20~30대 여성은 지식 습득, 간접 경험, 자아정체성 확보, 시간 활용, 치유 욕구, 재미 추구를 위해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현실도피 욕구, 성적 욕구, 정보추구 욕구 해소를 위해 독서를 하며 대학생의 독서 동기와 선호하는 도서 분야는 관련이 많았다. 성적 욕구는 무협 소설, 공상과학소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보추구 욕구는 비소설류, 학술 교양서적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도피 욕구는 국내외 소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즐거움 추구, 자기 계발, 긴장 완화를 위해 독서를 하였는데, 독서 동기와 독서량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¹¹

평생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독서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독서의 진정한 내재적 가치를 알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능동적 독서 동기를 만들어 주어 애독자로 만들어 준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 늦게라도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을 하게 되면 이는 평생 독자로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

흔히 학생들이 하게 되는 독서 경험은 선생님의 권유나 의무적인 교내 독

10 Schutte, N. S., & Malouff, J. M., Dimensions of reading motivation: Development of an adult reading motivation scale, *Reading Psychology* 28(5), 2007, pp.469~489.

11 김선남·이문학, 「20~30대 여성의 독서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회』 40(1), 한국출판학회, 2014, 47~68쪽.

서 활동, 추천도서 목록 등이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 긍정적인 독서 경험을 한 학생은 독서 동기는 물론이고 독서습관과 함께 그 가치를 체험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독서를 능동적으로 하게 된다. 강제적인 독후감 쓰기나 과제 등으로 부정적인 독서 경험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독서를 능동적으로 하기 어렵다. 성인의 경우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이 독서를 권장해주었다는 대답이 많은 것은 평생 독자를 위한 독서 동기 형성에 있어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독서 시 느끼는 즐거움과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은 성인기의 능동적 독서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3. 독서 실천 양상

〈2019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책 읽는 사회와 독서 생활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으로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27.9%), 인문 독서 활성화(21.8%), 신중년(50+)세대 독서 지원(19.9%), 대중매체 연계 독서문화 확산(19.2%), 독서 나눔 문화의 확산(11.3%) 등이 언급되었다. 독서 정책에 대한 성인들의 요구가 다양하며 독서와 관련한 관심 분야도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다양한 형태의 독서 행위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성인들의 대표적인 독서 실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개인 독서

개인적 독서를 하는 사람은 개인·정서적 행위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개인의

목적에 의해 독서를 하고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한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 독서하며 이를 주변과 공유할 필요를 느끼거나 그런 행위를 애써 추구하지는 않는다. 전통적으로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조용히, 혼자 앉아, 생각하며, 라는 인식은 독서를 개인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독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라 하겠다.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회적 독서와는 구분되는 독서 양상이다. 이는 독서 양상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독서’를 떠올리면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형태이다.

3.2. 독서문화 활동 참여

정부는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2006년에 독서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제1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09년~2013년)에 이어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년~2018년)을 통해 국민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를 토대로 기관별 여건에 맞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¹² 현행 기본계획은 ‘책으로 여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국민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적 독서 진흥 기반 조성,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 함께하는 독서복지 구현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기조로 하고 있다. 단순한 캠페인이나 행사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및 환경 조성 and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주요한 내용이다.

12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위원회 문화자원봉사홈페이지(<https://www.arko.or.kr/>)

지역 공동체 조성, 책 읽는 직장 만들기, 생애주기별 독서 활동 지원, 다양한 독서동아리 활성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민독서 참여 확산, 지역 풀뿌리 독서문화 확산, 소외계층 독서 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도서전이나 독서 축제 등을 통해 저자, 출판사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지역 도서관의 문화행사, 독서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성인들은 책을 매개로 한 독서 행위가 확대되는 기회를 갖게 되고 독서문화를 향유하게 된다. 성인들이 독서 활동을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과 독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수월해진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그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독자 스스로의 적극성과 자발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3. SNS 기반 독서 커뮤니티: 팟캐스트, 블로그, 팟캐스트, 북티크

SNS(Social Network Service) 는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일상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는 ‘관심사나 활동, 배경, 실생활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교류적 관계망 또는 교류적 관계를 구축하는 플랫폼’으로 SNS를 정의하고 있다.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사용자들 간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이렇게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인맥 관리, 정보 및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쌍방향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재생산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SNS에 참여하는 동기는 우선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함이고, 소속감을 통한 정서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도 동기가 된다. 그리고 자기표현을 통한 자존감 확대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사회적 관계의 개념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가져와 오프라인과는 또 다른 소통을 하거나 오프라인을 확대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① 개방형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온라인상에서 쉽게 모이고 공지를 올리고 참여자도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데 참여자를 확대하고 서로 다른 특징으로 보완성을 갖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독서 토론은 이제 오프라인 공간을 대체하는 기능을 넘어 오프라인의 독서 활동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또 온라인 독서 활동으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는데 온라인상의 독서 활동은 지역을 초월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인원의 참여도 가능하다

② 독서가들이 운영하는 SNS 계정: 팟캐스트, 블로그, 개인 영상 채널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본인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출판사들의 신간 소개, 작가 인터뷰, 북 콘서트 중계 등이 이루어지고 독자들은 특정 콘텐츠에 대해 댓글을 달거나 공유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또 해당 채널을 계속 구독하기도 한다.

이러한 SNS 기반 독서 활동은 독서를 매개로 지식과 정보를 쌓고 공유하며 독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4. 서점 기반

예전의 서점이 독자들에게 책 파는 것을 주 역할로 했다면 요즘은 서점이 독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책을 즐기는 오프라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온라인으로 확장되어 독자들과 소통하는 동네 책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긍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형 서점뿐 아니라 동네 서점들도 작가와의 만남이나 독서 강좌, 독서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독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책과 함께 커피나 맥주 등을 팔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시집 전문서점이나 그림책 전문서점 등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관심을 나누는 서점 공간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서점을 단순히 책을 사는 것을 넘어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삼고 있다. 서점이 책을 매개로 한 만남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독자들에게는 색다른 방식으로 독서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3.5. 독서동아리

독서클럽, 독서 모임, 독서동아리 등으로 불리는 책 읽는 모임을 주요 포털 사이트나 현장에서는 대개 독서 모임이라 부른다. 학술적 연구의 측면에서 독서 모임이라는 명칭에 대한 개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이런 활동에 대한 가장 큰 통계 연구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보고서¹³에 사용된 명칭인 ‘독서동아리’로 칭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5명 내외의 일반인들로 구성되는 모임으로서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정기적으로 책을 읽고 해당 책에 대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갖는 모임 혹은 활동”으로 독서 동아리를 정의하고 있다. 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3차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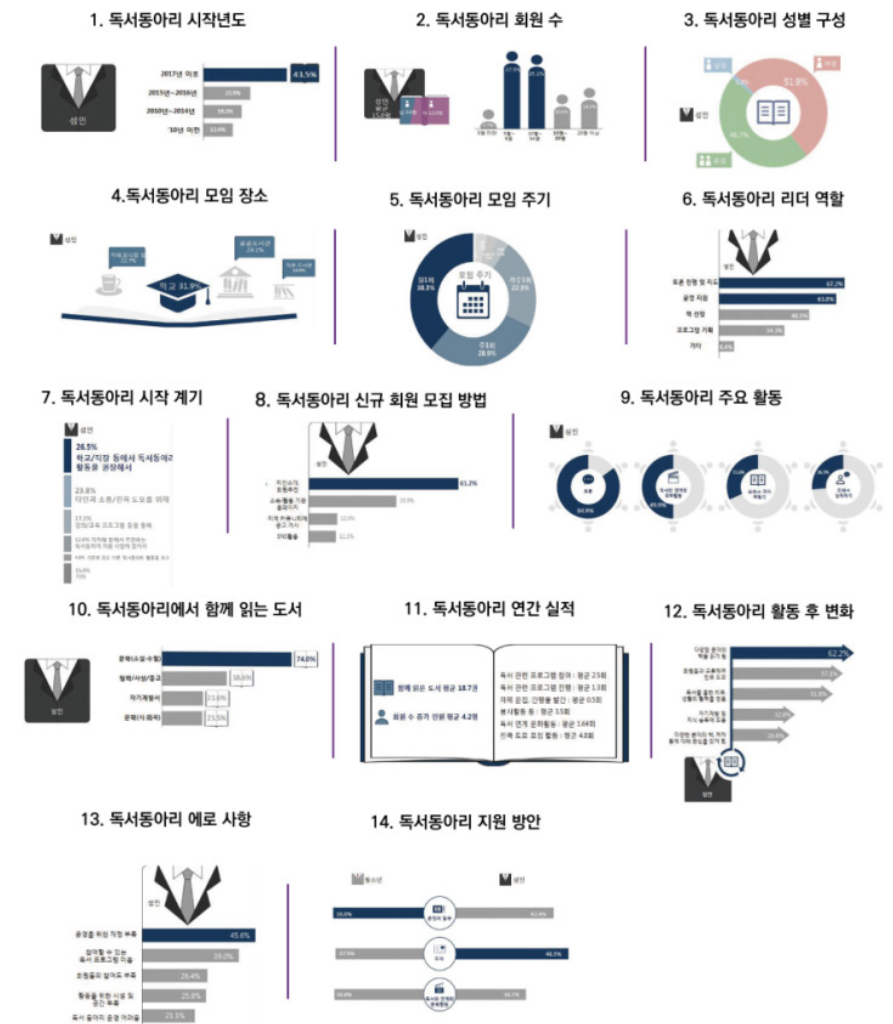


그림 4

13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설계 보고서」, 2018년 10월호.

료로 활용하기 위해 독서동아리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기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서동아리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독서동아리도 함께 포함하여 연구한 것은 그 신뢰성은 물론이고 의미 있는 연구로 여겨진다. <그림 4>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성인 대상 독서동아리를 운영목적에 따라 나뉘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정보교류 및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② 지식 정보 습득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③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④ 서평이나 저술 활동 등 창작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그리고 그 활동 영역도 다양하다. 이러한 독서동아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독서(읽기)이다. 이는 미리 선정된 도서를 읽고 작가의 의도를 경험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쓰기와 토론도 하게 된다. 읽은 것을 강화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확장 시키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는 상호작용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혼자 읽는 것보다 깊고 넓게 이해하게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독서동아리에서 하는 활동 중에 교육활동은 강연을 듣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또 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독서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독서 자원봉사나 독서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독서동아리의 실행 모습이라고 하겠다.

특이한 것은 성인들의 독서동아리 중 유료로¹⁴ 운영되는 회원제 독서동아

14 “거기에는 이상한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다른 독서모임 나가면 꼭 이상한 사람들이 한둘씩 있거든요,” 그에게 비싼 회비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사람을 막아주는 방벽이었던 것이다.” 장강명, 『책,

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유료 독서모임 플랫폼들이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이다.¹⁵ 성인들의 독서동아리가 고급문화를 선호하고 지적인 성취를 위한 학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적 교양 환경’을 지향하는 특색이 있는바, 선별된 환경을 통해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결국 성인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고 다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는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특색 있게 변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성인 독서 활동의 특색

성인들의 독서는 그 목적이나 구성원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4.1. 지적 교양 환경과 문화 향유로서의 독서

독서를 즐기는 성인의 경우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도 책을 통한 활동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독서를 통해 반드시 현실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수가 교양을 쌓고 여가의 수단이나 재충전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

이게 뭐라고, arte, 83쪽.

15 예를 들면, 2015년에 유료 독서모임 플랫폼으로 시작된 스타트업 기업인 트레바리는 적지 않은 회비(4개월, 30만 원 정도)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사세를 확장하여 독서 전용 빌딩을 오픈하기도 했다.

가 많다. 이들은 당장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독서가 자기 삶에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에 만족을 느낀다.

이러한 성인 독서가들은 대부분 고급문화를 선호하고 지적인 성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오락성이 있거나 모험적인 것, 대중적인 일상적 취향보다는 독서를 통해 스스로 특별한 사람임을 인식하려는 경향도 있고 지적 교양 환경을 토대로 얻게 되는 성취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4.2. 함께 읽고 공유하고 지적인 욕구를 해소

성인들이 사회적 독서나 함께 읽는 독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는 책을 읽는 자체도 좋지만 작품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이나 삶에 대해 구성원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SNS 기반 독서 활동을 오프라인 모임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다.

타인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지식을 구성하는데 효율적인데 성인들은 함께 지식을 만들어가는 독서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라 하겠다. 독서가 지식과 교양의 습득을 넘어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고 나누는 매개체가 되는 셈이다.

4.3. 독서를 통한 지성의 네트워크 구축

개인적 독서든 사회적 독서든 그 목적의 기저에는 지적인 욕구에 대한 동기가 있다. 혼자 책을 읽으며 지적,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함께 독서 활동을 하면서 나누는 것도 독서에 대한 열망인 동시에 지성에 대한 추

구이다. 기존의 독서가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 혼자 읽는 개인적 독서였다면, 현재 성인의 독서는 구성원들에게 책을 추천받아 읽고 이를 바탕으로 교제를 나누고 모임을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성인들의 독서 활동이 갈수록 사회적 독서의 성격을 띠는 이유는 개인적 지식을 확장하는 경험과 함께 새로운 지성을 만나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독서동아리나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의 독서활동은 집단지성의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것이 하나의 생산성과 연결되기도 하다. 또 이러한 지성의 네트워크는 실천력을 가지고 있으며 독서나 대화를 통해 공유하게 된 다양한 생각으로 기존의 관념을 조정하기도 하고 행동을 바꾸게도 한다.

4.4. 치유 중심의 독서가 상당수 차지

요즘 성인의 독서 텍스트로 유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림책이다. 유아나 어린이들의 전용물로 여겼던 그림책이 어른들이 즐겨있는 독서텍스트로 자리 잡게 되었고 성인 대상 그림책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도 많이 생겨났다. 그림책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동아리도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들은 그림책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삶의 회한과 감사, 상처와 용서, 치유와 변화를 경험한다. 삶의 아쉬움, 상처, 아픔을 책을 통해 내면화하고 그 감동을 표현한다. 자기 삶의 경험들이 ‘스키마’가 되어 책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이고 깊이 있는 독서를 가능하게도 한다. 이는 그림책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이나 시집, 인문학 책들을 읽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치유의 기능 추구는 성인 독서의 두드러지는 특징

이라 하겠다. 이는 독서의 동기가 되고 지속 이유가 되기도 한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성인 독자들의 독서 상황과 그 활동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인들의 독서 형태는 어린 시절 경험한 독서교육과 독서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기에, 이는 향후 교육과정의 독서교육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데도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가 앞으로 성인 독서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하는 바람으로 임하였다.

선행 연구가 풍성하지 않고 깊이 있는 연구에 이르지 못해 많은 것을 논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성인의 독서에 관심을 갖고 그 발전 방향과 실천 형태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 노력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성인 독서가들 대부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독서를 통한 개인의 지적, 정서적 필요 추구에만 머물지 말고, 독서의 가치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성인기의 독서가 노년기까지 지속성을 갖고 개인의 삶에서 생산성, 창조성, 능동성과 연계되어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년기의 긍정적인 독서 활동과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은 고령화 사회에서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성인 시기는 개인의 사회적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삶에 대해 각자 치열함을 갖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독서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기의 독서가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길호현, 「목적에 따른 독서의 교육내용 재구조화 연구」, 『한국언어문화』 66, 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김선남·이문학, 「20-30대 여성의 독서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0(1), 한국출판학회, 201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출판문화독서진흥과, 2022년 1월 14일자.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_____,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설계 보고서」, 2018년 10월호.
_____,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 독자개발 연구보고서, 2018.
장강명, 『책, 이게 뭐라고』, arte, 2020.
정옥년, 「평생독자의 성장과 교육적 지원」, 『독서연구』 43, 한국독서학회, 2017.
천경록, 「독서발달과 독자발달의 단계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55, 국어교육학회, 2020.

Schutte, N. S., & Malouff, J. M., Dimensions of reading motivation: Development of an adult reading motivation scale, *Reading Psychology* 28(5), 2017.

ABSTRACT

Exploring the Open-Ended Activity of Reading for Adults

Oh, Kil-Ju _ Kyungmin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reading among Korean adults and the factors shaping their practices, focusing on perceptions, attitudes, motivations, experiences, and the diverse media they use. It also explores the intellectual, social, and therapeutic functions of adult reading and considers the potential for developing adult reading culture in Korea.

Methods The study used a qualitative approach to examine adult reading practices, patterns, and media. It analyzed self-reported attitudes, motivations, and reading experiences, and reviewed contemporary forms of engagement to identify shifting patterns and emerging trends in adult reading culture.

Conclusions The findings show that adults read to satisfy intellectual curiosity, share knowledge, build networks, and foster community. Reading also offers therapeutic and cultural benefits, providing emotional relief and intellectually rich experiences. The study underscores the potential for expanding adult reading culture in Korea and the need for diverse, evolving reading practices.

Keywords adult reading, reading motivation, intellectual needs, intellectual network, therapy, healing, cultural enjoyment

이 논문은 2023년 9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9월 20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0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성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낭독기법 연구

Research on reading techniques to revitalize adult reading education

조예신*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낭독 기법과 그 훈련 방안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성인 독서교육 낭독 3단계 과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우선 성인독서교육을 위해 독서 경험의 풍부함과 흥미로움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활용하는 낭독기법의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다음은 낭독 기법을 활용한 성인 독서 교육에 매우 유용한 도구인 오디오북 제작을 적극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낭독 기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성인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낭독 훈련과 기법, 그리고 독서 교육과의 연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성인독서, 낭독기법, 오디오북, 3단계 훈련, 비언어커뮤니케이션

- 차례**
1. 서론
 2. 성인 독서 교육과 낭독
 3. 낭독 기법
 4. 성인 독서 교육 활성화 방안
 5. 결론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겸임교수

1. 서론

성인을 위한 독서 교육은 인격과 지식을 성장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낭독 기법은 매우 중요하다. 낭독 기법은 지식 습득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인 성인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서¹ 독서 경험의 효과를 높이고²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읽기와 동시에 듣는 독서 경험은 정보의 이해와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자의 집중력을 강화시킨다. 특히 다양한 형태와 장르의 문학 작품을 다양한 목소리와 톤으로 표현하는 다중 낭독 기법은 독서 청자의 흥미와 몰입감을 높여 준다.³

낭독은 독서 교육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⁴ 또한 읽는 것과는 다른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독서 기술의 향상과 글로 표현되는 문학 작품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면서 성인 독서 교육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낭독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성인 독서 교육의 효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낭독을 통한 책읽기가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오디오북이 선보이고 관련 전문적 서비스 플랫폼들이 등장하였다.⁵

눈으로 책을 보던 과정에서 새로운 관련 전자 기술의 발달을 통해 오디오 낭독 형태로 소환되고 있다. 특히 소리가 그동안의 정보 전달 매개체로서 기능을 넘어 콘텐츠로 활용되면서 낭독에 대한 기법 연구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전독서 읽기와 토론⁶, 독서 교육 프로그램⁷, 시 텍스트 이해 학습에서 저자에게 질문하기 방법⁸, 국외 우수 인문교육 비교 연구 및 활용방안⁹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특히 낭독이 텍스트의 내용이해 및 수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며, 특히 계기적이며 진단적인 기능을 수행하고¹⁰ 텍스트의 문자를 해독하고 의미를 파악한 후 실감 나게 읽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¹¹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대학에서의 융복합 교양 교육에서 텍스트의 이해 및 활용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얻고자 하는 교육 중심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낭독의 구성요소, 낭독 방법, 낭독 훈련 등을 활용한 방법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대학은 한정

세워 시장 장악을 꾀하고 있다.” 바빠지는 사람들... 커지는 오디오 콘텐츠 시장(2019년 6월 23일 기사).

- 1 강옥경, 「교양교육으로서 고전독서토론 방법 연구: 일반 성인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175~187쪽.
- 2 권옥경,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아개념 및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8, 한국 창의력 교육학회, 2008, 5~29쪽.
- 3 이기대, 「독서의 전통적 방법과 낭독의 효과」, 『한국학연구』 70, 한국학연구소, 2019, 105~131쪽; 박윤우, 「시 교육에서 영상매체 언어 활용의 방법과 의미: TV 프로그램 〈낭독의 발견〉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8, 한중인문학회, 2009, 481~499쪽.
- 4 이순영, 『21세기의 독서와 독서 교육』, 새국어생활, 2012, 37쪽.
- 5 노컷뉴스, “구글과 아마존, 네이버 등 오디오 콘텐츠를 늘리고 있는 업체 대부분은 자사 AI 스피커를 내

- 6 강옥경, 앞의 논문, 2020, 175~187쪽; 정인모·허남영, 「고전읽기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87~106쪽; 이수근, 「고전을 활용한 읽기·쓰기 수업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시론(詩論)」 35,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학회, 2013, 351~377쪽; 황성근, 「고전읽기를 통한 의사소통교육 방안」, 『사고와표현』 10,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7, 235~264쪽.
- 7 권옥경, 앞의 논문, 2008, 5~29쪽.
- 8 이향근, 「시 텍스트 이해 학습에서 ‘저자에게 질문하기 방법(Q&A)’의 적용」, 『새국어교육』 95,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221~247쪽; 한래희, 「대학 교양 고전 교육과 상호텍스트성의 활성화와기, 토론, 쓰기의 연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0, 현대문학연구학회, 2013, 384~423쪽.
- 9 임정택·최재천·장영준, 「국외 우수 인문교육 비교 연구 및 활용방안」, 『인문정책연구총서』 1, 인문사회연구회, 2003, 158~162쪽.
- 10 최지현, 「독서교육에서 낭독의 의의에 대한 재음미」, 『독서연구』 20, 한국독서학회, 2010, 138~175쪽.
- 11 곽춘옥, 「공감적 읽기를 위한 동화 낭독」, 『독서연구』 31, 한국독서학회, 2014, 287~316쪽.

된 기간, 많은 학생의 동시 진행, 교육 평가, 그리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 체계적 연속성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 성인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낭독 기법과 그 훈련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낭독이 성인 독서 교육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낭독을 위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본 연구결과는 성인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낭독 훈련과 기법, 그리고 독서 교육과의 연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성인독서교육과 낭독

2.1. 성인독서교육에 대한 이해

성인독서교육은 성인들이 독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으로서, 인간의 지적, 감성적, 창의적 발달에 최대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독서 기술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언어능력 향상과 지식 습득, 상상력 키우는 데에 큰 역할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성인독서교육은 문학의 매력과 감동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듣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성인독서교육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 이상으로, 글의 감정과 의미를 표현하고 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SNS 시대 비대면 증가로 인한 소통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¹²

¹² 정은이·정의철,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효과 연구: 홈쇼핑 진행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분석』,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015, 26쪽.

첫째,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서 새로운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과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독서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소설이나 시를 읽는 과정에서 세계를 상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 향상된다.

셋째, 독서는 감정과 감성을 풍부하게 해준다. 즉 문학 작품이나 에세이를 읽으면서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공감하고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성인독서교육은 많은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다. 첫째로, 성인독서교육은 작품을 살아있게 만들어 준다. 글을 읽을 때 각각의 문장과 단어가 생생하게 떠오르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동안 듣는 이들은 작품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다. 작품의 캐릭터와 상황을 목소리와 감정으로 표현함으로써, 낭독자는 작품을 새롭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둘째로 성인독서교육은 문학의 소통과 공유를 도모한다. 작가의 의도와 감정을 목소리와 감정으로 전달함으로써 낭독자와 청자 사이에 심리적인 연결이 형성되며 이는 작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문학의 가치와 영감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인다.

2.2. 성인독서교육과 낭독과의 상관관계

독서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성인들에게 독서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성인독서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낭독으로서,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함께 발전함으로써 성인

들의 독서 습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¹³

낭독은 글을 읽고 소리 내어 표현하는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글의 내용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성인들이 낭독을 통해 문학 작품이나 에세이, 시 등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은 독서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낭독은 독서의 즐거움을 증진시키고,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¹⁴

성인독서교육은 성인들이 독서를 통해 인지적, 감정적, 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서 독서 습관 형성과 독해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 이는 성인들에게 독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책을 탐색하고, 자신의 관점과 지식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낭독은 독서의 즐거움을 더욱 강조하고, 성인들이 책의 세계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훌륭한 낭독을 위한 기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다음 장으로 연결한다.

13 조예신,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를 위한 보이스 액팅 훈련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14 이기대, 「독서의 전통적 방법과 낭독의 효과」, 『한국학연구』 70, 한국학연구소, 2019, 105~131쪽.

15 지한구, 「오디오북과 소설의 관련 양상 분석을 통한 오디오북 텍스트 수용 방향」, 『중등교육연구』 65, 중등교육연구학회, 2017, 991~1017쪽.

3. 낭독 기법

3.1. 낭독의 기본요소

낭독은 호흡, 발성, 공명, 발음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보이스 창출을 위해서는 신체 근육의 움직임은 비롯한 음성 기관의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낭독의 기본요소는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를 위한 보이스 액팅 훈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¹⁶

1) 호흡

호흡(呼吸)은 뇌의 호흡중추에 의해 조절되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과정이다. 낭독 기법에서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하부로 수축시키면서 흉부 하부와 복부를 팽창하게 하여 공기를 최대한 흡입하게 하는 호흡법이다.

2) 발성

발성은 의사 전달을 하려는 내적 충동에 의해 일어나며 날숨에 의해 성대(vocal folds)를 진동시켜 음성을 만들어낸다. 성대는 네 개의 층으로 구분되며, 상피(epithelium), 기저막(basement membrane), 고유층(lamina propria), 근육층(muscle)으로 나뉜다. 효과적인 음성 작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성문폐쇄(Glottic closure)가 잘 이뤄져야 하며, 성문폐쇄와 동시에 충분한 호흡에 의한 성대 점막의 접촉이 원활해야 한다.

16 조예신, 위의 논문, 45쪽.

3) 공명

공명은 울림이 증폭된다는 의미이며 어떤 음질을 얻을지는 공명 공간에 달려있다. 성인독서교육이 발화되려면 먼저 두 발과 골격, 척추, 목, 머리 구조가 올바르게 자리 잡혀야 한다. 공명강은 해부학적으로 인두강, 구강, 비강, 부비강으로 분류한다.

4) 발음

낭독기법 중 발음은 혀와 입술, 이, 입천장과 같은 발음기관을 이용하여 말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낭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확한 발음을 위해 자음과 모음, 표준발음과 장단음을 올바르게 구사하도록 한다. 음양오행을 근본 사상으로 창조된 한글은 소리는 물론 글자모양에도 음양오행 원리가 적용되어 모음에는 음양의 원리가 자음에는 오행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구분 \ 자모음	자음 제자 상형성					모음 제자 상형성		
	이음자	설음자	치음자	순음자	후음자	점모음자	횡모음자	종모음자
기본형태	ㄱ	ㄴ	ㄷ	ㄹ	ㅁ	·	ㅡ	ㅣ
발음형태								
발음방법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혀끝이 윗몸에 붙는 모양	혀허리가 윗몸에 붙는 모양	입이 위아래 입술을 합하는 모양	입술과 목구멍이 열려 통하는 모양	입을 연 모양 (하늘)	입을 쭉그린 모양 (땅)	입을 벌린꼴 (사람)

그림 1 | 자음과 모음의 상형성¹⁷

17 조예신,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를 위한 보이스 액팅 훈련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296쪽.

3.2. 낭독 기법의 구성요소

낭독기법 구성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낭독 훈련에서는 호흡을 담당하는 폐와 호흡 근육, 발성을 담당하고 성대를 포함하는 후두, 공명을 담당하는 구강, 인두강, 비강과 발음을 담당하는 혀, 입술, 연구개, 치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신체 전체로 호흡하고 성대의 진동으로 음성을 만드는 발성, 호흡과 발성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며 공명강을 활용하여 몸 전체를 울리는 공명, 정확한 발음으로 공연 대본을 형상화 시키는 낭독극 교육 훈련이다. 또한 억양의 자연스러움, 건강한 음색, 적당한 목소리의 크기, 말의 속도 등 비언어적인 구성요소 또한 매우 중요하다.¹⁸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활용은 낭독을 몰입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손동작을 활용한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내용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이다. 여기서는 준언어의 범위를 ①음색 ② 억양 ③ 톤 ④ 포즈 ⑤ 강세 ⑥ 속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음색(音色)

음색은 보이스가 갖고 있는 개성이다. 좋은 음색의 특징으로는 풍부하고 아름다운 소리, 명료하고 듣기 좋은 소리, 공명이 잘 되는 소리를 말한다. 허스키하거나 긴장이 넘치는 음성은 음색 훈련을 통해 편안한 목소리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좋은 음색 구사를 위해 정확한 발성과 발음훈련을 해야 하며 표준 발음법에 따라 메시지 전달력과 신뢰와 호감을 높여야 한다. 개인마다 갖고 있는 음성은 그 사람 특유의 색깔과 음의 질감과 특성이 있다. 목소

18 조예신, 「유사언어 활용 훈련이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수자의 우호적 행동을 매개변수」,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141~153쪽.

리의 긴장으로 인한 답답한 음성은 공연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손 유희 보이스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억양(抑揚)

억양은 말소리에 수반되는 높낮이를 말하는데 대사를 위해 자연스럽게 중요한 곳에 강조가 되어야 한다. 미묘한 억양의 변화에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지므로 내용을 잘 파악하며 감정 흐름에 따라 억양을 자연스럽게 구사해야 한다.

③ 톤의 조화(調和)

톤의 조화(調和)는 상황이나 장면, 분위기와 내용, 시간 등의 변화에 따라 톤을 변화 시키는 훈련으로 손등이 배꼽 3cm 아래 단전 위치에서 ‘도’ 음을 내고, 명치 위쪽에 가슴 부위에 오면 ‘레’ 음을 내고 입의 위치에서 ‘미’ 음을 내며 이마 미간 위치에서 ‘파’ 음을 내고 마지막으로 머리 위쪽 위치에서 ‘솔’ 음을 내면서 다양한 톤 훈련을 한다.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음성으로 말을 하고 싶다면 ‘도’음 혹은 ‘레’음 사이에서 첫 음을 시작하는 것이 좋고 밝고 경쾌한 음성으로 말하고 싶다면 ‘미’음과 ‘파’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솔’ 톤은 특정한 캐릭터를 표현하거나 아주 쾌활한 톤으로 말할 때 혹은 아기를 달래줄 때 활용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다.

낮은 도 음부터 파 음까지 내보내며 나에게 가장 편하고, 후두가 제자리에 있으면서 공명이 가장 많이 되는 나만의 편한 톤을 찾아 평소에도 그 톤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자.

④ 포즈(Pause)

포즈는 한 문장 안에서 사이를 두는 것과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을 나누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하려는 의미가 올바르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포즈(Pause)의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단어, 구, 절, 문장 사이 등에서 문장의 뜻을 파악하며 적절하게 포즈(Pause)를 사용해야 하는데 텍스트의 속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포즈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⁹ 성인독서교육을 위한 호흡을 운용하여 포즈(Pause)가 필수적이다.

V: 잠깐 머금은 호흡

/: 큰 호흡

//: 여백의 호흡

V: 잠깐 머금은 호흡: 숨을 들이마신 후 내쉬지 않고 머금은 숨 그대로 유지하며 음성을 실어낸다. 생각과 감정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만들어 내면서 음절과 음절 사이를 잠시 쉬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간다.

/: 큰 호흡: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이다. 일상의 호흡과 가까우며 정서적 편안함을 제공하고 명료한 인식을 떠올리게 한다. 같은 의미의 흐름이 계속 될 때는 잠깐 머금은 호흡으로 정서가 이어지도록 하고 다른 의미 묶음으로 넘어갈 때는 한 호흡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마침표가 찍히는 부분이 바로 한 호흡인데 문장이나 말 속 호흡 운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문장 시작 전 숨을 마시고 한 문장이 끝나면 날숨으로 숨을 다 뱉

19 조예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피치 향상 방안 연구: 목소리 구성요소인 유사언어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어낸 후 다시 들숨을 하여 말 연습하도록 한다.

//: **여백의 호흡**: 숨과 숨 사이 여백이며 긴 포즈(Pause)로 시간을 멈추는 끊어 읽기인데 잠깐 머금은 호흡이 템포와 리듬을 통해 감정을 자유롭게 변화 시킨다면 여백의 호흡은 침묵과 같은 포즈로 정서의 섬을 준다.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문장 안에서 충분히 쉬어 큰 강조를 함으로써 중요한 뜻을 전한다.

⑤ 강세(強勢)

강세는 전달하는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핵심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장 내에서 단어와 음절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나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강세가 필요하다. 다음의 문장에서 각 음절마다 강세를 달리해 그 의미를 파악하며 연습해 본다.

- | | | | |
|----------|-------|--------|----------|
| 1. ① 엄마가 | ② 집에서 | ③ 요리를 | ④ 만드신다고? |
| 2. ① 아까 | ② 영화가 | ③ 유튜브를 | ④ 보았니? |
| 3. ① 은수가 | ② 어제 | ③ 책을 | ④ 빌려갔니? |

⑥ 속도(速度)

속도는 말의 빠르기를 의미하며, 말의 속도를 통해 퍼펙트 보이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보통 말하는 속도는 1분에 120~180개의 단어 정도로 텍스트 내용에 따라 알맞은 속도를 구사해야 하는데 감정과 의미 등에 따라서도 속도가 달라진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누구나 아는 쉬운 단어나 문장을

읽을 때에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생소한 단어나 중요한 표현 등을 나타낼 때에는 천천히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3. 낭독 기법 종류와 성인 독서 교육 단계

1) 낭독 기법의 종류

낭독 기법은 글이나 문학 작품을 읽거나 암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읽는 속도와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표적 낭독 기법은 다음과 같다.²⁰

① **높임 낭독**: 글의 내용을 표현하는 동안 목소리의 높이를 변화시켜 구분을 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문장의 중요한 부분은 높은 음조로 읽고,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나 구절은 더욱 강하게 읽을 수 있다.

② **강세 낭독**: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특정한 단어나 구절에 강세를 두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듣는 이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③ **일시정지 낭독**: 문장을 읽는 도중에 일부 단어나 구절을 강조하기 위해 잠시 읽기를 멈추는 방법이다. 이는 해당 부분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사용된다.

④ **감정 표현 낭독**: 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목소리의 톤, 속도, 강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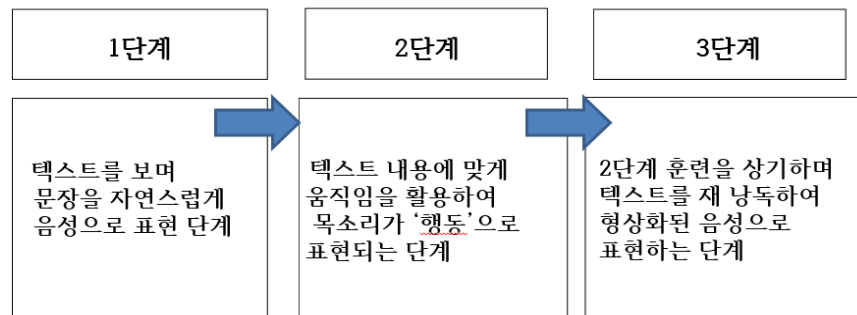
²⁰ 조예신,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를 위한 보이스 액팅 훈련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조예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피치 향상 방안 연구: 목소리 구성요소인 유사언어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조용하고 느린 속도로 읽을 수 있다.

⑤ **자유 낭독**: 글을 자유롭게 읽는 방법으로, 주어진 텍스트에 고정된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톤과 강도로 읽는다. 이는 글의 흐름을 느끼며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낭독 기법들은 낭독자의 목적과 읽고자 하는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습과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낭독 기법을 개발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2) 성인 독서교육 낭독 3단계 과정



1단계는 낭독자의 평소 낭독 습관대로 문장을 편하게 읽는 단계이다. 낭독할 오디오북 텍스트를 보며 문장을 자연스럽게 낭독한다.

2단계는 1단계의 자연스러운 낭독에 텍스트 내용에 맞는 움직임, 보이스 액팅(Voice Acting) 훈련을 활용하여 목소리가 형상화되도록 표정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2단계 훈련 후 오디오북 텍스트를 재 낭독하여 변화된 보이스를

검증하는 단계로서 훈련 후의 음성이 독서 감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훈련을 피드백한다.

3.4. 낭독기법이 성인 독서 교육에 미치는 영향

1) 언어 능력과 기술 향상

낭독기법은 언어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소설이나 시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여 전문 독서나 학문적인 자료를 읽을 수도 있다. 이런 활동은 단어 선택, 문장 구조, 글의 의미 파악 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낭독기법은 기술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기술 문서, 프로그래밍 코드, 전문지 기사 등을 낭독하면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기술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통해 새로운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²¹⁾

낭독기법은 언어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다양한 텍스트를 낭독하고 듣는 것을 통해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학습과 진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감정인지 능력 향상

낭독기법은 성인들의 감정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자, 감정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낭독을 통해 텍스

21 한래희, 「대학 교양 고전 교육과 상호텍스트성의 활성화읽기, 토론, 쓰기의 연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50호, 2013, 384~423쪽.

트를 읽는 것보다 더욱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음성인식 기술과의 결합으로 감정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낭독을 통해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읽는 경험한다.²²

낭독기법을 통해 감정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문학 작품이나 시를 읽어보는 것은 감정적인 내용과 다양한 감정 표현에 노출되는 좋은 방법이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둘째,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때 주인공들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상황에서 주인공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추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관찰력과 분석력은 현실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여본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 목소리, 몸의 움직임 등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신의 감정에 민감해지고, 감정의 변화를 주시하며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공감과 문학감상력 향상

낭독기법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문학 감상력을 증진시키는 훌륭한 방법이다. 낭독은 작품의 감정과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읽는 사람은 작품을 읽으며 내용을 해석하고, 각인된 경험과 감정을 담아 읽을 수 있다. 듣는 사람은 낭독자의 목소리와 강세, 억양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공감

22 조예신,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를 위한 보이스 액팅 훈련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작품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공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²³

낭독기법은 문학을 통해 사회적 연결과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낭독은 작품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낭독은 개인과 사회, 문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4) 우울한 감정 치유 효과

낭독 기법은 우울한 감정과 마음의 불안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긍정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²⁴ 이 기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우울함과 불안정한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부정옥(2021)²⁵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미국 사회학자 랜들 콜린스(Randall Collins)²⁶의 상호작용 이론을 보면 “시너지 효과에 따라 서로 만나는 감정을 나누고 다양한 삶의 압력과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낭독형식, 담화 공유, 스토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23 한래희, 「대학 교양 고전 교육과 상호텍스트성의 활성화읽기, 토론, 쓰기의 연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50호, 2013, 384~423쪽.

24 문영일, 『호흡과 발생』, 서울: 청우, 1989.

25 부정옥, 「예술낭독 속의 감정 내러티브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21.

26 Collins, R, “On the Microfoundations of Macro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5), 1981, pp. 984-1014.

에 공감하고, 느낌을 나누고 감동을 준다. 기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그 감정을 재해석한다.

낭독과정에서 어떻게 치유 받을 수 있는가? 낭독자는 언어를 매개로 치유될 수 있는데 낭독자와 수용자의 감정적 공감대를 통해 감정의 시간과 공간을 이어갈 수 있다.

치유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관련된 것이며 사람의 정신세계와 관련이 깊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는 순간 감정이 평온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작품을 낭독하고 그 음성을 듣는 과정은 자기 치유의 과정이다.

낭독과정은 끊임없이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으로 문자, 목소리, 동작, 표정 등은 다양한 언어의 상징이 낭독을 통해 사상과 개념 및 감정을 표현하거나 전달하게 된다.

낭독행위는 내면세계에 대한 외적인 표현으로, 낭독된 텍스트에서 청자와 독자의 감정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한 수용자가 공감을 얻으면 텍스트를 통해 얻은 간접 경험이나 사건을 형상화된 언어 표현 즉 낭독을 통해 현실에 투사함으로써 감정에 대한 자아 인식과 공감을 이룬다.

5) 낭독기법을 통한 소통 효과

낭독기법을 통한 소통 효과는 다음과 같다.²⁷

첫째, 낭독기법은 청자와 작가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작품을 낭독하면 작가의 목소리와 음조, 강세가 작품에 더해져 작품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품은 각자의 배

27 조예신,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를 위한 보이스 액팅 훈련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경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어서 낭독을 통해 청자는 서로 다른 인식을 듣고 받아들이며, 이는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공감하거나 대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낭독기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표현을 활성화시킨다. 청자들은 작가의 작품을 듣고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된다. 작품을 듣고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의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넷째, 낭독기법은 문학 작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작품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청자들은 작품의 매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는 작품에 대한 관심 도모하며, 문학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4. 성인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4.1. 낭독기법의 창의성 발휘

성인독서교육을 위한 낭독기법의 창의성 발휘는 독서 경험을 더욱 풍부하고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음은 성인독서교육을 위한 낭독기법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이다.

① 음성 연기: 낭독자는 책의 캐릭터들에게 다양한 목소리와 억양을 부여하여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

의 특징과 성격을 고려하여 음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낭독을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② 소리 효과: 책에 등장하는 환경이나 사건에 맞는 소리 효과를 낭독 중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는 장면에서는 물소리를 효과음으로 사용하거나, 문이 열리는 소리나 새들의 지저귀음을 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면 독자들이 이야기 속으로 더욱 몰입할 수 있다.

③ 강조 및 감정 표현: 특정 단어나 문장을 강조하여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강조할 부분을 적절히 판단하고 음성의 세기와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나 감정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문장에서는 음성을 밝고 경쾌하게 표현하고, 부정적인 문장에서는 약간의 어둠과 무거움을 담아내는 등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④ 스토리텔링: 낭독자는 이야기를 단순히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

낭독 기법의 창의성 발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문학 명저 읽기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팀을 이루어 토론으로 텍스트에 관한 생각을 나누면서 능동적 및 적극적 방식으로 작품 읽기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문학 텍스트의 경우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텍스트와 달리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구성원들에 따라서 토론 내용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이 고려된다. 명저 읽기의 경우 5~6명을 한 조를 구성하되 교수자가 조원을 랜덤으로 조합한다. 즉 교수자가 나이, 성별, 그리고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조원들을 섞어서 더욱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²⁸

28 강옥희, 「창의성과 비판적인 사고능력 개발을 위한 고전읽기 수업방안 연구: 문학회토론을 통한 수업사례

특히 명저 낭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텍스트를 다각도의 이해를 통해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론 진행을 위해 기본적 논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학습자들도 자발적으로 텍스트 분석과 문제 작성, 이를 통한 다양한 경험 공유 및 토론을 통해 텍스트의 해석 능력, 각 조원들이 제출한 문제를 분류를 통해 문제 정리능력 향상에 동참하도록 한다.

4.2. 오디오북 활용 및 제작

오디오북은 낭독 기법을 활용한 성인 독서 교육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오디오북은 글을 읽어주는 전문 성우나 낭독자의 목소리를 녹음한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며 책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오디오북이 갖고 있는 의미 소통 구조의 특이성으로 인해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노안 시력의 노인,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각 장애인에게도 평등의 관점에서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가 있다.²⁹

성인 독서교육에 오디오북을 다음을 기초로 더욱 다양하게 활용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오디오북을 활용하여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성인들은 독서에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책을 읽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오디오북을 통해 책을 들으면서 동시에 텍스트를 따라 읽을 수 있으므로, 단어와 문장의 발음, 강세, 표현 등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서 능력과 읽기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오디오북이 바쁜 성인들에게도 독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나 가정에서의 집무나 청소 등의 활동 중에도 오디오북을

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0, 한국교양교육연구학회, 2016, 543~578쪽.

29 이진숙·김희선, 『오디오북과 낭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4~12쪽.

들으며 독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낭독 기법 훈련을 통해 시각 장애인 낭독 봉사나 오디오북 제작 혹은 북튜버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청서(聽書) 시대에 낭독을 통한 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디오북은 무엇보다 시각이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인 방해 요인이 발생되면 책 내용에 집중이 어렵고, 장시간 동안 청취 시 청각기능에 대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주의 집중력을 가능하게 하는 오디오 제작기술과 포맷 형태를 갖춘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훌륭한 콘텐츠 확보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³⁰ 이외에도 성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낭독 기법에서 청각과 시각이 주는 상상력의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오디오북의 청각적인 의미 소통 구조는 TV와 같은 영상매체보다 상상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오디오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양하게 활용 및 제작되어야 한다.³¹ 첫째, 오디오북은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청취와 구입이 가능하다. 둘째, 오디오북의 경우 시각이 아닌 청각을 이용하는 매체이다. 셋째, 오디오북의 경우 시각적인 불편이나 장애가 있더라도 독서활동이 가능하다. 넷째,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다섯째, 종이책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형이 파손되거나 종이가 변색되는 등 훼손의 염려가 있지만 오디오북은 원래 형태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저장 및 백업이 가능

30 백지연, 『저작권 동향』 14,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1~2쪽.

31 지한구, 「오디오북과 소설의 관련 양상 분석을 통한 오디오북 텍스트 수용 방향」, 『중등교육연구』 65, 중등교육연구학회, 2017, 991~1017쪽.

해 분실 및 훼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섯째,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상의 같은 이유와 과정은 위에서 언급한 낭독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단시간 보다는 장시간의 전문적인 훈련프로그램과 이를 토대로 하는 훈련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독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낭독 기법과 그 훈련방안을 알아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인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 낭독 기법의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낭독기법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독자는 작품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관점과 경험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낭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자유롭게 흘러나올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을 읽는 사람은 자신만의 해석과 표현 방식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듣는 사람은 낭독자의 표현과 해석을 들으며 다른 시각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상상력이 자극되며, 독자는 작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을 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낭독기법은 다양성과 다의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시각과 이야기가 공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낭독기법은 독자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 사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성이 교류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작가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과 해석의 자유로움을 통해 문학적인 창작과 이해의 영역이 확장되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러한 성인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낭독을 위해서는 신체 근육의 움직임에 비롯한 음성 기관의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오디오북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의도와 목적, 상황이 낭독자의 음성을 통해 입체적으로 전달되려면 ①음색 ② 억양 ③톤 ④포즈 ⑤강세 ⑥속도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낭독 기법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활용은 표정이나 보이스 액팅과 더불어 낭독 몰입을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게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옥경, 「교양교육으로서 고전독서토론 방법 연구: 일반 성인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 한국교양교육연구학회, 2020.
- 곽춘옥, 「공감적 읽기를 위한 동화 낭독」, 『독서연구』 31, 한국독서학회, 2014.
- 권옥경,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아개념 및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 교육연구』 8, 한국창의력교육학회, 2008.
- 남도현·최홍식, 『호흡과 발성』, 군자출판, 2007.
-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후두음성언어의학』, 범문에듀케이션, 2016.
- 문영일, 『올바른 발성과 공명』, 청우, 1984.
- _____, 『호흡과 발성』, 청우, 1989.
- 부장옥, 『예술낭독 속의 감정 내러티브 연구』, 국민대 대학원 박사논문, 2021.
- 박윤우, 「시 교육에서 영상매체 언어 활용의 방법과 의미: TV 프로그램 〈낭독의 발견〉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8, 한중인문학회, 2009.
- 이기대, 「독서의 전통적 방법과 낭독의 효과」, 『한국학연구』 70, 한국학연구소, 2019.
- 이순영, 『21세기의 독서와 독서 교육』, 새국어생활, 2012.
- 이진숙·김희선, 『오디오북과 낭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임정택·최재천·장영준, 「국외 우수 인문교육 비교 연구 및 활용방안」, 『인문정책연구총서』 1, 인문사회연구회, 2003.
- 이향근, 「시 텍스트 이해 학습에서 ‘저자에게 질문하기 방법(Q&A)’의 적용」, 『새국어교육』 95,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 조예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피치 향상 방안 연구: 목소리 구성요소인 유사언어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_____,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를 위한 보이스 액팅 훈련 연구」, 중앙대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 _____, 「유사언어 활용 훈련이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수자의 우호적 행동을 매개변수」,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 정은이·정의철,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효과 연구: 홈쇼핑 진행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분석」,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015.
- 지한구, 「오디오북과 소설의 관련 양상 분석을 통한 오디오북텍스트 수용 방향」, 『중등교육연구』 65, 한국중등교육연구학회, 2017.
- 최지현, 「독서교육에서 낭독의 의의에 대한 재음미」, 『독서연구』 한국독서학회, 2010.
- 한래희, 「대학 교양 고전 교육과 상호텍스트성의 활성화읽기, 토론, 쓰기의 연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0,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2013.
- Collins, R, “On the Microfoundations of Macrosocio 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5), 1981.

ABSTRACT

Research on reading techniques to revitalize adult reading education

Cho, Yesin _ Adjunct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ts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ffective reading techniques and training methods to revitalize reading education for general adults. It seeks to propose an adult-centered, three-stage reading process and explore strategies that enrich and motivate adult reading experiences.

Methods To achieve these aims, the study analyzed existing reading techniques, oral reading practices,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rategies applicable to adult education. It also examined audiobook production as a practical tool within a structured, three-stage reading process.

Conclus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creative and varied reading techniques are essential for enhancing adult reading experiences. Audiobook product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training should be actively used, offering valuable foundations for adult reading instruction and future research.

Key words adult reading, reading technique, audiobook, 3-level training, non-verbal communication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한국어 설화 읽기 모형 개발 연구

Development Study of a Korean Folk Tale Reading Model Based on the Intercultural Approach

홍유화*

국문요약 본 연구는 상호문화적 접근법에 기반한 한국어 설화 읽기 모형을 개발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상호문화적 접근 단계들의 공통 요소를 추출하고,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과 교육 환경에 맞도록 단계별 설화 읽기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본 모형은 설화를 매개로 언어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학습자가 설화의 주제와 문화적 맥락을 해석하고 타문화와 비교·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문화적 감수성과 문화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텍스트에 대한 상호문화적 관점을 내면화함으로써 정의적 영역의 성장과 태도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 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상호문화적 접근, 한국어 교육, 설화 읽기, 읽기 모형

- 차례**
1. 서론
 2.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상호문화적 접근법
 3.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읽기의 교육적 효용성
 4. 한국어 설화 읽기 교육 모형 연구
 5. 결론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

이 논문은 2023년 9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9월 20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0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1. 서론

국제화로 인한 국가 간 상호작용의 증가, 그리고 기술 발달이 야기한 다채로운 언어자원의 개발 덕분에 언어의 장벽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현상과는 반대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특수성은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이질성은 유사 문화를 공동으로 향유하는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매개체적 작용을 하기도 하고, 타 집단에 대한 매력과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문화 간의 상이점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개인이 집단에 동화·흡수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점차 모문화와의 협상 과정을 통한 개인의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언어교육 분야에서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언어와 문화를 함께 교육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언어를 배우면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통해 언어와 문화 모두의 상호 이해를 높이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어 교육 역시 단순한 언어 기능 교육을 넘어 상호문화적 접근의 관점에 기반한 문화의 이해, 실천과 수행에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교육의 실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단순한 기능적 문식성 교육은 대폭 축소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한국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한국어 학습자, 그리고 이들이 맺고 있는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정서적 차원의 문화 문식성 교육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문학작품은 인간 내면의 심층적인 정서를 잘 담고 있으면서도 해당 사회의 사회적·역사적 상황을 투영하는 언어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학작품

에는 문자화된 언어 지식과 더불어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치관들이 녹아 있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생동감 있는 ‘읽기’ 자료로서의 효용성을 갖는다.

문학작품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어적 자료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적 이해 증진을 돕는 것은 물론, 학습자들이 발화 맥락을 이해하는 문화적 감각을 키우고, 작품에 투영된 한국적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교육 자료라고 생각된다.

본 고에서는 한국 문학의 장르 중에서 설화 활용하여 상호문화적 접근법에 기반한 한국어 읽기 교육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설화는 한국문화의 특수성과 인류 보편적인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문학 장르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낯선 언어와 문화로의 정서적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흥미롭게 한국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효과적인 제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2.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상호문화적 접근법

문화 차이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은 목표문화를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동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학습자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집단을 우선시하며 집단의 정체성을 강요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새롭게 대두된 상호문화적 접근법은 각기 다른 문화에 속한 구성원들 간의 교류와 이로 인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자국 문화와 결이 다른 삶의 양식과 가치들을 접하게 되는데, 상호문화적 접근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교류하며 충

돌·협상하여 받아들여지는 모든 과정 자체를 중시한다.

쌍방향적 대화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상호문화적 접근이 언어교육에 적용되면 학습자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유연적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류의 자세를 가지고 목표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렇게 길러진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 관계 유지 능력, 목표문화에서의 사회적 능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은 양적으로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학문 목적 학습자 수 역시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뿐 아니라 문화 간 상호 이해와 인식의 교류를 지향하며 사회 통합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상호문화적 접근 방법은 적용하는 영역과 사용 목표에 맞게 탄력적으로 그 단계와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해 왔다. 지리 교육에서 필요한 기술로서의 상호문화적 접근법의 과정¹은 자기 중심 탈피하기,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기, 협상하기의 3단계로 제안된 바 있다. 또한 프랑스어 교육에 적용 가능한 상호문화적 접근법의 과정²은 문화 개념 이해, 자문화 인식,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문화 상대화, 타문화 수용의 6단계로 제안되었다. 프랑스 문화교육 영역에서 상호문화적 접근법의 과정³은 학습자의 자기 정체성을 세우

1 Partoune, Ch, 「Quelles compétences terminales dans l'enseignement de la géographie ?」, 『Recherche en éducation』 97(12),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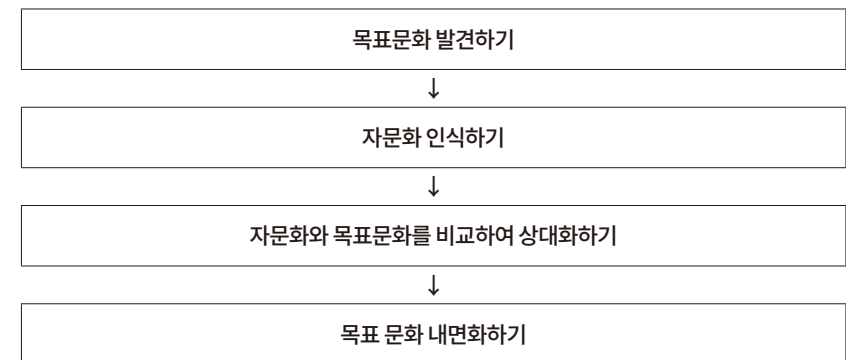
2 서영지, 「프랑스어 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적용방안 연구(중학교 생활프랑스어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4(2),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16.

3 박노경, 「프랑스 문화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 현장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41,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2.

고 이질적인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 과정, 상이함과 유사함에 대해 분석,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3단계로 정리하여 제안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앞선 연구들에서 상호문화적 접근 단계의 공통적인 요소들은 추출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 맞는 4단계로 그 절차를 수정하였다.

표 1 | 상호문화적 접근법의 단계



첫 단계인 ‘목표문화 발견하기’에서는 학습자들이 흥미로운 자료를 통해 목표문화의 요소들을 접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수자는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인 ‘자문화 인식하기’에서는 학습자들은 목표 문화와 관련된 자문화의 요소들을 인식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 비추어 주관적 관점에서 자문화를 인지하게 된다.

다음 단계인 ‘자문화와 목표문화를 비교하여 상대화 하기’는 목표 문화와 자문화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상이점 인식할 뿐 아니라, 같은 교실에 있는 동료 학습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교류하며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목표 문화에 대한 질적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인 ‘목표 문화 내면화 하기’에서는 학습자가 목표 문화와 자문

화, 그리고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데, 이때 학습자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내면과 합의하여 낮은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보다 성숙한 가치관의 정립에까지 이르게 된다.

3.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읽기의 교육적 효용성

설화는 전통적인 이야기나 전설로, 주로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말한다. 설화는 배경이 되는 지역이나 문화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풍습과 가치,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대개 교훈적인 가치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당 문화의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설화 문학은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집단성을 배경으로 한 민중문학이며 구비 전승되면서 시대를 거쳐 사람들에게 의해 변화되고 재창조되는 과정을 거친다. 과학과 기술이 깊숙이 침투해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고전 설화는 그 스토리뿐만 아니라 인물과 제재들까지도 K-Drama, K-Pop, 혹은 컴퓨터 게임의 등장인물로 다양하게 재해석되어 한국문화 곳곳에서 그 이야기의 전승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를 활용한 읽기의 교육적 효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설화는 기록되어 문학의 형태로 남아 있지만, 설화의 본연의 정체성은 ‘구비(口碑)’적인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설화는 구어체 특유의 생동감 있는 다양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설화 읽기를 통해 단순한 한국어 표현에서 벗어나 보다 세련된 언어능력을 함양하고 언어의 미적 감각까지 익히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

들은 ‘심화·확장된 언어 기능 능력 함양’의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설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민중들의 삶과 경험에서 비롯된 성취문화, 행동문화, 관념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설화 안에 투영되어 있는 한국문화를 상황과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설화는 오랜 세월에 거쳐 전승되며 살아남은 생명력 있는 이야기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전승되는 이야기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인들의 보편적 공감을 자아내며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설화는 재미와 교훈적인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작품으로 이미 검증받은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화를 제재로 한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설화는 집단성을 배경으로 하는 공동체 문학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에 의해 변형되고 재창조되는 문학이다. 따라서 같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전승자나 전승 매체에 따라 질적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유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대상에 따라 설화의 질적 층위를 달리하여 재구성하며 다양한 학습자 수준의 맞는 쉽고 편안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설화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각 설화마다 특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반면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이야기 구조나 화소가 발견된다. 설화의 보편적 요소들로 인해 학습자들은 다소 배경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자국의 설화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에 쉽게 접근하여 한국문화를 습득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적 효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화 문학은 서사적 이야기로, 장르적

특성상 다양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구성이 가능하여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습득하려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낯선 언어와 문화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재이다.

4. 한국어 설화 읽기 모형 설계

4.1. 모형의 단계별 전략

‘상호문화적 접근법에 기반한 한국어 설화 읽기 모형’은 여러 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상호접근법의 절차들에서 공통적인 단계의 요소들을 추출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의 상황에 맞게 4단계로 재정립한 위에 일반적인 한국어 수업의 단계를 접목하였다.

상호문화적 접근법에 기반한 한국어 설화 읽기 모형은 크게 목표 문화 발견하기, 자문화 인식하기, 상대화하기, 내면화하기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

목표문화 발견하기 단계는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도입 단계, 어휘와 설화 줄거리를 이해하는 제시 단계, 제시 단계에서 배운 어휘와 읽은 내용을 확인하고 공고하게 하는 연습 단계,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문화 요소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심화 단계가 포함된다.

자문화 인식하기 단계는 학습자들이 한국의 설화와 유사한 내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국 설화를 동료 학습자와 교사에게 소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문화와 자문화와의 교류뿐 아니라, 교실 안 동료 학습자들의 문화와도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게 된다.

상대화하기 단계에서는 한국 설화와 자국 설화의 이야기 화소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상이한 문화 요소들을 대조하며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내면화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각색하여 재구성하는 활동을 한다.

4.2.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한국어 설화 읽기 모형

이상의 내용을 시각화한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한국어 설화 읽기 모형은 <표 2>와 같다.

표 2 |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한국어 설화 읽기 모형

Step 1 목표문화발견하기	도입	- 배경지식 확인 - 삽화를 통한 등장인물과 내용 추측하기
	제시	- 어휘 학습 (성취문화, 행동문화, 관념문화) - 내용 구조 이해
	연습	- 어휘 퀴즈 풀기 - 이야기 전개 순서에 맞게 순서대로 그림 배치하기 - 배치된 그림에 맞게 줄거리 쓰기 - 줄거리 발표하기
	심화	- 등장인물의 성격 말하기 - 설화에서 알 수 있는 한국의 관념문화 말하기
↓		
Step 2 자문화인식하기	확장1	자국의 유사한 설화 말하기
↓		
Step 3 상대화하기	확장2	한국 설화와 자국 설화의 유사성과 상이성 말하기
↓		
Step 4 내면화하기	내재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 각색하여 말하기

4.3.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모형 적용의 예시

교육방안은 한국어 설화 읽기 모형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수업의 실례를 보여 주기 위함으로 모형의 구체화된 실례라고 말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개발된 모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설화 중 한 작품을 선택하여 결과물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상호문화 접근법에 근거한 읽기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설화 작품으로는, 학습자가 작품의 주제를 쉽게 이해하고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자문화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성장까지 도모할 수 있는 작품인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화 읽기의 교육적 효용성에 근거한 작품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작품.

둘째, 한국어 읽기를 통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총체적 의사소통 능력의 학습이 가능한 작품.

셋째,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넷째, 구조적으로 단순하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

다섯째,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학습자들의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어 낯선 문화를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작품.

본 고에서 모형의 예시를 보여 주기 위해 선정한 작품은 ‘콩쥐팍쥐’로 ‘콩쥐팍쥐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설화이다. 이는 권선징악의 관념문화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계모 형 설화로, 그 이야기의 구조와 등장인물들을 모티브로 재해석된 영화, 드라마 등의 문화 콘텐츠가 현재까지도 꾸준히 재탄생되고 있다. 또한 나라별로 비슷한 다수의 이야기가 존재하여 외국

인 학습자들에게 친근한 이야기 구조라는 점에서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한국어 읽기 교육에 알맞은 작품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3〉은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한국어 설화 읽기 모형’을 활용해 ‘콩쥐팍쥐’ 설화를 교육하는 교육방안의 예이다.

표 3 | 한국어 설화 읽기 교육 방안〈콩쥐팍쥐〉

단원	콩쥐팍쥐		
학습 목표	1. 콩쥐 팍쥐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물질문화, 행동문화, 관념문화에 대한 어휘와 가치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2. 자국의 유사한 설화와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3. 콩쥐의 입장이 되어 이야기를 각색하여 말할 수 있다.		
대상 학습자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고급 수준 학습자		
학습 단계	학습자 활동	교수자 활동	
도입	‘콩쥐팍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말하기 - 삼화 속 콩쥐, 팍쥐, 새어머니의 표정과 행동의 모습을 통해 인물들의 관계 추측하기	- 학습자 배경지식 확인하기 - 설화의 제목과 등장인물들의 관계 설명하기	5분
제시	- 어휘 학습하기 - 콩쥐팍쥐 지문 듣기 - 주요 부분 소리 내어 읽기	- 내용 전개에 중요한 매개가 되는 어휘, 한국의 성취문화, 행동문화, 관념문화를 잘 드러내는 어휘를 중심으로 제시하기 - 오디오나 동영상 듣기 파일 재생하기 - 함께 읽기, 나누어 읽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하여 소리 내어 읽기 활동하기	15분
연습	- 어휘 퀴즈 풀기 - 이야기 전개 순서에 맞게 그림 배치하기 - 배치된 그림에 맞게 줄거리 쓰기 - 팀별로 줄거리 발표하기	- 팀 활동으로 구성한다. - 팀별로 어휘 퀴즈 점수를 부여한다. - 팀별로 하나의 줄거리를 완성하여 발표하게 한다. - 다른 팀이 발표한 줄거리와 비교해서 이야기하게 한다.	15분

심화	• 콩쥐, 팥쥐, 새어머니의 성격 말하기 • ‘콩쥐팥쥐’에서 발견한 한국의 가치문화 말하기	• 콩쥐, 팥쥐, 새어머니의 성격이 평면적이고 • 권선징악, 어른에게 순종하는 태도, 참고 견디는 태도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게 한다.	15분
확장	• 자국의 비슷한 이야기와 비교해서 말하기 • 이야기 화소 빈칸 채우기 활동하기 (‘콩쥐팥쥐’와 자국의 설화 속의 조력자, 전통 의상, 등장인물, 결말의 내용 등을 비교)	• 학습자 자국의 유사한 이야기를 발표하게 한다. • 베트남의 땀과 감, 중국의 섭한 이야기, 독일의 신데렐라 등과 비교하여 설화의 화소와 제재를 비교하게 한다.	15분
내재화	• ‘내가 콩쥐라면?’ 이야기 각색하여 쓰기	• 자신의 경험과 비추어 새로운 관점에서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10분
마무리	• 내용 정리하기	• 다음 차시 안내하기	5분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문화적 접근법에 근거한 한국어 설화 읽기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상호문화적 접근법의 특징과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를 활용하는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은 개인이 일방적으로 집단의 문화에 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기존의 문화 접근방식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접근법으로, 개인과 학습자가 낯선 문화를 접하고 교류·조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에 관심을 둔다. 다문화 사회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 사회의 한국어 교육은 언어의 기능적 교육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의 책임이 있다는 관점에서 상호문화적 접근법의 시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상호문화적 접근법의 단계들에서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설화 읽기 모형의 단계를

구성하였다. 설화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낯선 한국문화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재미있게 언어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제재로서 그 가치가 있다.

개발된 모형은 목표문화 발견하기, 자문화 인식하기, 상대화하기, 내면화하기의 4단계에 걸친 큰 틀로 구성되는데, 첫 단계인 ‘목표문화 발견하기’는 다시 도입, 제시, 연습, 심화의 단계로 세분화된다. 이것은 ‘자문화 인식하기’, ‘상대화하기’, ‘내면화하기’에서 거치게 될 확장과 내재화의 활동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다.

개발된 모형은 학습자들이 한국 문학 장르 중 하나인 설화 읽기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학습하고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이를 내면화하여 개인 정서적 영역의 성장에까지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추후 현장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행하고 모형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곽노경, 「프랑스 문화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 현장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41,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2.
- 김유미, 「일반 목적 한국어교재에 수록된 설화의 활용 양상 분석」, 『영주어 문』 52, 영주어문학회, 2022.
- 김혜진,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향상을 위한 설화 교육 실행 연구」, 『문화와 융합』 43(9),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 서영지, 「프랑스어 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적용방안 연구(중학교 생활프랑스 어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4(2), 경북대 중등교육연구소, 2016.
- 안미영,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 『한국학』 3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차준우, 「상호문화접근법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어 교재의 등장인물 분석 연구: 대한 교육 기관 중급 교재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2,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2023.
- Partoune, Ch, 「Quelles compétences terminales dans l'enseignement de la géographie ?」, 『Recherche en éducation』 97(12), 1999.

ABSTRACT

Development Study of a Korean Folk Tale Reading Model Based on the Intercultural Approach

Hong, Yoo-Wha _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reading model for Korean folktales grounded in the Intercultural approach. It seeks to identify common elements within previous intercultural frameworks and construct a folktale-reading model that supports simultaneous language and cultural learning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Methods The study reviewed prior research on the Intercultural approach, extracted shared components across proposed instructional stages, and reorganized them to fit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ext. These elements were then structured into a step-by-step model designed specifically for folktale-based instruction.

Conclusions The developed model enables learners to acquire linguistic and cultural knowledge through Korean folktales while fostering intercultural awareness. By encouraging learners to internalize cultural understanding as part of their identity development, the model contributes to both cognitive and affective growth and offers a meaningful framework for intercultural language education.

Keywords Intercultural approach, Korean language education, Folk tale reading, Reading model

이 논문은 2023년 9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9월 20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0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독서교육을 위한 성인독서활동의 사례

서울독서교육연구회의 책고리 운동을 중심으로

Cases of Adult Reading Activities for Reading Education: Focusing on the “Chaekgori (Book-Linking)” Movement of the Seoul Reading Education Research Society

김은옥*

국문요약 독서의 즐거움을 깨우쳐주기 위한 가교역할로 책고리 운동을 전개하였다. 책고리 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독서 및 독서교육활동 등, 다양한 독서의 방법을 탐구하고 독서 자료에 적합한 독후활동의 방법이 개발됨을 보여주었다.

이야기강좌로 이야기꾼들을 양성하고, 이야기회 이야기워크숍 이야기마당극을 펼치며 참가자가 즐기는 독서캠프를 진행하였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교육을 통해서 1-3세대의 소통, 가족 사랑과 전통문화의 전승과 함께, 범사회적인 독서운동의 중심에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독서의 즐거움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름없이 함께 느낄 수 있다.

핵심어 독서의 즐거움, 책고리 운동, 다양한 독서모임, 그림책 읽어주기, 이야기 들려주기, 낭독 및 낭송하기, 이야기마당극, 독서캠프

- 차례**
- 1.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책고리 운동의 시작할, 책고리 운동
 - 2. 구체적인 독서 및 독서교육활동
 - 3. 책고리 독서모임
 - 4. 어른과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에 차이가 있을까?

* 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

1.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책고리 운동의 시작

1.1. 책고리의 의미

책고리라는 말은 문고리에서 따온 아이디어로 문고리를 붙잡고 문을 열면 안으로 밖으로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듯이, ‘책고리를 붙잡고 책장을 열면 책의 세계, 독서의 세계, 즐거운 책 세상으로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긴 이름이다.

우리 어른들(학부모, 선생, 독서교육 담당자 등)은 책과 어린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읽어가면서 끝없이 책과 어린이를 이어줄 책고리가 되고자 했다.

또한 책고리에서 순수한 우리말로 책을 보관하는 상자, 즉 책을 보관하는 장소인 도서관의 의미를 찾았다. 그래서 서울독서교육연구회가 펼치는 책고리 운동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독서환경을 만들어 주고 책과 자연을 이어주기 위한 독서 및 독서교육운동, 도서관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¹

1.2. 독서의 즐거움을 깨우쳐주기 위한 가교역할, 책고리 운동

독서를 어떻게 시작하면 아이들이 독서의 세계, 책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책고리 운동의 시작은 이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서울독서교육연구회의 책고리 운동을 시작한 송영숙(현 서울독서교육연구회 고문)은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1 서울독서교육연구회 홈페이지 참조. www.readingchildren.com

「나는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사서였고 1970년대 말 거의 불모지였던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에 빠져 있었다.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라면 독서교육이 99%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해주고 책을 읽는 즐거움에 빠지게 할까, 이것이 어린이 서비스의 중심과제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읽힐 책을 선정하고 소개하고, 읽은 후에 독후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고 연구했다.»²

근 40여 년간을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와 독서교육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영숙 선생은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독서에 관한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 체험에서 나온 나름대로의 이론을 형성하게 되었고, 1996년에 서울독서교육연구회라는 단체를 시작하고 책고리 회원을 모집, 교육을 시작하였다.

독서는 문자교육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독서는 단순히 문자를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뜻을 해독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독서의 정의를 확인하며, 읽는 행위를 하려면 독서체험이 필요한데 독서체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어체험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깨우치도록 하는 독서교육의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독서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모았다.

2. 구체적인 독서 및 독서교육활동

어린이 독자에게 읽히고 싶은 도서의 선정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다양한 장르의 독서자료를 골고루 선정해서 균형 있는 독서활동을

2 제2회 한국국제스토리텔링축제, 학술문화포럼 참조. 2019년 9월 28일자.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책, 옛날이야기, 동요 및 동시, 동화, 소설, 과학 및 역사 이야기 등, 특히 어린이들에게 읽히고자 하는 책은 직접 읽어보고 선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잊어서는 안 된다.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다양한 독서의 방법을 탐구하고, 지루하지 않은 독후활동의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 읽는 작품에 따라 독후활동의 변화를 꾀하고 천편일률적인 정답을 요하는 독후활동은 절대 금물이다. 책을 읽고 난 후의 감상이나 느낌이 어른이 원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틀렸다’고 말하기 보다는 ‘다르다’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어린이들의 생각이 크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독서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독서활동이나 독후활동이 독서자료에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책 읽어주기, 이야기 들려주기, 낭독 및 낭송하기, 극화하기를 통해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독서가 즐거운 행위라는 것을 차차 깨달아 가게 해야 한다. 내 손에 책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 독자와의 소통을 돕는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2.1. 이야기 강좌를 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의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과 만날 때는 언제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1994년부터 시작한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의 독서교육지도자 과정에는 6시간의 이야기교육이 포함되어있었던 것을 그 교육과정에서 공부했던 필자도 잘 알고 있다. 듣는 독서, 즉 독서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독서체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이야기교육의 목적이다. 이야기를 통해 충분한 언어체험을 한다는 것은 독서교

육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책을 읽기 전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던 것이 독서교육의 시작이었다.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독서의 보조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곧 독서였고, 오히려 한 편의 동화를 읽는 것보다 옛날이야기 한 자락을 듣는 것이 더 좋은 독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야기(storytelling)는 목소리를 주도로 사용하는 예술적 독서이며, 듣는 동안의 즐거움으로 이야기의 문학성과 교육성은 더욱 높아진다. 옛날이야기, 그림책이나 동화책 읽어주기, 시 낭송 등, 이야기는 귀로 듣고 머리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보는 최상의 독서체험을 하게 한다. 반복되는 듣기의 경험을 통해 듣기훈련이 가능하게 되고, 듣기훈련이 잘 된 아이들은 듣기를 통해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야기(storytelling)는 듣는 동안 집중력 상상력 어휘력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여, 문자를 알고 난 후에는 책의 세계, 독서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가속이 붙게 하는 묘약이다. 바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언어체험의 기본이 된다는 말이다. 그 외의 중요한 독서체험은 자연 체험, 문화체험이다.

이렇듯 아동교육이론과 독서교육이론, 짧지 않은 실제의 교육체험 등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15주의 두 학기 과정의 이야기 강좌를 열었다. 이야기교육과정은 이야기의 정의, 이야기를 잘 한다는 것, 옛날이야기의 특성 등의 이론과 이야기 실습(storytelling)과 듣기, 실제이야기(true story) 등이 포함되었고, 그림책 읽어주기(Read a loud), 이야기 그림극, 인형을 이용한 이야기, 패널 시어터 등,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교육생이 몇 명 되지도 않았고, 사회에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씨 뿌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야기교육

을 한 결과,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는 열매가 아주 크게 맺게 된 것 같다. 현재 책고리이야기회를 지키고 있는 버팀목 이야기꾼들이 초기에 이야기교육을 받은 우리들이다. (30대의 엄마들이 50대 중반이 넘는 초로의 예비 할머니들이 되었다.) 읽힐 책을 선정하고 비슷한 주제의 옛날이야기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더니 집중도 잘했을 뿐 아니라 책을 읽기보다도 이야기를 듣기 위해 독서 교실에 결석하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났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까?’의 답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야기(storytelling)는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자체가 독서의 효과, 그것도 우리들의 마음에 큰 즐거움을 주는 독서의 효과를 가져 올 뿐 아니라, 그 즐거움의 부산물로 독특한 교육적 효과도 따라온다. 그리고 옛날이야기는 언어체험, 문화체험, 자연체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최상의 소재라고 말하고 싶다.

(이윤기라는 소설가를 기억하시나요? 이윤기 선생은 “내가 글쟁이가 된 것은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머니 덕이었고, 옛날이야기를 많이 들던 내가 책을 좋아하게 되어 중학생 때부터 학교도서관에서 사서노릇을 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2.2. 책고리이야기회(Chekgori Storytellers' Group)의 탄생과 활동

서울독서교육연구회가 설립되면서, 좋은 책이 출판되면 그 책을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선정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도서관 등의 발전을 꾀하여 독서환경을 개선하도록 사회를 자극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이야기교육 강좌를 열었으나 열심히 활동한 것에 비해 큰 영향을 사회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1998년 5월 책고리이야기회(Chekgori Storytellers' Group)를 결성하고 꾸준히 활동하여 2023년 5월에 25주년에 이르렀다. 책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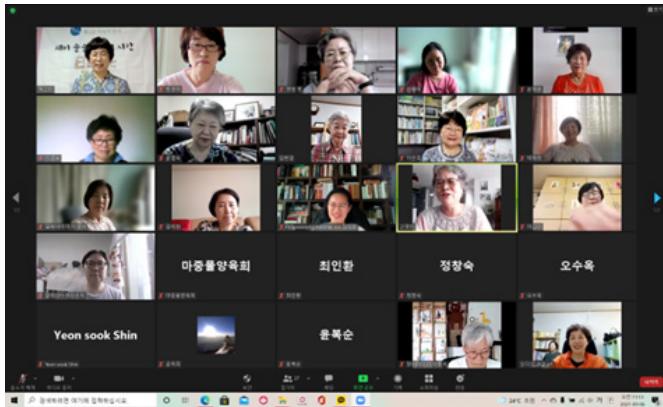
이야기회의 활동을 돌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겠다.

① 235회의 책고리 이야기잔치를 열다

2023년 5월 책고리이야기회가 25주년이 되었고, 매월1회 책고리이야기잔치로 모인 것은 2023년 6월로 235회가 되었다. 초기에는 교육받은 스토리텔러의 수도 많지 않았고, 사회적 관심도 부족해서 모이기가 힘들었다. 서너 명이 모일 때도 많았지만 방학인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끊임없이 모이기를 고집하며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제는 책고리 이야기잔치가 즐거운 모임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 당시에는 서울시내에 22개관의 공공도서관 중 구로도서관을 시작으로 어린이도서관, 정독도서관, 동작도서관, 서대문도서관, 중계도서관, 고덕도서관 등, 이야기시간(storytelling hour)을 만들어 책고리이야기회 멤버들을 자원봉사자로 파견되기도 했다. 아마 이 자원봉사자 이야기꾼들이 전문 이야기꾼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월레이야기 잔치 진행(매월 둘째 주 월요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그림책방



2022.
비대면(Zoom)
월레이야기
잔치



25주년
책고리 이야기회
기념이야기
잔치(2023. 5.1),
인사동 카페
시가연

② 책고리 이야기마당극을 시작하다

2002년 11월, 송영숙 선생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제3회 Asian Congress of Storytellers에 워크숍 리더로 참가할 기회가 있어 우리나라의 ‘심청이 이야기’로 워크숍을 열었다. 그 때 공연형식의 이야기방법인 story showcase의 아이디어를 우리나라의 마당극형식에 접목시켜 이야기마당극을 개발하였다. 이야기마당극은 2003년부터 ‘별밤 이야기잔치’라는 이름으로 공공도서관 축제에 참여하여 공연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봄에는 <박타령>으로, 동지시즌에는 이에 걸 맞는 <팔죽할머니와 호랑이>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의 경우에는 도

서관에서 선정한 책을 극화하는 등, 장소와 목적에 따라 주제를 특화하여 이야기마당극을 기획한다. 최소한의 무대배치와 의상, 그리고 관객과 소통을 중시하는 마당극으로 구성한다. 이야기마당극은 그림책, 옛날이야기, 동화 등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나라 전통 마당극의 형식을 빌려 관객과 소통하며 공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한 방법으로 개발했다. 이야기마당극 공연을 포함하여 이야기 몇 자락과 전래동요, 수수께끼나 게임 등, 1시간 30분 정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여 축제 행사형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데 적합하다.

2006년 IFLA(세계도서관정보대회) 서울 컨퍼런스, 어린이·청소년분과에서 ‘가족독서’라는 주제로 발표했던 “한국의 어린이 도서관봉사와 가족독서”에서 가족독서의 증진을 위한 캠페인으로 이야기마당극 <팔죽할머니와 호랑이>를 공연하였다.³

이야기마당극이라는 이야기의 방법은 남녀노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방법으로 제1회/제2회 국제스토리텔링 페스티벌에도 참가하여 인기를 끌었다. 2017년 8월, 방정환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방정환의 동극 “토끼의 재판”을 공연하였고 그 후 안동, 인천, 안성 등의 도서관 순회공연과 2019년 11월 9일 방정환 탄생 120주년 기념 방정환 예술문화를 알리는 행사로 비엔나 한글학교에서 또다시 공연하기도 하였다.

2022년에는 방정환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기념으로 “또두락 노래주머니”(방정환의 동극 ‘노래주머니’의 재구성 작품)공연이 5월 7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5월 21일 안성시립 공도도서관에서 있었다. 2023년 2월 17일 「어린이창간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의 축하공연으로 정인섭 원작의 “챙기통”을 중랑구의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초연하였다.

가장 최근의 공연은 2023년 5월 24일 몽골 후레대학과 문학세미나 및 문

3 2006년 IFLA(세계도서관정보대회) 서울컨퍼런스, 2006.8.21.

화교류 기념공연으로, 또 6월 8일 포천 유암초등학교에서 “아씨방 일곱동무”를 공연한 것이다. 이렇듯 책고리이야기회에서는 이야기마당극공연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다양한 이야기마당극공연을 한다.

(레퍼토리: 「아씨방 일곱 동무」, 「팔죽할멈과 호랑이」, 「박타령」,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누군지」, 「토끼의 재판」, 「또두락 노래주머니」, 「챙기통」 등)



<이야기마당극 공연이 열렸던 곳>

“아씨방 일곱동무”

- 송파도서관(2003년 10월 2일)
- 파주 금촌도서관(2003년 10월 9일)
- 중랑구 중계도서관(2003년 10월 10일)
- 일산 마두도서관((2003년 10월 11일)
- 수원 영통도서관(2003년 10월 17일)
- 서울 개포도서관(2003년 10월 23일)
- 서울 서대문도서관(2003년 10월 30일)
- 고덕평생학습관(2003년 10월 31일)
- 서울 정독도서관(2003년 11월 5일)

- 동작도서관(2006년 9월 22일)
- 송파도서관(2006년 9월 27일)
- 순천책축제(2006년 10월 13일)
- 용산도서관(2006년 10월 14일)
- 노원정보도서관(2006년 10월 19일)
- 서울 동작도서관(2007년 9월 23일)
- 서울 노원도서관(2007년 10월 19일)
- 성남 중앙도서관(2008년 10월 24일)
- 평택 안중도서관(2008년 10월 25일)
- 서울 용산도서관(2008년 12월 22일)
- 가을독서문화축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2009년 9월 25일)
- 서울 중앙여중 독서문화축제(2009년 10월 24일)
- 인천 수봉도서관(2011년 8월 31일)
- 안성시립 중앙도서관(2011년 10월 8일)
-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개관1주년 기념(2014년 5월 1일)
- 안동 독립도서관(2018년 9월 8일)
- 제2회 한국국제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서울시청 다목적홀(2019년 9월 28일)
- 몽골 후레대학, 문학세미나 및 문학교류(2023년 5월 24일)
- 포천 유암초등학교(2023년 6월 8일)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누군지”

- 강남도서관(2004년 10월 28일)
- 송파도서관(2004년 10월 29일) 동작)
- 한국수양부모협회(2004년 12월 28일)

- 안데르센탄생 200주년 기념 책축제-남이섬(2005년 4월 30일)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식후(2006년 6월 28일)
- 2006 IFLA 서울대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06년 8월 23일)
- 서울 송파도서관(2010년 12월 11일)

“팔죽할머니와 호랑이”

- 전국도서관대회 부산 백스코(2004년 9월)
- 동작도서관(2005년 9월 23일)
- 강서도서관(2005년 10월 13일)
- 송파도서관(2005년 10월 27일)
- 마포평생학습관(2005년 11월 3일)
- 더불어 복지재단(2006년 2월 28일)
- 대구 효목도서관(2006년 2월 28일)
- 정독도서관(2006년 4월 15일)
- 영종도 용유초등학교(2006년 6월 17일)
- 대구 더불어 복지재단(2006년 10월)
- 대구 효목도서관(2006년 10월)
- 2006 IFLA 서울대회, 어린이 청소년분과 오픈 세션(2006년 8월 21일)
- 순천 평생학습축제(2006년 11월 11일)
- 송파초등학교(2006년 4월 25일)
- 평택 안중도서관(2007년 9월 15일)
- 서울 송파도서관(2009년 10월 30일)
- 책고리 어린이도서관(2009년 12월 19일)
- 평택 초록미소마을 동지축제(2009년 12월 22일)

- 서울 증산도서관(2012년 10월 13일)
- 서울 등빛도서관(2012년 10월 23일)
- 인천 수봉도서관(2012년 10월 27일)
- 안성 진사도서관(2016년 12월 17일)
- 송파도서관 ‘성모자애복지관 해피송 하모니 발표회 재능기부(2017년)
- 제1회 한국국제스토리텔링 축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18년 10월 19일)

“박타령”

- 송파도서관(2007년 9월 27일)
- 성남 중앙도서관(2007년 10월 6일)
- 서울 용산도서관(2007년 10월 14일)
- 서울 송파도서관(2006년 9월 20일)
- 인천 수봉도서관 3주년 개관기념 축하공연(2012.8.21.)
- 삼성 소리샘복지관(2008년 10월 10일)

“토끼의 재판”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17년 8월 18일)
- 안동도립도서관(2017년 9월 23일)
- 안성시립 중앙도서관(2017년 12월 23일)
- 인천 미추홀도서관(2018년 5월 26일)
- 비엔나 한글학교, 방정환 세계알리기(2019년 11월 9일)

“또두락 노래주머니”

- 싱가포르 아시아스토리텔링 페스티벌(2021년 9월) 동영상 공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기념(2022년 5월 7일)

-안성시립 공도도서관(2022년 5월 22일)

“챙기통”

-「어린이」 창간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

온가족이 함께 하는 축하공연(2023년 2월 17일)

기타

-서울 아리랑정보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읽기

‘우리 동네는 시끄럽다’(2008년 10월 11일)

-일산 주엽어린이도서관, 경기도 빅북제작기념 ‘해님 달님’(2013년 3월 23일)

-강동도립도서관, 빅북제작기념 ‘해님 달님’(2013년 3월 23일)



〈팔죽할멈과 호랑이〉, 2016



〈토끼의 재판〉, 2017



〈도두락 노래주머니〉, 2021



〈챙기통〉, 2023



〈아씨방 일곱동무〉 2023

③ 책고리 이야기 릴레이 워크숍

제1회 2018년 1월 27일(토) 10:00~16:3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그림책방

특별주제 없음

제2회 2019년 1월 26일(토) 10:00~16:3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그림책방

주제: 우리나라 신화, 전설, 민담

제3회 2021년 1월 30일(토) 10:30~12:30

책고리 연구실 & 비대면

주제: 굵이굵이 팔도 옛이야기를 찾아서

제4회 2022년 1월 22일(토) 10:30~13:0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세미나실 & 비대면

주제: 호랑이해에 만나는 호랑이 이야기

제5회 2023년 2월 10일(금)~11일(토)

파주 초리골 초호펜션 (1박2일)

주제: 재미술술 옛이야기 마당, 나도 한마디(실제이야기) 등



2.3.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교육

①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교육

2004년 서울시 여성정책과의 지원금으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교육”이 시작되었다. 지원금사업 참가단체 중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교육이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고, 2005년 IFLA 오슬로대회에 참가하여 포스터 발표(“Beautiful Granny Storyteller”)도 하였다. 제1회에서 7회(1회~3회 서울시의 지원금으로, 4회~6회는 자비)까지 운영되다가 재정 및 조직력의 부족으로 이 사업을 마치려 하던 즈음,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문화관광체육부의 재정지원으로 같은 명칭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졌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이어받은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전국의 많은 이야기할머니들을 배출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은 서울독서교육연구회의 이야기할머니교육에서 비롯되었고, 이야기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의 대부분이 서울독서교육연구회에서 이야기교육을 받았던 책고리이야

기회 출신이다. 서울독서교육연구회가 처음 이름을 붙인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란 명칭은 고유명사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통명사가 되어 한국국학진흥원의 전국사업이 되었다. 도서관 등의 많은 단체에서 비슷한 교육내용으로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킨 캠페인이 되었다. 2012년부터 인천의 수봉도서관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교육”을 시작하여 아직도 간판 프로그램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세 군데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교육”은 재정지원, 교육시간, 교육의 목적이 주관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3세대의 소통, 가족 사랑과 가족문화, 사회의 전승문화(전통)를 전달하는데 옛날이야기가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는 같다.

2014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에서 3개 주관처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대해 그 장점과 제한점 등을 분석, 논문발표를 하였다.⁴

특히 서울독서교육연구회와 수봉도서관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교육”에서는 실제이야기 교육을 포함하여 할머니들의 어렸을 적 경험 등을 이야기하여 실제이야기모음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의 추억여행」을 발간하였다.

② 서울의 문화자산 ‘내 삶 속에 다시 꽃핀 이야기’, ‘서울 이야기 잔치’

개인의 누적된 경험은 현재라는 필터를 통해 다양하게 걸러지며 침전물로 남은 이야기는 마음의 틈새를 만들며 이해와 포용의 그릇이 된다.

공모사업을 진행한 취지는 노년 세대들이 현대사회 격변과 발전의 산증

4 송영숙, “이야기(storytelling)에서 찾은 1·3세대의 아름다운 소통”,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8차 국제심포지엄, 2014.6.19~20.

인들임을 존중하며 그 분들의 이야기 속에 그려지는 시대상과 개인의 모습을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징검다리,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설계했다.

타인의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독서에서 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들려주는 오감독서로 전환하는 시도였다.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비슷하여 동시대를 살아온 분들의 공감과 이해가 이야기를 검증하고 객관화되었기에 모음집을 발간할 수 있었다.

「서울의 문화자산, 내 삶 속에 다시 꽃핀 이야기, 2022」, 「서울의 문화자산, 서울이야기 잔치, 2023」.

(2022년, 2023년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수행)

2.4. 독서캠프

독서교육의 기본은 아이들이 책을 즐길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좋은 독서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있다. 이러한 독서체험의 방법은 언어체험과 자연체험인데, 언어체험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는 것이다. 자연체험을 위해서 독서캠프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었다. 또한 독서캠프에서 진행될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도서선정은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도서선정 및 평가, 도서관프로그램 개발, 독서 및 도서관운동 등, 책과 자연, 어린이를 연결해 주는 다양한 활동들이 온가족의 독서활동과 깊이 연계되어 있고, 책고리 독서캠프 역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독서활동 프로그램이다.

독서캠프는 책과 자연의 만남을 잇는 기본활동이다. 매년 독서캠프를 운영하면서 이 활동이 우리에게 책과 자연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자연과 책을 만날 수 있도록 하려면 독서캠프를 기획해 볼 일이다. 그러나 독서캠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확실한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캠프장소를 찾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쉽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리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뚜렷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어울리는 캠프장소를 찾는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것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 주제에 맞는 도서를 선정한다.

둘째, 캠프를 지나치게 대형화하지 말고 참가대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캠프의 진행에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고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즐기면서 독서체험을 하도록 유도한다. 참가대상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생부터 중학생, 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어른들의 참가로 안전사고의 확률이 거의 없으며, 어린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같이 참가한 엄마들도 캠프의 한 가족으로 즐기게 된다.

셋째, 독서캠프를 통해 사람과 자연과 책이 만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짠다. 캠프장소의 특성, 그 지역의 역사와 유적지 등을 조사하고 책을 선정하여 미리 읽고 자연과 더불어 그것이 체험되도록 ‘책이야기(책소개)’ ‘독서토론’ ‘이야기시간’ ‘유적지 견학’ 등의 활동을 한다.

어린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나 관심이 없이 어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모든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어린이 독서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그 속에서 옹고 바르게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데 자연을 체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자연체험의 방법으로 독서캠프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는 독서캠프는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움이 많아 중지되었으나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면 좋겠다.)

다음은 서울독서교육연구회가 1997년부터 해마다 진행했던 독서캠프의 예이다.

① 대가족체험 독서캠프(1997년 8월, 원주 치악산)

참가인원이 30~40명 정도의 조출한 캠프일 때 어울린다. 친구이거나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자기들의 자녀를 친구로 만들어 주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을 때, 이런 형태의 독서캠프를 계획한다면 효과가 좋을 듯하다.

〈진행〉

- 할머니 아빠들까지 참가하여 대가족을 만든다.
- 참여한 부모들의 나이나 기타의 여건을 고려하여 큰 아빠 큰엄마, 작은 아빠 작은 엄마, 고모, 이모 등으로 가족을 구성한다. 그리고 참가한 어린이들은 서로 별명을 지어주어 한 가족의 형제자매가 되게 하고, 가족나무도 만들어 가족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물론 별명을 지을 때는 친구들의 특징이나 성격을 파악하는 시간을 주어 아이들 스스로 별명을 지어 선물하도록 한다.
- 아빠들의 어렸을 적 이야기, 할머니들이 가르쳐 주신 들꽃 들꽃에 대한 이야기, 캠프파이어, 물놀이는 물론 들꽃 들꽃들을 채집하여 식물도감도 찾아보며 자연체험을 즐기도록 한다.

② 감골 영동 맛보기 독서캠프(1998년 8월, 영동 유스호스텔)

특정한 어떤 지역에 대한 특색이나 문화 등을 알고 싶다면 그곳에 관련된 책을 미리 읽어보기도 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교류를 통하여

함께 협력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진행〉

- 독서캠프를 진행할 때에 지방 어린이와 도시 어린이가 서로 친해지고 모두 섞여서 조를 짜면 조별활동이 두드러질 수 있다.
- 감골 영동의 특색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영동은 감나무 가로수를 보면서 감골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 이웃하고 있는 옥천에 있는 국악당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음악과 악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

③ 개화기의 역사 엿보기 독서캠프(1999년 8월, 덕포진 교육박물관)

김포의 덕포진에 있는 교육박물관은 예전의 학교교육을 체험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덕포진은 서양문물을 배척하던 흔적을 잘 보여주는 유적지이다. 교육박물관의 바로 옆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 김포시에 신고만 하면 텐트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진행〉

- 엄마 아빠들이 공부했던 교실을 그대로 재현한 옛날 교실에서 부모들의 학교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다.
- 교육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옛 조상들의 슬기도 볼 수 있다.
- 병인양요, 신미양요 당시 서양문물을 배척하던 흔적이며, 임금님을 모시고 강화로 피신하다가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한 손돌과 그의 무덤 등 개화기의 역사를 엿보는 좋은 기회를 만든다.

④ 책과 함께 자연 속으로!(2000년 8월, 영월 책박물관)

영월에서 좀 떨어진 곳, 깊숙이 들어앉은 아름다운 마을의 책박물관, 책박물관으로 참하게 변신한 폐교된 분교가 신작로에서 하늘나라를 향해 올라가듯 계단을 한참 오르면, 운동장을 앞자락에 명석 깔아놓은 듯 내려다보고 있다. 자연과 책과 사람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곳, 이곳에서는 환경문제도 생각해 보고(동강이 아닌 서강이 가까이 있음) 영월의 장릉(단종의 능)과 단종의 유배지인 청량포도 둘러 볼 수 있다.

(현재는 영월 책박물관은 삼례 예술촌으로 옮겨진 지 오래다.)

〈진행〉

- 책박물관의 관람, 아름다운 산골 마을의 정취 느끼기, 어스름 저녁나절 서강의 냇가에서 자연 즐기기 등, 자연을 그대로 숨 쉴 수 있는 곳이다.
- 마당에 명석을 깔고 별이 쏟아지는 밤에 하는 이야기시간, 어둠이 깔린 자연 속에서 신비한 이야기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다.
- 캠프파이어를 즐기며 감자 옥수수를 구워 먹는 재미가 강원도를 느끼게 한다.

⑤ 오감놀이 독서체험(2001년 8월, 충주 토끼산 그림터/봉황 자연휴양림)

충주의 토끼산 그림터는 그림책작가 정승각의 작업실이다. 작은 시골교회였던 건물을 그림 작업실로 개조했다. 작업실 뒤에 있는 작은 동산이 토끼산이어서 정승각 선생님의 작업실은 토끼산 그림터가 되었다. 정승각 선생님의 지도로 “오감놀이를 그림 그리기”를 하고 봉황자연휴양림의 통나무집에서 숙박을 했다.

〈진행〉

- 모듬별 카레라이스 만들기 경연대회로 저녁을 준비했다. 누구네 카레라이스가 제일 맛이 좋을까? 남남, 우리 카레라이스가 최고! 모두 적극적으로 카레라이스 만들기에 참여했다.
- 이야기시간과 캠프파이어, 모듬별 장기자랑이 한밤의 숲 속을 시끌벅적하게 했다.
- 가까운 권태웅 생가 및 시비를 답사하고 권태웅의 ‘감자꽃’ 시비가 있는 충주호가 내려다보이는 공원에서 권태웅의 시, “감자꽃”을 노래하고, 토끼산 그림터에서 만든 작품으로 모듬별 퍼포먼스를 하였다.

⑥ 신나는 우리 음악, 풍물놀이체험(2002년 8월, 문경 고사리수련관)

문경의 고사리 수련관은 이화여대에서 운영하는 연수시설이다. 시설이나 식사, 안전 등, 여러 면에서 훌륭하다. 우리의 풍물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좋은 시설의 강당에서 풍물패를 초대하여 간단한 공연도 보고, 다 함께 어우러져 뱃노래, 민요 등을 배웠다. 가까운 곳에 역사 드라마 ‘태조 왕건’의 촬영 세트장이 있어 견학하는 기회도 가졌다.

〈진행〉

- 점심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먹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태조 왕건 세트장을 견학했다. 갑옷을 입은 장수들과 사진도 찍고 그 당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 풍물놀이 공연과 체험은 우리를 모두 하나가 되게 했고, 들떠있던 우리는 굿나잇 이야기시간으로 취침준비를 하게 했다.
- 풍물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여 모듬별로 연습, 풍물경연대회를 하였다.

⑦ 숲소리를 들어 보아요!(2003년 8월, 강릉 무쇠골 자연학교)

대관령을 넘어 강릉 시내로 들어가기 전 무쇠골로 들어서면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바위계곡을 앞으로 한 우리 연구회 회원의 별장이 있다. ‘무쇠골 자연학교’로 명명하고 캠프장소로 택하였다. 숲의 바람소리, 새소리, 계곡의 물 흐르는 소리, “숲소리를 들어 보아요!”를 주제로 삼았다.

〈진행〉

- 강릉의 경포대로 가서 오죽헌과 참소리 박물관을 먼저 관람하였다.
- 모듬별 돼지고기 바비큐 대회로 저녁을 준비하고, 이야기시간에는 숲이나 나무에 관한 주제를 가진 이야기와 전래동요를 불렀다.
- 강릉은 초당두부가 유명하기 때문에 아침식사로 순두부 영양식으로 두부의 고장임을 다시 확인했다.
- 달구지 타고 동네 한 바퀴, 산골마을을 돌아보았다.

⑧ 들꽃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와 옛날이야기(2004년 8월, 삼척 들꽃학교)

삼척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폐교를 이용한 들꽃학교가 있다. 산자락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콩밭과 옥수수 밭이 펼쳐진 들꽃학교 운동장에는 들꽃과 들꽃이 앞을 다투어 피고 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교육으로 할머니 이야기꾼이 배출되어, 할머니들이 독서캠프에 함께 했다.

〈진행〉

-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큰 동굴인 환선굴을 견학했다. 들꽃학교의 가까운 곳에 있다.
-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옛날놀이 대회(자치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등)를 하였다.

- 들꽃학교 근처의 자연을 돌아보고, 들풀, 들꽃, 풀벌레 등을 관찰하였다.

⑨ 우리 문화를 찾아서(2005년 8월, 전주 한옥마을)

우리의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우리의 옛 문화를 체험하였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듯 한국의 전통음식, 조선시대의 건물, 이씨 조선의 왕족 등을 만났다. 마당놀이인 줄넘기, 대청마루에서 벌어진 윷놀이, 전통가옥의 옛날가구가 놓여진 방에서 잠을 자는 일로 우리의 옛 문화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었다.

〈진행〉

- 견학한 역사를 주제로 마인드맵을 해 보기도 하고 미니 북 만들기 활동도 하였다.
-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시간,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다도수업, 한지공예 과반을 만들었다.
- 평양냉면, 개성탕반과 함께 조선 3대 음식으로 알려진 전주비빔밥을 먹었다. 커다란 나무그릇에 색색가지 나물들과 고기, 계란 지단 등을 넣어 만들어진 80인분의 전주 비빔밥을 여럿이 함께 비벼보는 재미있는 체험을 했고, 색깔도 맛도 환상적이어서 가히 세계적인 음식이라고 생각된다.

⑩ 산골체험 독서캠프(2006년 8월, 강릉 대관령 유스호텔)

두메산골을 체험하기 위해 구불구불 구비진 길을 돌아 강릉 대관령 유스호텔을 찾았다. 떡메치기, 미꾸라지잡기, 경운기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냇가에 대나무 잎으로 배 만들어 띄우기 등 다양한 산골체험을 하였다. 한

번 두 번 떡메를 내리 칠 때마다 밥알이 으깨어지고 노오란 콩고물이 입혀진 인절미가 입 속으로 들어가 목구멍으로 꿀꺽.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들었던 떡 메치기, 처음해보는 신기한 체험이었다. 경운기를 타고 구불거리는 시골산길을 돌면서 농부 아저씨도 되었다가, 짚 다발도 되었다가, 똥거름도 되었다가, 노오란 쌀가마니도 되었다. 유스호스텔 뒷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농기구 체험도 하고 황토염색도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대관령박물관 견학도 하였다.

〈진행〉

-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이야기 시간’에는 할머니들의 옛날이야기와 할머니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즐겼고,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비는 명상의 시간도 가졌다.
- 유아와 1학년 아이들은 감나무 아래에서 “넷물에 뭐가 사나 볼래?” 로 토론도 하고 계곡 관찰하기 등의 독후활동으로 스케치북을 꾸몄다.
- 2~3학년 아이들은 굴참나무 아래에서 나와 함께 ‘심심해서 그랬어’를 이야기하였다. 우리 풀꽃을 찾아보고 풀뿌리를 뽑아 제기차기도 하면서, 풀로 할 수 있는 놀이와 먹거리를 생각해 보았다.
- 4~6학년 아이들은 들마루(정자) 위에서 ‘떠들썩한 마을의 아이들’로 토론과 퍼즐 맞추기, 캐릭터 그리기, 상상하여 글쓰기 등으로 독후 활동을 하였다.

⑪ 자연, 그리고 진실(2007년 8월, 제천 별새꽃돌 자연탐사관/기적의도서관)

농업의 발상지라는 의림지, 제천 기적의 도서관을 견학하고, 기적의 도서관의 이야기동아리인 ‘호랑이 담배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올라가 하늘 밑에 있는 듯한 별

새꽃돌 자연탐사관에 여장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 별과 우주 하늘에 대한 공부하고, 다음 날에는 꽃과 돌을 공부했다. 옥상 천문대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먼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것은 감동적이었다.

〈진행〉

- 제천 기적의 도서관 견학, ‘호랑이 담배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 시간, 도서관의 원두막과 정자에서 진행했던 독후활동, 자연탐사관의 별자리와 별들을 관측했다.
- 여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만들었다.
- 제천 기적의 도서관에 흐드러지듯 피었던 봉숭아를 따다가 손톱에 물을 들였다.
- 돌아오는 길에 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독후활동을 하고 ‘잠깐 전시회’도 하면서 마무리를 하였다.

예 책고리 독서캠프 프로그램

주제: 산골체험 독서캠프

때: 2006년 8월 8일~9일(1박2일)

곳: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무쇠골(대관령 유스호스텔)

[일정]

8월 8일(화)

9:00 책고리 문고 앞 집합, 출발

(대관령 박물관 견학)

12:00 점심(도시락)
 13:00 수련원 도착, 조 편성
 14:00 물놀이, 미꾸라지 잡기
 15:00 체험활동-떡메치기
 18:00 저녁식사
 19:00 어울림 마당
 20:00 이야기시간(이야기할머니와 함께)
 21:00 명상의 시간
 22:00 꿈나라로~

8월 9일(수)

7:00 기상, 아침운동, 생활실 정리 정돈
 8:00 아침식사
 9:00 체험나들이 -경운기 타고 동네한바퀴
 11:30 농기구 체험
 12:00 점심식사
 13:00 무쇠골 책고리 자연학교로 이동
 13:30 독서토론
 15:30 모듬 발표회 및 소감 나누기
 16:00 아쉽지만 서울로~

읽어올 책: * 뽕옹~ 보리방귀. 도토리 기획, 김시영 글. 보리
 * 냇물에 뭐가 사나 볼래? 도토리 기획, 양상용 그림. 보리
 * 심심해서 그랬어. 윤구병, 이태수 그림. 보리

* 할머니 농사일기. 이제호, 소나무
 * 떠들썩한 마을의 아이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햇살과 나무꾼 옮김. 논장

(근처 설악산의 전설이 담긴 옛날이야기책)

* 산 너머 산 이야기너머 이야기. 우봉규. 해와 나무
 * 동네방네 오천년 우리 땅 이름 이야기. 김원석. 대교

준비물: 체육복, 세면도구, 필기도구

* 여행자보험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2.5. 이야기 초롱 발간

이야기시간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이야기초롱>을 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 옛날이야기, 외국의 옛날이야기, 이야기로 들려주기 좋은 동화, 실제이야기 등을 담았다. 이야기초롱은 60쪽 정도



의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이야기책으로 손에 들고 다니기 수월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도 이야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꾸며진 이야기자료이다. 1998년 6월에 첫 책을 발간하고 일곱 권을 내놓고 있으나 현재는 출판을 멈추

고 있는 상태이나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3. 책고리 독서모임

3.1. 책고리 낭독모임

2017년 3월부터 매주 낭독모임을 개설하고 우리나라의 고전소설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낭독도 이야기꾼이 해야 할 영역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듣는 독서인 스토리텔링의 영역에 포함해서 낭독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중이다.

2018년에는 ‘책 읽는 사회’로부터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게 되어 낭독모임활동도 더욱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진행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그림책방에서 낭독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루기도 하였다.

2019년 5월 25일, 수림문화재단에서 있었던 제2회 방정환평화노래잔치 학술포럼에 낭독공연 요청을 받고 방정환의 동화 〈사월 그믐날 밤〉을 낭독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 같은 해에 낭독모임에서는 김유정의 소설을 읽고 가을에 열리는 김유정문학촌의 전국입체낭독대회 참가하여 대상을 비롯하여 많은 상을 받았다. 수상 기념으로 광진도서관에서 ‘김유정의 소설 낭독공연’을 열기도 했다.

2023년 6월 현재 225회째인 낭독모임은 어린이들의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 활동이라기 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독서활동으로 매주 열심히 읽어나가고 있다. 도서선정은 서로 의논해서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한다. 철학적인 책, 깊은 사

고를 요하는 책도 소리 내어 읽으며 자칫 혼자서는 쉽게 읽지 못할 책들도 즐겁게 함께 읽어나갈 수 있어서 인기가 아주 좋은 모임이다.

낭독대회 참여와 낭독공연을 위한 책 읽기와 시야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장르의 도서 읽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낭독대회 참여와 낭독공연을 위한 독서

- ① 김유정 소설 - 김유정 문학촌 입체 낭독대회 참여, 수상, 광진도서관 낭독공연
- ② 방정환 동화 〈사월 그믐날 밤〉, 〈거만한 곰과 꾀바른 여우〉 - 방정환 학술포럼, 대구 2.28기념학생도서관 〈가족과 함께 즐기는 방정환 동화체험의 날〉공연
- ③ 박경리 〈박경리 단편선〉, 〈시장과 전장〉
- ④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시야 넓히기 위한 다양한 장르의 독서

- ① 고전소설: 〈홍계월전〉, 〈숙향전·숙영낭자전〉
- ② 국내소설: 〈관촌수필〉 -이문구
- ③ 외국소설: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메리 앤 새퍼·애니베로스
- ④ 과학도서: 〈코스모스〉 -칼 세이건

〈제226회 책고리 낭독모임〉

일시: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10시~11시 30분 맑음

참석자: 공옥희, 김홍제, 문은실, 양유희, 오수옥, 이영숙, 이은희, 정영아,

정영임(9명)

낭독도서: 페터 비에리 <삶의 격> 247쪽~282쪽

“문학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711쪽에 달하는 코스모스를 7개월에 걸쳐 완독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3월에 첫 페이지의 씨를 뿌리고 10월에 추수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구 별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자각하고 넓고 무한한 우주에 눈길을 주게 된 참으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손주들과 우주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뿌듯해하며 자랑스러워하는 회원분도 계셨습니다.”

-책고리 낭독모임 후기 중에서

3.2. 그림책사랑방 책고리

그림책 읽어주기 방법 및 읽어주기 좋은 그림책, 그림책이 된 수록작품 톨아보기로 방정환 작품(시골쥐의 서울구경, 길벗어린이/만년샤쓰, 길벗어린이/나비의 꿈, 현복스), 이태준 작품(꽃장수, 키즈엠출판사/슬퍼하는 나무, 예림당/엄마마중, 보림)을 읽고, 아름다운 동요(시) 그림책(반달, 오빠생각, 쟁아. 고향의 봄)읽었다. 일본그림책, 중국 및 대만 그림책을 읽고, 지금은 ‘방정환 세계그림책 100선’을 읽으며 방정환 세계학술대회(2023.11.9.)를 준비하고 있다.

그림책이 된 『어린이』에 수록된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즐거운 활동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시간,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이 그림이 정말 좋다느니, 원문을 그대로 살려놓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느니 하면서, 옛날 생각하며

동요를 함께 부르며 즐거웠다.

‘방정환 세계그림책 100선’을 읽어가면서 세계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3.3. 옛이야기 공부모임

2022년 3월부터 진행 중이다. 옛이야기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옛이야기 이론서 함께 읽기를 제안했다. 옛이야기를 좋아하는 회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곧바로 10명이 모여 격주로 대면과 비대면(ZOOM)으로 만나고 있다.

자신이 즐겨했던 옛이야기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뿌듯함은 물론 옛이야기와 더욱 친숙해지는 중이다.

운영방식은 각자가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고 자유롭게 느낌들을 나눈다. 공부모임의 이끄미는 책 선정에 대한 논의와 틈틈이 도움자료들을 공유하여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공부라는 중압감보다 옛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이어 나가길 바란다.

2022년 3월~ 2023년 4월 ‘옛 이야기의 힘’(신동훈, 나무의 철학), 2023년 5월부터는 ‘다시 읽는 임석재 옛이야기’(임석재, 한림출판사) 전 7권으로 재탄생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읽을 계획이다.

4. 어른과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에 차이가 있을까?

서울독서교육연구회의 책고리운동은 어린이들에게 책을 자연과 함께 이

어주고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독서활동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린이 책을 수없이 읽으며 어떻게 어린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할 것인가,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읽힐까를 연구해 왔다. 그러니 주로 읽은 책이 어린이 책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린이 책을 읽으면서 충분히 즐거웠고, 인생을 배웠으며 덤으로 어린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얻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어린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어리다고 해서 꼭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읽어야 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독서능력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서 상상력이나 이해력이 많다면 어른들도 어렵다고 하는 책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비약일지는 몰라도 어린이 모두가 “마틸다”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림책으로 출간된 『어린이』에 수록된 작품을 많은 어린이들이 읽게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를 읽으면서 그림책이나 단행본으로 출간되면 좋은 작품들을 착실히 선택해 보는 일도 참 좋은 독서활동이다. 선택된 작품들이 잘 출판될 수 있도록 출판사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출판된 책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거운 독서를 하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는 일 또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 특히 방정환은 훌륭한 이야기꾼이었으니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골라 이야기책으로 묶어 널리 알리는 일도 의미가 참 깊다고 보며, 특히 책고리가 해야 할 의무처럼 느껴진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송영숙, 『독서교육이야기』, 책고리, 2005.

_____, 『돌아보고 내다보고』, 수봉도서관, 2016.

_____, 『한국의 어린이 도서관봉사와 ‘가족독서’ Family Reading in Children’s Library Services of Korea』, 2006년 IFLA(세계도서관정보대회) 서울컨퍼런스, 2006.

_____, 『이야기(storytelling)에서 찾은 1·3세대의 아름다운 소통』,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8차 국제심포지엄, 2014.

_____, 『미래의 이야기꾼의 역할: 책고리 이야기회의 발자취로 읽다』, 제2회 국제스토리텔링 축제, 학술문화포럼 발표문, 2019.

2. 기타 자료

서울독서교육연구회 홈페이지. www.readingchildren.com

책고리-다음카페. <http://cafe.daum.net/readingchildren.com>

ABSTRACT

Adult Reading Activities Examples for Reading Education

Focused on The Seoul Society for Children's Literature & Reading's Chekgori Movement

Kim, Eun-Ock _ The Seoul Society for Children's Literature & Reading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adult reading activities promoted through the Chekgori movement of the Seoul Society for Children's Literature & Reading. It seeks to identify how storytelling, post-reading programs, and intergenerational initiatives cultivate the joy of reading and support meaningful reading education.

Methods The study reviews the Society's major programs, including storytelling training, story workshops, play performances, reading camps, and the "Beautiful Story Grandmother" education program. These activities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ir pedagogical roles, reading techniques, and contributions to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Conclusions The Chekgori movement demonstrates that diverse reading activities—storytelling, performance,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s—significantly enhance reading enjoyment and participation across age groups. The findings highlight the value of community-based reading education and the enduring impact of shared stories in fostering a culture of reading.

Keywords pleasure of reading, Chekgori movement, various reading groups, reading picture books, storytelling, reading and reciting, storytelling performance(Madangguk), reading camps

일반
논문

이 논문은 2023년 9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9월 20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0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읽기능력 향상과 전공연계교육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

College Writing Education for Improving Reading Skills and Major-Linked Learning

김현경^{*}

국문요약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 대학의 글쓰기는 어떤 주장이나 견해가 옳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학술적 글쓰기와 함께 실용적 글쓰기도 요구된다. 대학이 기업과 사회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용적 글쓰기는 연계적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의 글쓰기는 일반적인 교양과목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대학의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가가지고 중심교육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글쓰기 교육이 대학의 전체적인 교육과정에서 동일한 교육목표를 공유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읽기능력'보다는 기계적인 '글쓰기능력' 향상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다. 둘째, 글쓰기과목과 전공과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글쓰기 교육이 체계화되지 않았고 글쓰기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전공과목이 연계적으로 교육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첫 번째 읽기능력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글쓰기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전체적인 차원에서 '독서클럽'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체계적인 독서클럽 교육과정에 따라 독서클럽을 진행할 때 참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결과가 입증되었다. 두 번째 글쓰기 교육과 전공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열별 글쓰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핵심어 글쓰기 교육, 읽기능력, 전공연계 글쓰기 교육, 독서클럽

* 경민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교수

- 차례
1. 서론
 2. 대학글쓰기 교육의 교육목표
 3. 대학글쓰기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결론

1. 서론

현대사회를 일반적으로 지식정보사회라고 이해하는데 이는 풍부한 지식정보가 생산되어 경제적 가치로 유통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정계층에 의해서 정보가 독점되었던 시대와는 달리 너무 많은 정보들에 노출되어 정보를 왜곡시켜 이해하기 쉽다. 이런 점에서 수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기 어렵고 올바른 정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적합한 정보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자료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이 요구된다. 비판적 사고는 다양한 정보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비판분석 능력을 의미하며 결국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과 연계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를 선별하고 비판적으로 선별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해결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떤 패턴에서 다른 패턴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맥락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창의력을 향상시킨다는 것과 연관된다.¹ 동일한 상

1 이광모, 「대학교양교육으로서의 ‘토론’과 ‘글쓰기’의 의미와 방향」, 『동서철학연구』 44, 한국동서철학회,

황과 사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결국 다양한 관점들이 도출될 수 있으며, 결국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적이거나 연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도 적절하게 일치한다. 소위 T형 인재라 불리는 이 유형에게는 상식과 기존의 틀을 깨는 지적 창의력과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T자에서 세로방향의 선은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가로방향의 선은 다른 분야의 기본지식과 문제해결능력, 능동적인 업무태도 등을 갖추으로써 전체 업무를 운영할 수 능력을 뜻한다.² T형 인재의 이러한 특징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 전반의 삶을 총체적으로 사유하고 음미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공교과목 보다는 글쓰기 교육과 같은 교양교육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글쓰기 교육은 전공교육과정을 위한 예비과정이나 기초과정으로 제한될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에 있어서 고유하면서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인식되어야 하며 구성 및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³

2. 대학글쓰기 교육의 교육목표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의사소통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면서이며, 대부분의 대학은 글쓰기를 대표적인 교양과목으로 진

2007, 37쪽에서 재인용.

2 진정일, 「대학글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한철학』 62, 범한철학회, 2011, 386쪽.

3 김진해, 「교양글쓰기와 전공글쓰기의 연계성 연구」, 『인문학연구』 13, 경희대 인문학연구소, 2008, 29쪽.

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글쓰기는 어떤 교육목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논의는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논의만 있어 왔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논리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⁴, 탐구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등의 범주로 글쓰기 범주를 나눠서 교육 또는 연구해왔으며, 그 중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전제로 하는 학술적 글쓰기가 대학의 글쓰기 교육의 중요하고 핵심적 범주로 합의되어 왔다.⁵ 다양한 글쓰기 개념과 범주 중에서 학술적 글쓰기가 가장 포괄적이며 대학의 글쓰기 교육의 교육목표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학술적 글쓰기란 학위논문과 같은 전문적인 글쓰기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어떤 주장이나 견해가 선택할 만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는 형식에 관계없이 ‘학술적 글’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⁶

그러나 사회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대학의 위상도 변할 수밖에 없고 대학의 글쓰기의 목적과 형식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해왔으나 더 이상 실용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대학이 정량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경향은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선호도와 평가에 따라 대학 평가가 달라지는 상황은 대학의 존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의 글쓰기 교육에 실용적 글쓰기도 포함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대학이 기업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용적 글쓰기는 대학의 글쓰기에서 핵심적 범주로 요구되는 것이다. 학

4 비판적 글쓰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하병학, 「기초학문으로서 비판적 사고의 개선방향: 비판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38, 범한철학회, 2005, 47~69쪽.

5 진정일, 위의 논문, 388쪽.

6 손동현 외, 『학술적 글쓰기』, 성균관대 출판부, 2007, 40쪽.

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와 같은 다양한 실용적 글쓰기 역량은 학생들의 실제적인 욕구와 일치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대학의 일차적 목적인 진리탐구와 함께 취업이라는 실용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욕구를 대학의 글쓰기에서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것이다.

학생은 대학교육의 소비자이고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로 인식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는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진리탐구와 같은 대학의 본질만 강조해서 실용적인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가 없는 고학력자들을 배출하는 비사회적 조직으로 전락해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대학교육 특히 대학의 글쓰기 교육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의 실용적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면 대학보다는 학원의 특징을 가지기 쉬울 것이며 반대로 대학이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고립된 거대한 공동체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은 대학교육의 기로이기 때문이다.

3. 대학 글쓰기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대학의 글쓰기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이중 과제 - 즉 학술적 글쓰기와 실용적 글쓰기 -를 균형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 글쓰기 교육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혹평을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의 원인은 몇 가지 차원에서 파악되거나 설명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대학 글쓰기 교육이 ‘읽기능력’보다는 기계적인 ‘글쓰기능력’ 향상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다. 사고의 내용은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

거나 행위를 통하여 실천될 때 의미를 가지며 사고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료가 먼저 제공되어야 한다. 이 때 사고력이란 입력의 단계와 출력의 단계가 사고에 의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고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읽기- 사고하기- 글쓰기는 일련의 유기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별개로 교육할 수 없는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읽기 능력이 사고능력에 선행하고 글쓰기 능력에 선행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따라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읽기능력이나 사고능력을 선행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글쓰기 강좌는 주로 읽기 능력보다는 글 쓰는 방법론에 치중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⁷ 읽기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글쓰기 능력도 향상되기 어려운 것이다. 읽기활동을 통해서 생각하고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계적인 글쓰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대학의 글쓰기 교육의 이중적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대학의 글쓰기 교육이 읽기를 배제한 채 글쓰기 방법론만을 강조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독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5년간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대학생 수가 5년 동안 6분의 1로 줄어들었다. 지난 1년간 도서관 책을 대출하지 않은 학생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었다. 물론 대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은 글쓰기 기능과 방법만 강조하는 글쓰기 교육이외에도

7 진정일, 위의 논문, 391쪽. 진정일은 여러 논문들과 대학의 글쓰기 교재를 검토한 결과 대학의 일반적인 교육방향은 읽기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글쓰기 교육을 강조한다고 했다. 나은미,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현황분석: 과목개설 현황 및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008; 이선옥, 「대학 글쓰기에서 자료읽기와 쓰기 교육의 통합 방향성 모색」,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박경숙, 「대학글쓰기 교재의 비교분석」, 『한국언어문학』 68, 한국언어문학회, 2009; 허재영, 「대학글쓰기에서 자료 읽기와 쓰기교육의 통합방향성 모색」,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9.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전자책 이용증가, 도서관의 장서부족, 취업공부 같은 원인도 대학생들이 점점 독서를 하지 않는 경향을 심화시킨다.

시대가 다양해지고 따라서 독서의 외연적 형식이 확장되면서 독서가 이전처럼 단순히 활자 책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통한 파악되고 이해되는 의미행위까지 포괄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를 통한 읽기활동도 독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도서관 대출권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일견 타당한 반박 분석일 수 있겠으나 인터넷 글쓰기와 읽기는 체계적인 지식구조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기적 이해와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전자매체를 통한 글쓰기와 읽기활동은 정보를 얻는 것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것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대학 글쓰기 교육 문제점의 원인은 글쓰기 과목과 전공과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에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교과목은 1학년 때 거의 개설되는 상황이다. 글쓰기 강의가 길어야 2학기 이상 개설되기 어렵다. 전문대학의 글쓰기 교육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NCS 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 영역을 규정하고 5개의 하위능력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읽기교육을 할 여지가 거의 없다.⁸ 또한 의사소통능력 관련 교과목이 1학기 이상 개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학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저학년 때 글쓰기 및 의사소통 관련 강의를 수강하게 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전공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이해력과 문해력을 높이는 정도의 도구적

8 NCS에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능력을 크게 10가지로 구분한다. 10가지 능력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이 포함된다. 글쓰기 교육과 관련된 직업기초능력은 의사소통능력인데 의사소통능력에는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의 하위능력을 포함한다. 형식적으로는 의사소통능력으로 범주화했으나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읽기중심의 글쓰기 교육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고 선행적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글쓰기는 본래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공공부를 하기 위한 주변적이고 수단적 가치를 가지는데 이 또한 현실적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김진해의 연구에 따르면 전공강좌의 과제 수행 시 교양글쓰기 강좌를 통해 얻은 방법의 도움 여부를 분석해보니 교양글쓰기가 전공 글쓰기 수행에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거나 영향을 주었어도 부분적인 영향뿐이었다.⁹ 이는 여전히 대학의 글쓰기 교육이 체계화되지 않았고 글쓰기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전공과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쓰기 교육은 전공교과목을 위한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지만 철저하게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되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대학의 글쓰기 교육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읽기능력 보다는 기능적인 글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 교육과정 또는 비교과 과정에서 ‘독서클럽’을 운영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안한다.¹⁰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독서클럽을 이미 여러 대학들이 독서인증제와 함께 실시해서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며 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¹¹ 독서클럽은 특히 비정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읽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¹²

두 번째, 글쓰기 교육과 전공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열별 글쓰기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계열별 글쓰기란 인문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자연과학 글쓰기 등으로 구분해서 각 계열별 학습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전공계열의 특징을 반영한 글쓰기를 세분화시켜 전공교육과 글쓰기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는 방법론이다. 계열별 글쓰기는 글쓰기 교육이 전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각 전공들과 개별적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글쓰기 교육의 보편적 목적과 개별적 목적을 잘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글쓰기 교육이 전공과목과의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공과목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융합적이고 시너지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¹³

4. 결론

대학의 글쓰기 교육은 단순한 교양교과목에 그치지 않고 현대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T형인재가 되는데 매우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전공교과목을 위한 보조적 수단을 넘어서서 대학의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를 동일하게 공유해야 할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글쓰기 교육은 읽기

9 김진해, 위의 논문, 44쪽.

10 독서클럽 운영과 독서활동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김현경, 「전문대학생을 위한 독서클럽운영의 필요성과 실제」, 『계간 디지털도서관』 70, 2013, 21~29쪽 참조. 독서클럽 운영과 인식지도에 대한 내용은 한철우, 박영민, 「독서클럽활동을 통한 인식지도」, 『독서연구』 9, 한국독서학회, 331~352쪽.

11 김현경, 「경민대학교 채용인재 양성을 위한 독서인증 프로그램 설계」, 『경민논총』 14, 경민대 정보도서관, 2014, 37~53쪽.

12 김혜진, 「독서클럽활동이 독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독서기록장 쓰기를 중심으로 독서클럽활동이 독서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적 연구를 했기 때문에 대학의 글쓰기 교육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독서클럽 활동이 독서습관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결국 글쓰기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13 정희모, 「MIT 대학글쓰기 교육 시스템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11, 한국독서학회, 2004, 327~356쪽 참조

능력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글쓰기 기능만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추구하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읽기능력과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글쓰기 교육과 전공교과목과의 연결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글쓰기에서 배운 것들이 전공공부를 하는데 있어 크게 영향을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는 글쓰기 교육과 전공교과목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서클럽은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학교차원에서의 독서클럽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글쓰기 교육에도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 글쓰기 교육과 전공교과목의 연결성을 위해서는 인문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자연과학 글쓰기로 구분해서 계열별 특징을 반영하는 글쓰기교육을 실시한다면 글쓰기 교육이 전공교과목 교육과 연결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융합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곽경숙, 「대학글쓰기 교재의 비교분석」, 『한국언어문학』 68, 한국언어문학회, 2009.
- 김진해, 「교양글쓰기와 전공글쓰기의 연계성 연구」, 『인문학연구』 13, 경희대 인문학연구소, 2008.
- 김현경, 「전문대학생을 위한 독서클럽운영의 필요성과 실제」, 『계간 디지털도서관』 70, 디지털도서관, 2013.
- _____, 「경민대학교 채용인재 양성을 위한 독서인증 프로그램 설계」, 『경민논총』 14, 경민대 정보도서관, 2014.
- 김혜진, 「독서클럽활동이 독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나은미,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현황분석- 과목개설 현황 및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008.
- 손동현 외, 『학술적 글쓰기』, 성균관대 출판부, 2007.
- 이광모, 「대학교양교육으로서의 ‘토론’과 ‘글쓰기’의 의미와 방향」, 『동서철학연구』 44, 한국동서철학회, 2007.
- 이선옥, 「대학 글쓰기에서 자료읽기와 읽기 교육의 통합 방향성 모색」,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 정희모, 「MIT 대학글쓰기 교육 시스템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11, 한국독서학회, 2004.
- 진정일, 「대학글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한철학』 62, 범한철학회, 2011.
- 하병학, 「기초학문으로서 비판적 사고의 개선방향: 비판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38, 범한철학회, 2005.
- 한철우·박영민, 「독서클럽활동을 통한 인성지도」, 『독서연구』 9, 한국독서학회, 2003.
- 허재영, 「대학글쓰기에서 자료 읽기와 쓰기교육의 통합방향성 모색」,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9.

ABSTRACT

Writing education in college for Enhancement of reading ability
and Writing a link to major t

Kim, Hyun Kyung _ Kyungmin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current college writing education and propose ways to strengthen its effectiveness by integrating reading ability and major-related learning. It seeks to enhance students’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while promoting practical writing skills aligned with academic and social needs.

Methods The study analyzes problems in existing writing instruction, particularly the emphasis on formal techniques over reading competence and the lack of connection with students’ majors. It then proposes two strategies: implementing reading clubs to foster reading habits and designing a curriculum that links writing education with major courses across all academic years.

Conclusions The findings highlight that effective college writing education requires reinforcing students’ reading abilities and establishing systematic connections with their majors. Reading clubs can enhance writing competence through sustained reading practices, while major-linked curricula provide relevance and continuity, ultimately improving students’ critical, creative, and practical writing skills.

Keywords Writing education,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Reading education, Reading Club

이 논문은 2023년 9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9월 20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0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의 출판 양상과
교류에 대한 전망

Prospects for publication patterns and exchanges of picture books about old stor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김경희*

국문요약 이 논문은 한반도에 전해지는 옛이야기가 분단 이후 남북한의 상황에 맞게 재편된 옛 이야기그림책 목록을 통하여 한반도의 통일과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남북 옛이야기공통그림책 목록을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한의 옛이야기 목록 선정을 위해서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구전설화』를 참고하고 『한술알강달강 옛이야기』(2009) 50편을 선정하였다. 이 이야기는 형식담, 민담, 전설, 신화, 전통연희로 분류되어 지혜, 경쟁, 우애, 응보, 보은, 유래, 신이, 변신 등 다양한 유형의 이야기가 옛이야기 그림책으로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의 옛이야기 전집 시장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 종류도 많다. 그 가운데 『한술알강달강 옛이야기』(2009)를 선정한 이유는 남한의 옛이야기 가운데 신화부터 전설, 민담까지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다양한 옛이야기 목록 선정을 위해 『옛말』 1,2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 책은 조선 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에서 1964년부터 1965년까지 만들어져 포괄적인 옛이야기를 담고 있다. 최신의 옛이야기그림책인 『조선옛이야기그림책』 60권(2013~2014)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목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30편의 공통 목록을 선정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반도 어린이를 위해서 남북옛이야기그림책 공통목록선정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어린이가

* 가천대학교 문화유산역사연구소 연구교수

원래 하나였던 이야기의 속성을 이해하고 각기 다른 문화 속에 전승된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의 문화를 경험하고 통일세대의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한반도, 분단, 옛말, 남북옛이야기 공통목록, 실물교류, 소통력

- 차례**
1. 문제제기
 2. 남한 옛이야기 그림책 출판 양상
 3. 북한의 옛이야기 그림책 출판 양상
 4.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 교류 방안
 5. 결론

1. 문제 제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이야기는 향유자들에게 즐거움과 편안함, 삶의 지혜 등을 준다. 옛이야기의 구연 현장은 점차 사라지고 ‘책’의 형태를 지니게 된 옛이야기는 그림, 영상, 음악 등의 다양한 매체들과 결합하여 현대 향유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 때, 동서고금의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즐길 수 있지만, 유독 한반도에 살면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편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북한의 실정도 다르지 않겠지만, 남한에서 북한의 옛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책으로 보는 것은 정해진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피우지 못한 통일의 씨앗을 기대하며,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류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을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으로 한정하였다. 남북이 분단 이후 형성해 온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

하여 옛이야기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들이 생산되는 북한은 당의 문예정책에 따라서 당의 혁명사상을 강조하는 그림책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도덕, 교양 등 당이 주도하는 가치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그림책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남북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매체가 그림책이기에 옛이야기 그림책을 대상으로 삼았다. 현대 아동들이 옛이야기를 감상하는 것보다 그림이나 영상을 통한 접근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교류를 위해서 현대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옛이야기 그림책’으로 범위를 삼았다. 이에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의 이야기 선정, 목록, 선호도, 내용, 판형, 칼라, 출판 의도 등을 고려하여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북 어린이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 교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북한 자료의 경우, 일반적인 출판경향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없고, 현재 남한에 들어와 있는 한정된 자료를 통해서만 연구할 수 있기에 제약이 있다. 현재 남한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조선대백과사전』에서 ‘그림책’ 항목을 찾아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그림책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그림책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그림책들, 우리나라 소설그림책들, 옛말그림책들, 외국그림동화책들’이 소개¹되고 있다. 소설, 옛말, 외국과 같은 분류는 그림책의 내용에 따라 형성된 것들이다. 반면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을 포함하여 지도자가 들려주는 그림책이라는 명명법은 내용보다는 전달자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분류법이다. 그림책을 통하여 아동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체제의식을 반영

1 「그림책」, 『조선대백과사전』 3, 백과사전출판사, 1996, 392~393쪽(띄어쓰기는 『조선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음을 밝힌다).

한 결과이다. 이렇듯 북한에서 통용되는 그림책은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되는 항목들과 북한 체제 선동용 그림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그림책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현상과 인간의 창조적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참신하고 교양적가치가 있는 주제들을 그림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실감있게 느낄수 있도록 하는 설득력을 가지²⁾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책은 “어린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종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편집발행된다. 그림책은 근로자들 특히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교양할뿐아니라 그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상식을 넓혀주는데 이바지³⁾하고 있다. 북한에서 그림책은 ‘참신하고 교양적 가치가 있는 주제들을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교양과 상식을 넓히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책이 지닌 문학적 가치와 감상보다는 ‘교양, 상식’을 실감나게 느끼고 설득력을 지니게 하여 실제 ‘교양과 상식’에 기여하는 것이다.

옛이야기는 구전 전승되던 이야기로 분단 이전 한민족의 공통된 정서를 담고 있다. 옛이야기를 기반으로 형성된 옛이야기 그림책 역시 민족적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남한에서 옛이야기 그림책은 ‘어린이’의 전유물처럼 보이지만, 북한은 그림책에 대해서 ‘어린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림책의 독자층이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요즘 남한에서도 그림책을 읽는 대상이 어린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른, 노인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금까지 북한의 그림책에 대한 연구는 몇 편⁴⁾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 아

2 위의 책.

3 위의 책.

4 다프나 주르, 류수연, 「북한 아동 그림책에서의 한국전쟁」, 『근대서지』 10, 근대서지학회, 2014; 오강원, 「2000년대 북한 아동용 도서에 그려져 있는 단군·고조선과 서술 변형의 역사·고고학적 배경」, 『한국

동문학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에 비로소 시작된 이후⁵⁾에, 그림책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북한 옛이야기 그림책에 대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 최근에 발간된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 전집을 통해서 향유 목록을 살펴보고, 남한에서 최초로 발간된 북한 옛이야기 그림책을 통해서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의 교류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옛이야기 그림책 자료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건국대 통일인문학 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장서를 활용하였다.

2. 남한 옛이야기 그림책 출판 양상

남한에서 단행본 그림책의 출판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무렵이다. 『어린이 그림동화 극장 선집』(세진출판, 1980)은 한국명작 24권, 세계명작 24권으로 구성되었다. 이후에 『재미있는 어문각 픽처북스』(어문각, 1981)에서 한국 전래 동화 선집 12권이 나온다. 옛이야기 그림책 출판은 1980년대 이후 급증하게 되면서 전집 출판과 더불어 단행본으로 이루어진 출판이 두드러진다.

1990년대에 들어 단행본 그림책들이 출판되기 시작하고, 다양한 옛이야기 그림책 전집도 빼놓을 수 없다. 이후 현재까지 작품성이 있는 옛이야기 그림책이 출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에 나온 옛이야기 그림책 전집의 목록을 통해서 남한 옛이야기 그림책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WB월드베스트의 요술

학논총」 42, 한국학연구소, 2014; 김경희, 「북한 그림책『지혜키우기』에 나타난 인재상과 그 형상화 방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0, 아동청소년문학연구학회, 2017.

5 그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은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마성은은 재북·월북 문인들에 대한 연구, 장르연구, 시대별·테마별 연구를 토대로 통일아동문학을 모색하며 북한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 과제를 사적으로 제시하였다(마성은, 「북한 아동문학 연구 현황과 과제」, 『현대북한연구』 99, 현대북한연구학회, 2012).

지팡이 전래동화, 그레이트 키즈의 이야기 꽃할망, 탄탄스토리텔링의 옛이야기, 한술알강달강 옛이야기와 수북 옛이야기, 웅진북클럽의 내용을 살펴 보았다. 북한 전집과 한술알강달강 옛이야기(2009) 작품의 분량과 내용면에서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여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옛이야기 그림책 목록을 통해서 남한에서 재창작되는 그림책의 현황을 알아볼 수 있다.

표 1 | 남한 옛이야기 그림책 목록

	한술알강달강 옛이야기	분류		한술알강달강 옛이야기	분류
1	이야기는 이야기	형식담	26	떡 먹기내기	민담
2	새빨간 거짓말	형식담	27	멸치의 꿈	민담
3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가	형식담	28	조 이삭 하나로 장가든 총각	민담
4	도깨비를 만났더니	형식담	29	바보 신랑	민담
5	왜가리 똥 여우 주둥이	형식담	30	꼭재기와 꼭꼭재기	민담
6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민담	31	방귀쟁이 며느리	민담
7	말하는 새	민담	32	단똥 장수	민담
8	신기한 요술족자	민담	33	견우와 직녀	전설
9	재복데기	민담	34	아기장수	전설
10	손없는 색시	민담	35	백두산 천지	전설
11	악한에게 잡혀간 누이	민담	36	지네장터	전설
12	반쪽이	민담	37	저승곳산과 덕진다리	전설
13	우렁각시와 새털 옷 신랑	민담	38	백일홍	전설
14	팡죽할멈과 호랑이	민담	39	아홉 오라비 집동새	전설
15	선녀와 나무꾼	민담	40	단군	신화
16	콩쥐팍쥐	민담	41	대별왕 소별왕	신화
17	구렁덩덩 신선비	민담	42	삼승할망	신화
18	밤손이	민담	43	오늘이	신화
19	까막나라 불개	민담	44	가문장 아기	신화

	한술알강달강 옛이야기	분류		한술알강달강 옛이야기	분류
20	밥 안 먹는 색시	민담	45	바리공주	신화
21	재주 많은 다섯 친구	민담	46	심청가	전통연희
22	조마구	민담	47	홍보가	전통연희
23	파란구슬	민담	48	수궁가	전통연희
24	여우누이	민담	49	홍동지놀음	전통연희
25	소가 된 게으름뱅이	민담	50	봉산탈춤	전통연희

한술알강달강 옛이야기(2009) 50편을 선정하였다. 이 이야기는 형식담, 민담, 전설, 신화, 전통연희로 분류되어 지혜, 경쟁, 우애, 응보, 보은, 유래, 신이, 변신 등 다양한 유형의 이야기가 옛이야기 그림책으로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북한의 옛이야기 그림책 출판 양상

먼저 북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옛이야기 목록을 점검하고 이를 그림책으로 변용시킨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광식은 ‘북한 최초의 본격적인 옛이야기집’은 무엇인지 탐색하면서, “북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간행된 옛이야기집의 대부분이 소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북에서는 1967년 5.25.교시의 후속 조치로 1968년 3월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도서정리사업’이 단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옛이야기집도 ‘낡은 사상’으로 낙인 찍혀 배제되었다”⁶라고 보았다. 김광식은 북한 설화집의 선두에 고정옥의 『전설집』(1956)을 두었다. 또한 북

6 김광식, 「북한 민담집『우리나라 옛이야기』의 발간과정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71, 열상고전연구회, 2021, 7~9쪽.

한 최초의 민담집으로 『우리나라 옛이야기』(1954)를 정하였다. 자료집들이 모두 나름의 의의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옛이야기를 수록하고 『옛말』 1, 2(조선문학예술총동맹 출판사, 1964-1965)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모두 98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표 2 | 옛말(1964-1965) 목록

1권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2권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출판사
1	늙은 종과 어린 중	36	벽동군수
2	재판 받는 망두석	37	범의 꼬리
3	떡 먹는 부처	38	신랑의 도량
4	네 형제의 소원	39	밤 중의 물레 소리
5	슬기로운 총각	40	황금덩이와 구렁이
6	한평생 쓰고도 남는 것	41	달미 바람
7	물귀신과 숲귀신	42	봉이 김 선달의 일화
8	고 망종이 과거 보기	43	록두죽
9	무당과 소년	44	박 첨지의 선물
10	형제 무덤	45	원한의 무덤
11	다리에 깃든 이야기	46	헛장수
12	기이한 상봉	47	해인사에 대한 전설
13	력사 우 하형	48	밥 값으로 기둥 그루를 찍다
14	첫날밤의 언약	49	비싼 이야기 값
15	의로운 무관	50	화목한 가정과 불화한 가정
16	다섯 처녀를 중매한 이야기	51	어사 놀이
17	전해지지 못한 명약	52	구호미 10만 석
18	콩밥을 먹으면 장수가 되는가	53	박 어사
19	꿀단지	54	숫구이 총각의 꾀
20	목침이 악	55	<되넘어 고개>

1권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2권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출판사
21	그럴듯한 약방문	56	호랑이 형님
22	점 잘 치는 두타비	57	이상한 동굴
23	<엄챙이>와 대감	58	과거 시험의 글 제목
24	문자 잘 쓰는 사위	59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25	애비가 고손자된 이야기	60	배 꿈의 김초시
26	강낭떡과 돈주머니	61	백일홍에 깃든 이야기
27	효녀와 두꺼비	62	신부의 복수
28	안협의 한효부	63	선녀 바위
29	산삼 깨러 갔던 세 사람	64	이상한 병
30	슬기로운 안해	65	노루물 약수
31	<명주곡>의 유래	66	도적 잡는 두꺼비
32	미친 놈은 뚝으로 고쳐야 한다	67	남잡이 제잡이
33	두벌 가족	68	방 녀주
34	<봉이 김 선달>이란 칭호의 유래	69	두 대목
35	남 잡이 제잡이	70	<선 바위> 이야기
		71	세 가지 소원
		72	섬 처녀
		73	대추나무와 흰 부인
		74	아랑
		75	<아니올시다 원님>
		76	최 서방의 의리
		77	한 순계의 효성
		78	소년의 지혜
		79	<한 다리>의 마장수
		80	상놈이 량반을 때린 이야기
		81	엄 선달과 방어
		82	지주와 머슴

1권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2권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출판사
		83	<그 때는 저 개가 없었소>
		84	룽바위
		85	아이적의 강감찬
		86	왕과 오구랑팔죽
		87	수달의 금강산 구경
		88	세 장수의 어릴 적 이야기
		89	장연호에 깃든 이야기
		90	황 정승의 상소
		91	소 탄 사돈
		92	머슴군이 왕의 사위로 된 이야기
		93	광주리 섬
		94	갓을 팔아 술장사
		95	삼 형제
		96	성거사
		97	백사리 행복의 일화
		98	뽕 잡는 게 매

95편의 내용은 남한에서도 익히 알려진 이야기들이다. 이 자료가 북한의 옛이야기를 대표하는 것은 될 수 없으나 이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린이용으로 기획된 옛이야기 그림책의 경우 ‘어린이’ 독자를 주 안점에 두고 목록을 선정하였을 것이다. 북한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양 교육은 옛이야기, 그림책, 만화, 영상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활용되기에 옛이야기 그림책을 통해서 북한 당국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문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의 후대들의 장래문제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교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미래와 직접 관련되어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현시기 모든 사상교양수단들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혁명의 참다운 후비대, 주체혁명위업의 미더운 계승자로 키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신 것은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고전적정식화로 된다.⁷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민족고전작품을 윤색편찬하는데서 개작하는 방향에서 혁신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을 밝히시고 력사주의원칙과 현대성의 원칙, 평이하게 풀이하는 원칙을 다같이 지키며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도록하시였다.(중략)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민족고전작품을 안겨주는데서 <<조선민화집>>의 편집출판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지였다.⁸

북한에서 아동문학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 정책은 바로 ‘고전적정식화’ 사업이다. 고전작품의 현대화작업을 통해서 현대 아동의 사상교양 교육에 힘썼다. 이 과정에 고전을 활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에서 고전을 재활용한 이유는 고전작품의 재해석을 통해서 현대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역사와 사상들을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민화집』의 출판이 의미 있는 것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를 새롭게 인식했다는 점이

7 정룡진, 「주체시대 아동문학의 사명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 『아동문학의 새로운 발전』, 문예출판사, 1991, 73쪽.

8 정룡진, 「청년 첫시기 독자들을 위한 문학창작」, 『아동문학의 새로운 발전』, 문예출판사, 1991, 266~267쪽.

다. 이후, 북한의 아동문학은 어린이의 교양과 흥미를 위해서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는 일에 힘썼다.

1988년 『조선민화집』 발간 이후에, 2004년 『조선민화그림집』이 발간되고 이러한 옛이야기들을 계승하여 2013년 『조선옛이야기그림책』이 출판되었다. 동일한 유형의 이야기도 있고, 새로운 작품도 있지만 동일한 유형의 이야기일 경우, 서사와 그림의 결합 양상의 변이를 추적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초기에 고전적정식화 사업에 옛이야기들이 호출되었다면 이후에는 당대 아동문학의 흐름과 영향을 고려하여 그림이 추가하여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발간된 『조선옛이야기그림책』의 출판은 현재 북한의 아동문학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표 3 | 조선옛이야기그림책(2013-2014) 이야기 목록

번호	제목	주제	번호	제목	주제
1	들쥐와 다람쥐	유래	31	신기한 쇠강아지	응보
2	목침이 약	지혜	32	김치맛	지혜
3	헛장수	지혜	33	두 친구	응보
4	병풍 속의 호랑이	지혜	34	귀가 큰 토끼	응보
5	게으른 너구리	응보	35	허끝에 붙은 비밀	지혜
6	지주놈의 계약서	지혜	36	다람쥐를 찾아간 세 날짐승	유래
7	호랑이와 말도적	응보	37	도루메기	유래
8	냄새맡은 값	지혜	38	잠자는 보초	지혜
9	황서방과 황지주	지혜	39	용바우와 잉어	응보
10	떨랑귀신	지혜	40	은혜값은 까치	응보
11	효녀심청	효행	41	살아있는 거부기	희생
12	삼돌이와 학	응보	42	어린 제비	응보
13	꼭있는 아이	지혜	43	알려지지 않은 약샘	응보

번호	제목	주제	번호	제목	주제
14	농사일을 돕는 개	응보	44	개구리의 재주	지혜
15	신기한 매들	유래	45	버림받은 꿀꿀이	응보
16	금도끼와 쇠도끼	응보	46	거부기와 호랑이	지혜
17	도적을 잡아낸 소년	지혜	47	덜미잡힌 여우	응보
18	뽀난 너구리	응보	48	속담을 외운 팔삭동이	응보
19	들쥐가 고른 사위	응보	49	얼빠진 곰	응보
20	달속의 옥토끼	유래	50	자기를 몰랐던 개구리	응보
21	벽동군수	응보	51	커지는 집	유래
22	네 형제의 재주	지혜	52	속담겨루기	지혜
23	말 안 들던 청개구리	응보	53	앵무새	응보
24	호랑이와 암소	지혜	54	공짜만 좋아하다가	응보
25	지주와 머슴	지혜	55	반달곰네 오누이	응보
26	뒤에 오는 말의 주인	지혜	56	꿀도토리 한알	응보
27	황금덩이와 구렁이	응보	57	짚룩이는 무엇을 몰랐나	응보
28	우쭐대던 메뚜기	응보	58	황금열매가 열리는 나무	응보
29	닭알로 고른 사위	지혜	59	밤세알	응보
30	3년 고개	지혜	60	꼬마곰의 깨돌망	응보

『조선옛이야기그림책』은 2013년부터 2014년에 완성된 작품으로 모두 60권이다.⁹ 60권이 완결인지, 남한에 들어 온 작품이 60권인지 알 수 없지만 기존의 『조선민화그림책』이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60권 이후에 더 출판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 책을 발간한 ‘조선출판물수출입사’는 북한 출판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옛이야기그림책』이 북한

9 김경희, 『『조선옛이야기그림책』의 체계와 구성양상』, 동화과 번역연구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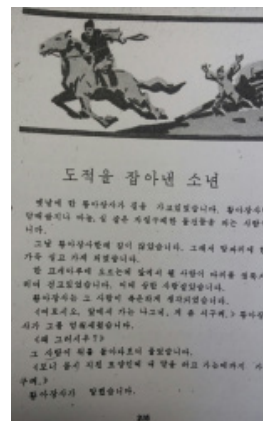
국내 독자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해외출판을 목적으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옛이야기그림책』 60편 가운데 31편이 응보답에 해당된다. 권선징악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북한은 주체문학론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노동’, ‘근면’, ‘성실’, ‘협동’의 중요성을 아동문학에서 강조하고 있다. 옛이야기 서사를 통한 교양 선전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한 옛이야기 그림책들이 지혜, 변신, 신이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 출판사에서 나온 그림책들이 기존의 북한 그림책에 비해서 색깔, 종이 질 등 다방면에서 상품성이 높다. 『조선옛이야기그림책』의 내용들은 다시 『조선민화그림책』으로 출판되었고, 『조선민화집』이 『조선민화그림책』으로 출판되었다. 『조선민화집 도끼바위와 화살바위』(금성청년출판사, 1998)는 『조선민화그림책 도끼바위와 화살바위』(금성청년출판사, 2014)로 출판되었다. 이처럼 옛이야기 책과 그림책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출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동일한 서사의 변이와 매체의 변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출간된 『조선민화그림책21 은혜값은 가치』(금성청년출판사, 2017)는 『조선옛이야기그림책』의 8권 『냄새맡은 값』, 5권 『게으른 너구리』, 10권 『딸랑귀신』, 14권 『농사일을 돕는 개』, 15권 『신기한 매돌』, 16권 『금도끼와 쇠도끼』, 17권 『도둑을 잡아낸 소년』, 33권 『두 친구』, 40권 『은혜값은 가치』를 그대로 재수록 하였다. 다만 종이의 질이 얇고 칼라가 아닌 흑백, 판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조선옛이야기그림책』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출판된 옛이야기 그림책이 한 권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한 개의 지면에 여러 장의 그림을 넣었기 때문이다. 제작비 절감을 위해 흑백으로 제작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수록되었다. 하지만, 독립적인 책으로 이미 작품을 접한 독자는 흑백이면

서 여러 장면이 한 장에 녹아있는 그림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옛이야기그림책』이 수출용이고, 『조선민화그림책』이 내수용일 수 있는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 조선민화집,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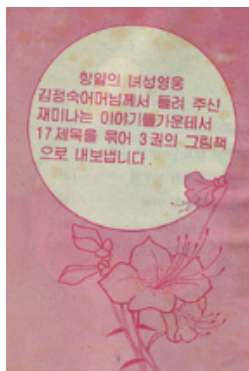
㉡ 조선민화그림책, 2004



㉢ 조선옛이야기 그림책, 2013

㉠ 『조선민화집』은 옛이야기를 묶어 놓은 것으로 한 장면의 그림이 있다. 도둑이 말을 타고 황아장수의 집을 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은 그림책으로 출판된 『조선민화그림책』 표지로, 도둑을 잡을 소년의 밝은 표정과 시름에 빠진 황아장수의 얼굴이 대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 도둑을 잡은 소년은 더욱 여유로운 모습이다. 그 뒤로 황아장수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던 도둑이 포졸들에게 잡혀가고 있다. ㉠, ㉡, ㉢의 옛이야기의 서사 변화는 거의 없다. 옛이야기가 그대로 그림과 결합하여 옛이야기 그림책을 형성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옛이야기 서사와 그림책이 다르게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옛이야기 그림책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출판의 도에 따라서 서사의 변이보다는 종이질, 색깔, 그림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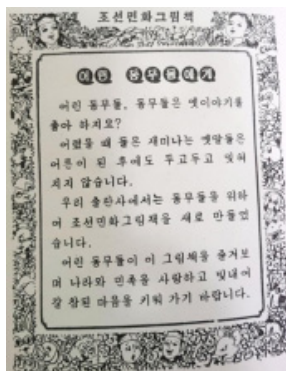
북한에서 발행된 그림책의 서문에 제시된 이야기의 속성과 의도도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다. 1980년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그림책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그림책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그림책들’로 지도자가 직접 해 주신 이야기라는 데에 강조점이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지도자가 아닌 ‘어린 동무들에게’로 바뀌어 옛이야기 자체를 들려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 단행본, 1980



㉡ 단행본, 1984



㉢ 전집, 2004



㉣ 전집, 2013

어린 동무들, 동무들은 옛이야기를 좋아 하지요?

어렸을 때 들은 재미나는 옛말들은 어른이 된 후에도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는 동무들을 위하여 조선민화그림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동무들이 이 그림책을 즐겨보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빛내여갈 참된 마음을 키워 가기 바랍니다.¹⁰

저 하늘에 반짝
아기별이 반짝
초롱불 두고
모두모두 모여라
어서야 재미나는
옛말이야기 들어보자¹¹

옛이야기 서문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체가 지도자에서 이야기꾼으로 바뀐 것은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대다수의 이야기들이 지도자 특히, 김일성이 만든 이야기라고 시작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선 이러한 변화는 옛이야기 자체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어렸을 때 들은 재미나는 옛말들은 어른이 된 후에도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은 식민지시기 출판된 동화집들의 서문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대목으로 이야기를 사상성이 아닌 옛이야기 자체의 흥미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는 경향성을 보인다.

10 『조선민화그림책』, 금성청년출판사, 2004, 서문.

11 『조선옛이야기그림책』,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3, 서문.

4.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 교류 방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교류에 대한 기대로 북한 동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01년 박영규의 『북한동화 모음집』(행림출판)은 북한의 『아동문학』잡지 최근호에 소개된 동화 중에서 남한의 정서와 비슷한 내용을 골라서 엮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효와 선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것, 글의 표현 방식이나 단어, 두음 법칙 등 우리와 다른 언어적 습관들이 차이로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동화를 읽으면서 남북한 어린이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미래에 만났을 때 친근함을 느낄 수 있길 고대하면서 집필된 책이다. 여기에 실린 작품은 〈소나무 이야기〉, 〈술이가 만난 두 구슬아기〉, 〈남빛 도라지〉, 〈참게오 칠색송어〉, 〈힘에 대한 이야기〉, 〈장미의 눈물〉, 〈돈과 머슴〉, 〈달아보지 못한 산호메달〉, 〈목동과 선녀〉, 〈재간둥이들과 힘장수〉로 생소한 내용이 많다.

2001년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무릎동화 북한편(파랑새어린이) 『똥진 너구리』, 『영리한 꼬동이』, 『인범이와 지범이』가 출판되었다. 우리는 한민족, 한겨레에기에 전래동화를 통해서 만남을 권하고 있다. 남북에서 출판된 옛이야기 그림책을 통해서 교류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1.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 공통 목록 만들기

남북에서 출판된 옛이야기 그림책의 목록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분단 이전까지 공유하고 있었던 많은 옛이야기 가운데, 현대에 재창작되고 있는 옛이야기 그림책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는 많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그

렇다. 이 목록은 북한의 『조선민담집』, 『조선민화그림책』, 『조선옛이야기그림책』과 남한에서 출판된 WB월드베스트의 요술지팡이 전래동화, 그레이트 키즈의 이야기 꽃할망, 탄탄스토리텔링의 옛이야기, 한솔 알강달강 옛이야기와 수북 옛이야기, 웅진북클럽의 내용을 살펴서 뽑은 것이다.

표 4 |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 공통 목록

	남한	북한
1	호랑이와 곶감	호랑이와 말도적
2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3	냄새 맡은 값	냄새 맡은 값
4	피 있는 아이	피 있는 아이
5	바닷물의 유래	신기한 매돌
6	지혜 있는 아이	도적을 잡아낸 소년
7	사윗감을 고른 두더쥐	들쥐가 고른 사위
8	네 형제의 재주	네 형제의 재주
9	청개구리 울음의 유래	말 안 듣던 청개구리
10	손이 되고 발이 되어	황금덩이와 구렁이
11	3년 고개	3년 고개
12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까치
13	심청	심청
14	콩쥐팍쥐	콩쥐팍쥐
15	흥부놀부	흥부놀부
16	우렁각시	우렁각시
17	거짓말 세 마디	거짓말
18	선녀와 나무꾼	금강산 선녀
19	흑부리 영감	흑 뚝 이야기
20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 주머니

	남한	북한
21	개와 고양이	개와 고양이
22	돌이와 개구리	인범이와 지범이
23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
24	세 가지 소원	세 가지 소원
25	자리다툼	자리다툼
26	양반을 속인 머슴	양반을 속인 머슴
27	장재연못	장재연못
28	젊어지는 샘물	신기한 샘
29	동물 말을 알아듣는 소년	새와 말하는 소년
30	악한 형과 착한 동생	욕심쟁이 형과 착한 아우
.....		

위에서 제시한 작품은 30편에 불과하지만,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옛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 옛이야기 그림책에 있어서도 유사한 이야기 목록이 구성될 수 있다. 이는 남북 어린이를 위한 옛이야기 그림책을 만들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미 공통된 이야기문화유산을 지켜 온 남북은 옛이야기와 그림책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일 교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다른 옛이야기를 향유해 왔고, 서사의 변이를 겪어 왔지만, 옛이야기 공통 목록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구성하면 통일 교재로서 충분히 교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박금숙은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바로 직후 교과서에 실린 전래동화는 유사성이 많았지만, 날이 갈수록 유사성이 희미해지고 주체의 정책에 따라 그 활용 전략과 방향이 달라졌으며 차이성 또한 극명하게 나타났다”¹²라고 하였

12 박금숙, 『남북한 초등 국어교과서 수록 전래동화 비교 연구』, 『동화와번역』 31, 동화와번역학회, 2016,

다. 분단이 길어지면서 교과서에 실린 옛이야기 목록도 남북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양상이 옛이야기 그림책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태호는 “북한의 아동문학 중 서사양식에 해당하는 우화, 동화, 아동소설을 교육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북한의 아동문학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경사되어 주체사상을 널리 전파할 뿐, 문학적 성취를 크게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그 중에 주체사상을 담지 않으면서 일정 수준에서 문학적 성취를 달성한 작품을 통일 교과서에 제재로 활용하여 남북한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¹³”하였다.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로 주체사상이 없고, 문학적 성취도가 있는 작품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데 이 때 활용될 수 있는 작품이 아동문학이다. 그 가운데 옛이야기는 사상성이 없고, 분단 이전부터 한민족이 공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학적 완성도를 높여 옛이야기 그림책으로 구성하면 통일 교재로서 활용 가능하다.

이재복은 “될 수 있으면 북한의 아동문학에서 남한의 작가들이 꼭 참고로 알아두었으면 하는 좋은 점을 보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북한의 아동문학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안이 될 만한 가능성이 보이는 남한의 작품들을 같이 비교해서 말해보도록 하겠다”¹⁴는 뜻을 밝혔다. 남북 옛이야기와 그림책은 같은 서사이면서 동시에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대적 변이를 겪었다. 그러나 유사성을 지닌 작품들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면, 북한의 아동문학을 이해하고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101쪽.

13 김태호, 『통일 한국의 국어교과서 제재로 북한 아동문학고찰: 우화, 동화, 아동소설을 대상으로』, 『청람어문교육』 61, 청람어문교육학회, 2017, 285쪽.

14 이재복, 『반쪽이 또 다른 반쪽에게: 북한동화 이야기』, 『우리 동화 바로 읽기』, 소년한길, 1995, 223쪽.

4.2. ‘어린이’를 위한 서사의 삭제와 첨가

‘어린이를 위한 서사’라는 이유로 샤르를 빼로는 설화를 동화의 소재로 선택하되, 교훈을 곁들인 우화로 창조하였고, 듣기에 민망하거나 쓸데없는 부분, 또는 도덕적인 배려로 비교육적인 암시를 주는 표현이나 내용을 단순화하거나 삭제하였다. 너무 토속적이거나 잔인하거나 어른의 세계로 느껴지는 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제거하였다.¹⁵ 근대시기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옛이야기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옛이야기는 이야기꾼이나 작가가 의도하는 방향을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그릇이기에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가 탄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각 시대의 필요에 의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북한에서 출판된 그림책을 남한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김없이 이루어졌다.

2003년 3월 1일 삼성출판사에서 북한의 금성청년출판사와의 계약으로 『북한 어린이가 보는 그림동화집』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책이 그대로 남한에서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편집진의 의견으로 실제 책 내용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 책을 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한 어린이가 보는 그림 동화집〉은 북한의 대표적인 어린이 책 출판사인 금성청년출판사로부터 글과 그림을 받아서 삼성출판사에서 펴낸 최초의 남북한 동시 출간 북한 아동 그림책입니다. 현행 국내법 상에서의 많은 절차들을 거치고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보내온 원고들을 검토하며 긴 시간을 인내하고야

¹⁵ 김영주, 「잔혹과 매혹의 상상력: 앤젤라 카터의 동화 다시 쓰기」, 『영미문학페미니즘』 18,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10, 33쪽.

발간된 이 한 권의 책은 우리가 얼마나 더 긴 시간들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통일이 올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작지만 귀중한 결실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북한 어린이들이 보고 있는 북한 작가들의 것을 그대로 실은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와 친구인 북한의 어린이들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어린이들과 함께 동화를 읽어요.”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따라가 보세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읽다 보면, 그림이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도 어감이 조금 달라도 결국 우리는 지혜로운 한 민족이구나 느끼게 됩니다.

최초의 남북한 동시 출간 북한 아동 그림책을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보면서 다소 생소한 단어들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책은 북한의 『조선민화그림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표 5 | 조선민화그림책과 북한 어린이가 보는 그림 동화집 목록 비교

	조선민화그림책(2002)	북한 어린이가 보는 그림 동화집(2003)
1권	곰바위 이야기	곰바위 이야기
	신기한 붓	
	수정봉을 지켜 낸 소년	
	개미와 토끼	개미와 토끼
	헛장수	헛장수
2권	머슴의 지혜	
	호랑이와 말도적	호랑이와 말도적
	큰쥐이야기	

조선민화그림책(2002)		북한 어린이가 보는 그림 동화집(2003)
3권	중이 되려던 세 아이	욕심많은 중과 세 아이
	너구리 토끼	
	용감한 삼형제	
	여우가 놓은 다리	
	량반의 오리섬	
4권	병풍속의 호랑이	병풍속의 호랑이
	토끼와 자라	
	겁쟁이도령	
	나무군아와 곰	
5권	개구리바위	
	보약 먹은 그림자	보약 먹은 그림자
	은혜 깊은 호랑이	
	들쥐가 고른 사위	들쥐가 고른 사위
21편		8편

북한의 『조선민화그림책』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는 그림책이다. 2003년 이전에 출판된 『조선민화그림책』 1권부터 5권까지 21편의 내용 가운데 『북한 어린이가 보는 그림 동화집』에 선정된 이야기는 8편이다. 〈호랑이와 말도적〉, 〈개미와 토끼〉, 〈헛장수〉, 〈보약 먹은 그림자〉, 〈욕심 많은 스님과 세 아이〉, 〈병풍 속의 호랑이〉, 〈곰바위 이야기〉, 〈들쥐가 고른 사위〉이다. 〈곰바위 이야기〉, 〈헛장수〉, 〈병풍 속의 호랑이〉, 〈보약 먹은 그림자〉는 남한에서는 알려진 이야기는 아니다. 이 가운데 원래 『조선민화그림책』의 제목이 아닌 바뀐 작품은 〈욕심 많은 스님과 세 아이〉이다. 이 작품의 원 제목은 〈중이 되려던 세 아이〉이다. 남한에서는 〈훈장님의 꿀단지〉유형에 속한다.

〈욕심 많은 스님과 세 아이〉는 착하게 살기 위해 절로 들어간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남한에서 서당, 훈장, 아이들로 구성된 이야기의 배경이 북한에서는 절, 스님, 아이들로 이루어졌다. 남한의 이야기에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훈장을 놀려먹는 해프닝에 그친 이야기라면 북한의 이야기는 더 교훈적으로 바뀌었다.

옛날 어떤 마을에 갑석이, 을석이, 병석이라고 불리는 세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마을은 정직하게 살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은 세 아이는 어느 날 모여 앉아 의논을 하던 끝에 산속에 들어가 스님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눈에는 스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세 아이는 절로 찾아갔습니다. 절에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는 세 아이를 기꺼이 맞아 주었습니다.

“중은 부처님을 섬기는 가장 깨끗한 사람이니라.”(조선민화그림책, 84-86쪽)

“스님, 우리는 너무도 배가 고파 스님이 버리라던 떡을 다 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죽은 몸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왕 죽을 바에야 절을 더럽히지 않고 밖에 나가 죽으려고 합니다.”

세 아이가 동시에 대답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욕심 많은 스님을 혼내주고 절을 떠났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조선민화그림책,

109~110쪽)

남한의 경우, 아이들은 혼자서만 맛있는 것을 먹는 훈장께 귀여운 복수를 통해 훈장의 부정적 행위에 대한 경계를 보여준다. 북한의 경우, 아이들이 욕심 없이 살고자 하는 자신들의 꿈을 저버린 스님의 부정적 행위를 보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성스러운 공간인 절을 스스로 떠남으로써 세상의 인식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직한 공간인 절과 그 안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의 이중성을 본 어린이들이 스스로 절을 박차고 나가, 주체적으로 근면성실하게 살아간다는 내용은 북한에서 강조하는 근면 성실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데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북한의 <호랑이와 말도적>에 대한 서사가 남한에 출판되면서 변이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여인들은 밤을 새려는 듯 일손을 멈출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왜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하는 거야?”

말도적은 적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북한어린이가 보는 그림 동화집』)

그러나 녀인들은 밤을 새려는 듯 일손을 멈출 줄 몰랐습니다.

“망할 년들, 제 서방녀석들 생각도 할줄 모르는 천하에 몸쓸 년들!”

말도적은 적이 등이 달았습니다.(『조선민화그림책』)

『조선민화그림책』에서 말도적은 여인들이 집으로 가지 않자, ‘천하에 몸쓸 년들’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 부분은 남한으로 들어오면서 ‘밤이 깊었는데 왜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하여 말도적의 마음이 급해졌다’로 바뀌었다. 말도적의

욕을 그대로 어린이 책에 실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은 <병풍 속의 호랑이> 이다.

“저 애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지혜는 어른들도 감히 따르지 못하옵니 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저 애 때문에 생겨났다고 여겨질 정도이옵지요. 작은 고을은 물론, 천하도 다스릴만한 소년이옵니 다.”(『북한 어린이가 보는 그림 동화집』)

“저 애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지혜는 어른들도 감히 따르지 못하옵니 다. 작아도 고추라는 말이 저 애 때문에 생겨났다고 여겨 질 정도이옵니 다. 단지 상놈의 집안에서 태어나다니니 이 모양이지 아마 량반가문의 자식이였다면 한 개 고을쯤은 물론 천하도 다스릴 소년이옵니 다.”(『조선민화그림책』)

『조선민화그림책』에 있는 주인공에 대한 계급갈등이 남한으로 들어오면서 사라졌다.

‘네 놈들이 나를 놀리는구나. 감히 이 원님을 조롱해? 매운맛을 똑똑히 보여주마.’

원님을 이를 사려물었습니다.

《이놈들! 내가 이제 이 아이놈과 내기를 해서 애놈이 지게 되면 거짓말을 한 죄로 목을 베어도 좋을테지?》

라줄들은 숨소리하나 크게 내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소년이 머리를 쳐들고 《좋아요. 내가 지면 내 목을 베랴요.》 하고 당돌하게 대답하였습니다.(『조선민화그림책』)

“그럼 내가 이 이야와 내기를 해서 아이가 지면 거짓말을 한 죄로 곤장을 쳐도 좋을테지?”

나졸들을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지면 곤장을 맞지요.”

원님은 바짝 약이 올랐습니다.

원님은 하인을 시켜 호랑이를 그린 병풍과 바줄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다.(『북한어린이가 보는 그림 동화집』)

아이는 내기에서 지면 목을 베겠다는 조건에 응한다. 이는 죽음을 담보로 할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목을 베겠다는 서사는 곤장을 맞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목숨을 내기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정,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라는 자기 검열이 작용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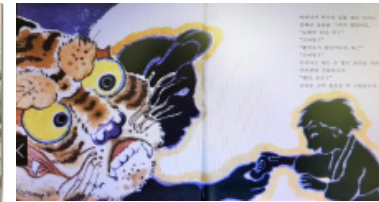
북한에서 출판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지만, 남한에 들어온 모습에는 삭제와 첨삭이 이루어졌다. 옛이야기 그림책에서 이러한 변이가 일어난 것은 바로 ‘어린이를 위한 것’이라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 잔혹하거나 규율에 어긋나거나 비도덕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한의 옛이야기 그림책은 주인공의 죽음이나 신체 훼손, 불행한 결말 같은 것을 멀리했다. 하지만 북한의 옛이야기 그림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호랑이와 말도적〉은 남한의 〈호랑이와 꽃감〉이다.



“문맹치 소낙비란 놈은 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놈인 게야.”
호랑이는 말을 잡아 먹을 생각도 못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쉼으로써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성이 소가이고 이름이 낙비라고 했지? 어이구, 무서워라!”
무서워라!”

조선민화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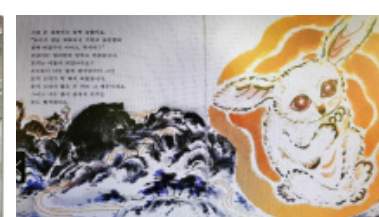


호랑이와 꽃감



“그만, 그만 뛰라구! 천천히 가만 말아라!”
말도적이 당황해서 소리쳤으나 호랑이는 정신이 한
줄 나가 펄쩍 뛰며 배탈 끝으로 내달렸습니다.
“아니! 이제 말에 아니라 호랑이일줄이야!”
말도적을 데리 호랑이 등에서 내릴 겨를도 없이 배
탈 아재로 떨어져서 말았습니다.

조선민화그림책



호랑이와 꽃감

“필경 소낙비라는 놈은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인게야.”

호랑이는 말을 잡아 먹을 생각도 못하고 마구간에 들어 가 숨었습니다.

말모양을 하고 엎드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성이 소가이고 이름이 낙비라고 했지? 어이구, 무서워라.”¹⁶

“그만, 그만, 그만 뛰라구! 천천히...”

말도적이 당황해서 소리쳤으나 호랑이는 반정신이 나가 펄쩍 뛰다가 천길

16 〈호랑이와 말도적〉, 『조선민화그림책』 2, 금성창년출판사, 2002, 27쪽.

벼랑으로 굴러 떨어 졌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아니라 호랑이가 아니야?”

말도적은 깨닫자마자 호랑이처럼 네팔개를 펼치고 벼랑아래로 떨어 저 죽고 말았습니다.¹⁷

그걸 본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토끼가 잘난 체하더니 기어코 곳감한테 잡혀 버렸구나, 아이고, 무서워!”

호랑이는 멀리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토끼는 어떻게 되었냐구요?

소도둑이 너무 힘껏 잡아당겨서 그만 토끼 꼬리가 쏙 빠져 버렸습니다.

토끼 꼬리가 짧은 건 바로 그 때문이래요.

그리고 너무 많이 울어서 토끼는 눈도 빨개졌대요.¹⁸

남한의 <호랑이와 곳감>과 북한의 <호랑이와 말도적>에서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대상이 곳감, 소낙비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호랑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힘이 세고, 위협적인 것만을 무서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대상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호랑이는 자신이 무서운 것으로 인정한 곳감, 소낙비를 물리치기 안간힘을 쓴다. 그 결과 남한의 이야기들은 주로 유래담으로 결말을 맺거나, 호랑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북한은 호랑이와 말도둑이 모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한다. 그림에서 역동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서사는 죽음이 아닌 행복한 결말, 징치가 아닌 화

해로 끝나는 서사에 익숙한 남한의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옛이야기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린이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선인과 악인에 대한 경계가 모호할수록 옛이야기가 지닌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이 지향하는 결말과 죽음에 대한 인식은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한에서는 <돌이와 개구리>로 잘 알려진 이야기는 북한에서는 <인범이와 지범이>이다. 이야기의 제목은 다르지만 서사전개는 거의 동일하고 결말 부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말 신기한 코로구나.”

이때 인범이와 지범이는 서로 몇마디 다투다가 인범이가 지범이의 코를 주먹으로 힘껏 때렸습니다.

“아앗!”

이에 질세라 지범이도 인범이 코를 세게 때렸습니다.

두 아이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두 아이는 엉켜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이 달려가 뜯어말렸습니다.

“아니, 좋은 일을 하고 왜들 싸우느냐?”

“상감마마, 죄송합니다. 지범이가 제 코가 먼저 냄새를 맡았다고 하여 그만 화가 나서 때렸습니다.”

“허허, 너희들이 냄새를 잘 맡는 신기한 코를 가졌지만 애들은 애들이로구나.”

임금은 껄껄 웃었습니다.

이때 인범이가 울면서 아뢰었습니다.

¹⁷ 위의 책, 32쪽.

¹⁸ 위기철 글, 김환영 그림, 『호랑이와 곳감』, 국민서관, 1992.

“상감마마, 이제 저희들은 코가 망가져서 냄새를 맡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쫓쫓, 코가 보배였는데 어찌하면 좋으냐. 내가 섭섭하지 않게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들은 두 아이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서로 코를 때리고 싸운 것은 미리 짜고 한 일이었습니다.¹⁹

아이들이 위기를 해결하고 임금에게 큰 상을 받은 후에, 서로 코를 상하게 한 것은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냄새를 잘 맡는다는 이유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코를 훼손한 것이다. 이러한 신체 훼손 화소는 옛이야기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되었던 부분이다. 하지만 남한에서 새롭게 창작되어 출판된 옛이야기와 그림책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찾아보기 힘들다. 임금님의 상을 받고 돌아와서 친구와 사이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귀결을 맺는다. 신체 훼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옛이야기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야! 좋은 수가 났다.”

“수는 무신 수고?”

“야 그럴 기 아이라 칼로, 칼로 삭삭 갈아가주고 칼 끄티이, 짚을 탕탕 감아가주고 코 끄티이를 날렸뿌라.”

카거던.

“[웃으면서] 날렸뿌고 누가 인제 찾아오거덜랑 그전에는 냄새마 맡으만 다 찾았는데, 이 코 끄티이 찌지고부터는 헛 짐(깎)이 새가주고 도저히 자테 곁에.

19 이상배 글, 황명희 그림, 『인범이와 지범이』, 『북한전래동화』, 파랑새어린이, 2002, 45~46쪽.

거도 잘 모른다고 카마 된다.”

그래 마 또 돌이가 애가 달아가 마 칼을 갖다야 요래 갈아가주고 막

깨구리 코 끄티이를 할딱 날린다.

그라고 나이 참 거 사람이 찾아왔거던. 아무 정승의 집 이래 데리고 오라고 왔다고,

“아, 그전에 이 코 끄티이 안 찌질 적에는 천지 마 일겄다, 카는 거는 내미(냄새) 한 본 획 돌리마 다 찾은데, 이 치 끄티이 찌지고 부터는 헛짐이 나가주고 자테 것도 잘 모린다.”²⁰

위의 화자가 구연하는 내용 가운데 돌이가 개구리에게 ‘웃으면서’ 코끝을 날려버려서 냄새를 맡지 못 한다고 하라는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의 화자 역시 코끝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웃으면서 말한다. 이러한 웃음은 김기호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할머니가 목을 주고 두 팔을 주고 두 다리를 주지만 청중이 웃는 것은 감정이 배제된 기계적 행위가 낡은 희극성 때문이라고 보고 이야기 내 잔혹 모티프의 잔혹성이 더 이상 잔혹성으로 머물지 않고 희극적 반잔혹성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과 연결된다.²¹ 이러한 웃음은 동화에서는 사라진 편이다. 그 이유는 코를 베어버리거나, 혀를 자르는 행위와 같은 신체 훼손의 잔혹성에만 주목한 결과이다. 이 이야기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생성되는 웃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옛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잔혹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보면 잔혹할지 모르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상에서 그것이 지닌 내적 의미를

20 최정여 외, 『냄새 맡아 물건 찾은 돌이와 개구리』, 『한국구비문학대계』 7-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854쪽.

21 김기호, 『잔혹 모티프를 통해 본 인터넷 게시물 “잔혹동화”』, 『민족문화논총』 42, 민족문화연구소, 2009, 251쪽.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위한 것이 어른이 통제하는 자기검열에 머무르지 말고 어린이가 스스로 위험을 느끼고 통제할 수 있는 여정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이 서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4.3.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 실물 교류

2003년 북한 그림책을 실물 그대로 가져왔다고 밝힌 『북한 어린이가 보는 그림동화집』에서 제목, 서사변이를 확인하였다. 북한 옛이야기 그림책을 남한에서 출판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출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 남한의 기호에 맞게 윤색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난다. 북한 옛이야기 그림책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나온 지도자의 사상성을 드러내는 서문에서 탈피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 옛이야기 감상에 주안점을 두고 독자를 배려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마성은은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 아동문학이 주도한 정책으로 “첫째, 김정은 후계 선전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둘째, 21세기를 ‘최첨단의 시대’로 규정하며 ‘5점 꽃’ 담론으로 상징되는 높은 교육열을 나타내 보이고 셋째, 남북관계의 악화를 반영하며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 상황을 형상한”²² 것으로 규정하였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 도식을 고착화하기 위한 전략과 과학중시 교육을 시행한 것은 북한의 국제적, 국내적 지위를 고려한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남한 정권에서 최근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이 초기에 주도한 남북 전쟁위기 상황을 형상화한 아동문학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

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아닌 평화의 씨앗이 하나씩 심어지고 있다. 이 평화의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남북 어린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옛이야기 그림책을 실제 남한과 북한에서 출판된 형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세계 각국의 어린이 책을 보유하고 있다. 서고에는 북한의 『조선민화그림책』과 단행본 그림책이 소장되어 있다. 서고에 갇힌 북한 옛이야기 그림책이 서가에 꽃혀 남한의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 사상성이 없고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북한 옛이야기 그림책이 서고에서 혹은 접근 불가능한 곳에서 꼭꼭 숨어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도 남한의 옛이야기 그림책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다음의 책들이 남북 어린이와 함께 숨쉬길 손꼽아 기다린다.



남한출판

북한출판

북한출판



북한출판

남한출판

22 마성은, 「김정은 시대 초기 북한아동문학의 동향」, 『우리어문연구』 48, 우리어문연구회, 2014, 291쪽.

5. 결론

분단 이전 옛이야기를 토대로 재창작된 남북 옛이야기 그림책의 현황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그려낸 최근의 옛이야기 그림책 목록을 살펴보았다. 남한은 지혜, 보은, 응보, 신이, 변신 등 다양한 서사의 이야기들을 향유했다면, 북한은 응보가 주류를 이루고 지혜 있는 이야기를 즐겼다. 옛이야기의 내용은 비록 다르지만 그 이야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바로 어린이들의 흥미와 교훈이다. 불의에 저항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강조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옛이야기 그림책 목록을 선정해 보았다. 옛이야기는 분단 이전부터 한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그러기에 현대에 재창작된 옛이야기 그림책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고전의 재해석은 남북을 막론하고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현대에 되살려 본받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를 통해서 민족 공동체의 공감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 선언을 실천할 수 있는 기둥은 어린이이다. 식민지 시기 국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역할이 중요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통일 시대를 함께 살아갈 남북의 어린이들이 지금까지의 언어적, 문화적, 사상적 ‘차이’를 인식하고 어린이들의 문화인 책과 놀이를 즐기면서 공감의 토대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의 옛이야기 그림책을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고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옛말』, 『조선민화집』, 『조선민화그림책』, 『조선 옛이야기 그림책』, 『조선대백과사전』, 『한국구비문학대계』

2. 단행본 및 논문

김경희, 『북한 그림책 『지혜키우기』에 나타난 인재상과 그 형상화 방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0, 아동청소년문학연구학회, 2017.

_____, 『「조선옛이야기그림책」의 체계와 구성양상』, 동화와번역연구소 추계학술발표대회자료집, 2017.

김광식, 『북한 민담집 『우리나라 옛이야기』의 발간과정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71, 열상고전연구회, 2021.

김기호, 『잔혹 모티프를 통해 본 인터넷 게시 ‘잔혹동화’』, 『민족문화논총』 42, 민족문화연구소, 2009.

김영주, 『잔혹과 매혹의 상상력: 앤젤라 카터의 동화 다시 쓰기』, 『영미문학페미니즘』 18,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10, 33쪽.

김태호, 『통일 한국의 국어교과서 제재로 북한 아동문학고찰: 우화, 동화, 아동소설을 대상으로』, 『청람어문교육』 61, 청람어문교육학회, 2017, 285쪽.

다프나 주르, 류수연, 『북한 아동 그림책에서의 한국전쟁』, 『근대서지』 10, 근대서지학회, 2014.

마성은, 『북한 아동문학 연구 현황과 과제』, 『현대북한연구』 99, 현대북한연구학회, 2012.

_____, 『김정은 시대 초기 북한아동문학의 동향』, 『우리어문연구』 48, 우리어문연구회, 2014.

박금숙, 『남북한 초등 국어교과서 수록 전래동화 비교 연구』, 『동화와번역』 31, 동화와번역학회, 2016.

오강원, 『2000년대 북한 아동용 도서에 그려져 있는 단군·고조선과 서술 변형의 역사·고고학적 배경』, 『한국학논총』 42, 한국학연구소, 2014.

이재복, 『반쪽이 또 다른 반쪽에게: 북한동화 이야기』, 『우리 동화 바로 읽기』, 소년한길, 1995.

정룡진, 『아동문학의 새로운 발전』, 문예출판사, 1991.

ABSTRACT

Prospects for publication patterns and exchanges of picture books about old stor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Kim, Kyung-Hee _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compile a common list of old story picture books shar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th the goal of promoting cultural exchange and unification edu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y identifying stories that originate from pre-division traditions but were later adapted in different sociocultural contexts, the study seeks to explore their potential as resources for inter-Korean understanding.

Methods To construct the South Korean list, the study consulted the Compendium of Korean Oral Literature, Korean Oral Legends, and 50 stories from Hansol Algangdalgang Old Stories (2009), which includes myths, folktales, legends, and traditional plays. Texts were analyzed by type—wisdom tales, competition, friendship, retribution, repayment, origins, gods, transformation—to identify stories suitable for inter-Korean comparison. A final list of 30 overlapping stories was selected.

Conclusions The results show that a shared corpus of old story picture books can serve as a meaningful foundation for children's cultural understanding across the Korean Peninsula. These stories enable young readers to recognize common narrative roots, experience distinct North-South adaptations, and cultivate communication skills essential for a future unification generation. Continued selection of common texts is expected to further support inter-Korean cultural literacy and exchange.

Keywords Korean peninsula, division, old sayings, common list of old stor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hysical exchange, communication skills

이 논문은 2023년 9월 1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9월 21일부터 2023년 9월 2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9월 3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북공연

아카펠라 공연

풀피리 부는 도깨비, 풀깨비

김충근과 함께 하는 풀피리

장소 | 경민대학교 정보도서관

시간 | 2023.07.01(토) 16:00 ~ 16:15

사회 | 안남재 (오투라인 대표)

풀피리 | 김충근



안남재 오늘 소개해 드리는 김충근 연주자님은 풀피리 협회 부회장을 역임 하였고, <SBS 세상에 이런 일이>와 <EBS 화제의 인물>에 출연하셨습니다.

또한 세계 풀피리 축제 주관하고, 2021년에 대한민국 동부 민요 전국경연대회에서 풀피리 연주로 특별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교원대와 교육청 연수에서 풀피리를 자연음악으로 예술강연을 해주시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풀깨비라는 교재로 북 콘서트를 하시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김충근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충근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충근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한 줄도 좋다, 그 동요』에 나오는 작품 두 곡과 <섬집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밤>

가을 밤 외로운 밤 별레 우는 밤
초가집 뒷 산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가을 밤 고요한 밤 잠 안 오는 밤
기러기 울음 소리 높고 낮을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가을 밤 외로운 밤 별레 우는 밤
초가집 뒷 산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오빠생각>

듬뿍 듬뿍 듬뿍새 눈에서 울고
뼈꼭 뼈꼭 뼈꼭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 기럭 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똥 귀똥 귀뚜라미 슬피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어~집니다.

<섬집아기>

엄마가 섬그늘에 굴타러 가면
아기가 혼자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뭇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안남재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한 지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을 텐데 폴잎이 이렇게 훌륭한 악기가 되는 줄 모르셨죠?

아까 여기 계신 분은 얼굴 연주할 때 눈물까지 닦으시던데 그만큼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이런 감동적인 순간, 예쁜 날을 선사해주신 폴피리 부는 김충근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충근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토크

『한 줄도 좋다, 그 동요』와 함께 읽는 인간의 성장 본능과 독서

장소 | 경민대학교 정보도서관

시간 | 2023.07.01.(토) 16:30 ~ 18:00

사회 | 안남재 (오투라인 대표)

작가 | 노경실



안남재 노경실 작가님 모시기 전에 프로필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노경실 작가님이 오늘 선정해 주신 주제는 인간의 성장 본능과 독서예요. 저희 1부 순서와 연관이 있는 주제를 잡아주셨고요. 함께 읽을 책으로 『한 줄도 좋다, 그 동요』를 보내주셨고 읽고 온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경실 작가님은 서울예대 문창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예대

문창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학교잖아요.

최근에 저희 우리들의 블루스 노회경 작가님이나 김은숙 작가님 이런 분들이 전부 거기 출신이기도 하고, 이제 1982년도에 중앙일보 신춘문에 문화의 까만 십자가로 동화로 등단을 하셨고요. 1992년도에 한국일보 신춘문에 오목렌즈로 소설 부문에 다시 또 등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스테디셀러 저서들을 창작을 하였고 외국 서적 번역까지 총 300여 권에 달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상계동 어린이들』, 『복실이네 가족사진』, 『어린이를 위한 탈무드』 이런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사회적인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요. 한국 작가회의 부이사장도 연임을 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리책 나눔터 부위원장 하였고, 주니어 김영사 대표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숙자 자활센터에서 글쓰기 지도나 또 인문학 강좌도 열고 계시고요.

저희 성인 독서의 열린 활동성인데 정말 열린 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귀하신 분을 오늘 모시게 되어 저도 영광이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경실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경실 감사합니다.

안남재 반갑습니다.

작가님에게 우선 오늘 주제로 선정해 주신 ‘인간의 성장 본능과 독서’를 어떤 의미에서 주제를 선정해 주셨는지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실 이 큰 주제는 학회에서 주신 것이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하는 일들이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책읽기 그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성장 과정에서 책읽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번에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어린 소녀가 어릴 때부터 아무리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지만, 그 아이에게 정말 좋은 책을 읽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 아이의 삶이 조금은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더운데 음식은 그냥 놔두면 바로 썩어요. 알아서 썩어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 본능에 책과 엄청난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카고라 학회에서 이러한 주제와 맞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거창해 보이지만 절절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안남재 아, 네. 우리 학회 주제와 연결을 지어서 주제를 정해주셨네요. 그러면 제가 첫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작가님은 사실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이지만 누구보다 독서를 많이 평생 해 오신 분이시니까 ‘성인 독서의 열린 활동성’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독서 전체의 삶의 과정에서 독서라는 것이 가지는 통시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작가님의 경험으로 작가님의 유년 시절, 청소년 또는 장년 시절 이런 때 어떤 독서 활동을 하셨는지, 잠깐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경실 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 유명한 58년 개띠입니다.

책 한 권이 귀하고 그럴 때, 저희 아버지는 평양에서 내려온 피난민 이었고 남한에 친척이 거의 없고 가난하고 또 딸부잣집이고 이럴 때, 우리 부모가 저에게 먹을 것, 또는 당장 일, 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기울게 하고 그런 것들에 한숨만 내쉬고 이랬다면 지금의 제가 여기 앉아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미국 잡지,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책들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에게 책을 읽히게 하려고 그 과정에서 다른 아버지들은 같은 미군 부대에서 일해도 먹을 것, 통조림, 햄, 분유 이런 거 가져오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한 권이라도 책, 책이나 잡지를 가져와서 서툰 영어로 가르쳐주셔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다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또 우연히 고 1때, 저희가 딸 넷, 아들 하나에 제가 큰 딸 오남매인데 막내여동생과 제가 죽음의 고비에 급성 폐렴으로 죽기 1분 전에 저는 살았고, 동생은 내 앞에서 죽었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런 경험이 그 때 제가 이거 말해도 되나 제가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했는데 어쨌든 그때 나를 구해준 게 책이었어요. 근데 도서관은 없었어요. 마을에.

그때도 아버지가 그 어린애한테 한국 문학 소설 전집을 그래서 그 때 그 어릴 때 지금도 생생해요. 오발탄, 소리킴 이런 걸 다 읽고 그다음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힘들 때마다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저는 천만다행으로 다른데 관심이 없습니다. 술도 못 마시죠. 음주가무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책읽기가 없었다면 지금도 역시 어지고 물론 저의 인생 과정마다 책의 방향성 색깔 이런 건 물론 달라

지고 어쨌든 그 책이 지금의 저를 버티게 해주고 조금 그래도 사람답게 살게 해 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남재 네, 『여기 한 줄도 좋다, 그 동요』 〈비행기〉에서 보면 아버님이 두 발 비행기로 이렇게 양쪽에 매달리게 해서 어디로 가는 그런 거죠? 가장 자상하셨던 분인걸로 보여지는데요.

노경실 네. 엄청 자상하셨죠. 저는 남자가 안 자상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ですよ. 제가 책에 보면 아빠는 1등만 했대요, 우리 아빠는 내 친구,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와 함께처럼 아빠가 들어간 책들이 엄청 많아요.

안남재 네. 그럼 만약에 그런 독서 활동에 독서가 없었다면 작가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혹시 한 번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노경실 지금 작가랍시고 활동해도 이 정도인데. 작가를 안 했다면 그냥 좋은 엄마로 살았겠죠. 좋은 독자로 조금 살을 붙이면 고급 독자로 살았겠죠.

안남재 네. 본격적으로 『한 줄도 좋다, 그 동요』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럼 작가님에게 인생 독서 인생 책,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고 가고 싶다.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책을 만약에 여쭙본다면 어떤 책일까요?

노경실 죽기 전에 책 안고 싶은 마음 죽어도 없고요. 그래도 읽자면 마블은 제외하고 제가 늘 이걸 항상 질문을 많이 받아서 성정은 일단 이걸 비교가 안 되니까 옆에다 놓고 보는 책들은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 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C. S. 루이스 책은 거의 다 좋아하고요. 『예기치 못한 슬픔』도 그렇고 그다음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 다음 하나만 더 한다면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의 『파리의 우울』 그건 여러분이 꼭 읽기를 바랍니다. 근데 절판되기

는 했는데 보들레르의 『파리의 우울』이라는 에세이가 너무 좋아서 저는 몇 번 읽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 1,2입니다.

안남재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다섯 권으로 잡았어야 되는 데요. 자 그러면 오늘 책으로 선정해 주신 『한 줄도 좋다, 그 동요』 사실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준비하는 측에서 작가님 책 중에 좋은 책이 너무 많았어요. 『상계동 아이들』을 비롯하여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서 여러 작가님과 상의도 하다가 결국 정해졌는데요. 이 책은 저술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거였나요?

노경실 네. 이 책은 ‘한 줄도 좋다’가 이 출판사 시리즈 제목이에요. 한 줄도 좋다 연구, 한 줄도 좋다 영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동화작가라는 이유로 맡게 되었어요. 그 종류를 해라 해서 하게 된 거죠.

안남재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 책 읽으셨죠?

청중 네.

안남재 질문이 여러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읽으면서,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책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글 안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면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구슬비>, <기차길 옆 오막살이>, <달밤> 같은 작품에서 자연을 대하는 작가님의 시선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슬비> 같은 경우는 ‘구슬비’ 관점에서 이 노래를 들었다면 ‘구슬비’가 얼마나 좋아할까. 의인화를 넘어서 감정 이입의 차원까지 들어가셔서 이런 글을 써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가님의 어떤 생태 사상, 아니면 어린 시절 자연물하고 대화 나눴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인 건지 좀 우리 삶과 함께하는 교

감을 나누는 자연물에 대한 작가님만의 어떤 관점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노경실 생태 사상이나 어렸을 때 자연과 나는 교감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58년생이다시피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 속에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거의 못 했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고 애니미즘 이런 건 아니고 그 모든 풀, 벌레, 새 물고기 자연과 함께 교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아이들도 분명히 그들만의 독특한 몸짓 아까 그 풀피리 부는 분이 앞에서 오는 물길, 바람길, 길을 얘기했을 때 되게 공감했거든요. 그분처럼 무슨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거 아니고 저의 동생의 죽음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느낀 외로움을 그들에게(자연에게) 좀 쏟았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소중해서 말 걸기에 제가 선수예요. 지금도 말 지하철이고 어디고 저는 다 말 걸어요. 그래서 말 걸기 위해서 꼭 먹을 걸 갖고 다니고 이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잘 못 걸었어요. 저는 운전은 안 하니까 전철역에서 있거나 버스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버스 같은데 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핸드폰도 보지도 않고 SNS도 안 하니까 말 걸어요. ‘와, 너도 사는구나!’ 진짜로 이렇게 말해요.

와 사람들 침 뱉고 막 어떤 아저씨 오줌도 누고 그러는데 그래도 오줌물을 먹고도 사는구나. 그래 나도 살게. 저는 진짜 이렇게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도 ‘야, 네 주인 좀 안 좋은데’ 말을 걸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서.

완전 그러니까 어린 애한테도 말을 걸어요. 제가 보기엔 지하철에서 제일 불쌍한 게 애가 이렇게 있는데 애는 엄마 얼굴 바라보고 이러는데 엄마는 이러고 핸드폰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그 애를 보

면서 아이가 나를 보든 안보든 ‘애야. 그래도 그래도 엄마야 어떻게 든 살아’ 막 이러면서 그런 것이 저는 그래서 이렇게 외롭고 딴 데 신경을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완전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제가 고1 때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화장도 옛날에는 화장하고 가족이 다 뼈를 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뼈를 뺐었거든요. 결국 그런 아픔들을 누구한테 어린 동생이 네 명한테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는 연약해서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친구들이랑 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그것이 책 읽기와 말 걸기로 이어진 것 같아요.

안남재 그러면 스마트폰을 안 보면 각종 대상한테 말을 걸 수가 있겠네요.

노경실 그렇죠. 책을 읽거나 저는 나 말고 그 지하철 밤에 갈 때는 밖이 잘 안 보여요. 캄캄해서요. 그 캄캄한 유리창에 보이는 나한테도 말해. 경실 아! 조금만 견뎌. 아니면 오늘도 기뻐지! 너한테 오늘 도움 준 안 대표한테 감사해 이러면서.

안남재 혹시 소리를 내시면서 말을 하실 때,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하시나요?

노경실 아니요. 책 읽는 척하면서 제가 이제 늘 영어책을 들고 다니는데 예 영어라도 읽는 척하고 슬픈 일화는 영어 외우는 척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 해드릴게요.

안남재 영어에 대한 슬픈 일화가 어떤 것일까요?

노경실 얘기해드릴게요. 저는 태어나서 영어 학원을 다닌 게 종로 상가에 있는 학원 하고 딱 두 달밖에 안 다녔어요.

안남재 네.

노경실 오로지. 독학으로 영어를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설 공주 있다. 그러면 그걸 한글로 완전히 다 외우고 내용은 그다음

에 그 영어판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다가 전철에서 이렇게 읽다가 미국 사람이 탄다. 우리는 서양 사람은 다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래 가지고 탄다. 그러면 날 말걸까 봐 그다음 쪽에서 내리는 거야. 이러면서 떨면서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까지 하게 되었어요.

안남재 아!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또 이 책에서 여러 글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 중에 작가님이 어떤 글에서 그런 얘기하셨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을 그리워하게 되는 시대다.

그런 예를 들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계에 대한 글을 쓰시면서 그 안에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모녀가 그런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무런 대화가 없고 그들에게는 스마트폰이라는 벽이 쳐져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고 작가님의 문제의식인데요.

어떤 제가 느껴진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시계에서도 그렇고 또 동네 한 바퀴에서 보면 예전에 어쨌든 지금은 동네라는 의미가 사라졌다고 이제 보여지신 것 같고 아침에 나와서 이웃집 빗자루, 우유 배달원 소리, 그런 시끌벅적한 소리에 대비해서 작가님이 지금 아파트 건너편에 보이는 편의점 불빛을 보면서 친근하다. 그리고 또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소리 없는 아침이 가엾다 우리가 가엾다 시절이 초라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셨거든요. 제가 느껴지는 문제의식은 우리네 자본주의 서비스의 극대화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편의점이라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편의점 문화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물질문명의 이기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작가님의 시선에서 보는 그것이 정서적 빈곤화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어지는건지 그쪽을 좀 여쭙고 싶네요.

노경실 어쨌든 그 인공지능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 현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거기서 그렇기때문에 더 사람다움이 그립고 며칠 전에도 인공지능이 그 연주회 때문에 클래식 연주 기사 보셨죠? 네 이제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들은 사용하겠죠. 이용하고 활용하고 호기심과 또 다른 또 앞서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이제 유튜브도 잘 안 보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러브 데스 앤 로봇>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러브 데스 앤 로봇> 그게 보면 전 세계에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가나 영화 감독이 5분이나 10분짜리 영화 미래에 대한 거 정말 상상이 그런 진짜 가상 정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근데 그 영화들의 공통점은 시즌 1, 시즌 2 시즌 3가 쭉 나오는데 공통점은 아무리 엄청난 차가운 금속 속에 금속성에 그리고 지능이 대단하고 할지라도 조금 그 밑에 깔려있는 게 그 외로움이더라고요. 외로움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말 걸기, 별에서 밝은 별끼리 말거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고 그럴 때 우리가 더 갈구하는 게 인간 됨이고 인간 오히려 이제는 이제 인간 됨이 인간처럼 살기가 더 우리는 그게 상품화되고 더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남재 네 여기 좋은 글들이 워낙 많은데 강론으로 들어가기에 하나만 더 전에 하나만 더 질문을 여쭙자면 사실 질문지 작성하면서 많이 망설였던 질문이기도 한데 굳이 작가님 아픈 내용을 혹시 건드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민 아니면 뭐 물아일체 같은 애정 그런 아니 일반적으로 동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어린 나이에 대한 따뜻

한 시선과는 좀 더 각별한 특별한 뭔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 가난한 아이, 아픈 아이, 근데 사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철수는 철수다』라는 작품도 교과서에 실린 작품인데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청소년하고 엄마의 관계 그다음에 열다섯 너의 문을 여는 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우울증 앓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역시 시선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혀지는데 이게 이제 작가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창작적 관점 그러니까 작가가 선택한 창작적 관점에서 서신 건지 아니면 작가님의 정체성과 관한 어떤 게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노경실 결국은 작가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까 얘기한 결정적인 게 6.25 전쟁도 아닌데 내 품에서 동생이 죽은 거, 이제 그게 엄청난 일이었죠.

안남재 품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노경실 네 제 품에서 그 얘기를 하자면 또 오늘 진짜 두 시간 또 폴피리처럼 2시간 해야 되어서요.

안남재 가족 엄마 아빠 그때 안 계신데?

노경실 마침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일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고 1 봄방학 2월 17일날 우리 5남매 중에 나랑 막내 여동생 그러니까 아들 낳으려고 딸 넷을 낳은 건데, 막내 여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나 고1인데 두 사람만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 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급성 투병으로. 근데 딱 5일 만에 밥 한 수를 못 먹고 물만 마시고 마시고 피 토하고 기침하고 피 토하고 기침하니까…….

안남재 병원에는?

노경실 그때는 병원에는 못 갔어요. 저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거 많이 그랬어요. 제가 그냥 약 먹고 이렇게 말랐어요. 우리 둘 다. 저는 지금 인간이 아닐 정도로 말랐는데 하필 2월 22일 날짜도 기억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오후에 동생이 이제 개가 마지막으로 그 어린 조그만 옛날 어린이는 더 조그맣잖아요. 그 조그마한 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한테 누운 채로 나도 누워 있고 둘 다 시체죠. 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큰언니 나 약 좀 줘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알았어. 자기 목숨이 다하는 걸 애도 아는 거야. 아니까 한마디로 큰언니 날 살려줘 이 말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안고 폐렴약이 한 무더기인데 하나씩 넣어주는데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또 이렇게 넣어주는데 떨어지고 그냥 숨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애 살리려고 혼자서 막 미친 사람 뛰었는데 막 심장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은 안 돼죠. 그때 제가 진짜 정말 약간 정신이 돌 뻔했어요. 미칠 뻔해. 혼자서 이걸 감당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 그다음에 이제 어린 동생들이 이제 죽고 나서 새 나무였을 때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옛날에 상계동 살면서 정말 가난한 아이들 돌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앞을 못 보는 아이들 있어요. 아이들이 1학년이면 8살인데, 그 아이들이 자살하지 않고 암 걸리지 않고 120살까지 살거든요. 근데 앞으로 태어날 때도 8살인데 112년을 더 어둠 속에 살아야 되잖아. 그 아이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가 또 야학 교사를 성공해서 한 몇 년 했어요. 그러니까 늘 내 곁에는 도대체 저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제 곁에는

늘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애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개 그 아이가 나고 나가 그 아이고 이렇게 인생이 그냥 완전히 그냥 체질화가 된 거.

안남재 네.

노경실 그니까 어떤 사상이다. 이념이다 주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삶이 내 길이 아까 풀피리 선생님처럼 그냥 나의 바람길이 나의 인생길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안남재 네 다음 질문으로요. 이 책으로 들어가서요 여쭙고 싶은 글이 너무 많은데 순서대로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흥미를 끌었던 글이 ‘당신은 누구십니까’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당신은 누구 입니까? 나는 하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그런 노래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깊은 사연이 있는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자활 활동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경험을 빚대어서 글을 써주셨는데 읽어서 알겠지만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작가님이 글쓰기 지도를 할 때 거기서 깜짝 놀랐던 일이 이제 세 가지 놀랐던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기억나는 사람을 쓰라고 했더니 가족이 아니라 첫사랑.

청중 웃음

안남재 두 번째가 그들의 기억이 이제 순수함 그 다음에 미안함 세 번째가 이제 글하고 연결된 거였잖아요. 당신은 뭘 기억하길 바라냐고 했더니 이름을 거기 책에 뭐라고 쓰셨냐면 “첫사랑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줄지 궁금했다. 그리고 첫사랑이 문득 나의 이름을 나

의 이름이 생각날 때 얼굴 찡그리지 않는다면 더 바랄 게 없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도 이름 석 자가 지나는 의미가 특별한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 것 같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당신은 누구 십니까라는 이 간단한 한 문장이 지니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작가님의 글 올림이 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노경실 아까 안 대표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2013년부터 노숙자 글 가르치고 인문학하고 책 내고 이런 일을 하고 현재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볼게요. 노숙자 그다음 쪽방촌 주민 그다음 알코올 중독자 이 색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중 노숙자, 알코올 중독

노경실 그런데 저는 지금 남대문 서울역 쪽방촌이랑 돈의동 종로 상가 거기 700개가 있어요. 쪽방 거기서 일하는 그들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 현재도 알코올 중독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쪽방촌이에요. 왜냐하면 노숙인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남의 실수이든 내 실수든 어떤 외부의 문제이든.

근데 쪽방촌 주민들은 99.9% 뱃속에서부터 고통스럽고 불행한 사람 여러분이 상상 이상입니다. 여기 다 제 핸드폰 저기 자료가 있는데 그저께도 거기서 수업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는 이제 그림과 글쓰기 같이 하고 매년 책을 내고 인터넷에서 치면 나올 거예요. 노경실 치면 작년에도 그렇게 크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의 인문학 그걸 진행하고 있어요. 인문학 하면 되게 지적이고 박사 교수 뭐, 짹짹하는데 그런 인문학이라 정말 인문학은 인 사람 인이잖아요. 사람 인. 사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문학을 하

고 지금 현재 제 책 중에 『복실이네 가족 사진』 그다음 행복하다는 건 뭘까? 제 책 중에 그다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 세 가지를 가지고 가족과 행복과 사람 사는 거 이 세 개가 글 쓰고 공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다 읽어봤더니 낭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제가 낭독도 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와서 진짜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낭독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분들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낭독은 좀 프로패셔널한 낭독이고 그 낭독은 정말 삶에서 그 바닥에서 그 쪽방에서 요만한 방에서 올려나오는 그 낭독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제가 수업하는 게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 거부터 가르칩니다. 그거를 쓰기, 책 읽기, 발표 아주 똑같이 여러가지 그림 그리기, 그다음 나는 얼마나 누구에게 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이제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런 시간 시간을 갖죠. 근데 그게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많은 올림이 되고 울고 고백하고 위로하고 또 책으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어진 그래서 가장 힘든 분이 사실은 서울역 쪽방촌이거든요. 거기서 아침 오전에 숨(수업)을 못 해. 왜? 그러면은(왜 그러냐면) 약을 다 이만큼씩 거짓말 못해. 그래서 10시면 정신없는 것 같아. 그래서 2시부터 한번 수업을 그냥 그리고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웠는지 글자를 물론 못 읽을 것 같아. 서울시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는 다 요즘은 그지도 나이키도 입고 아디다스니까 구별을 못하죠. 그걸 못 읽고 못 쓰고 근데 하나하나 하면서 낭독 제가 이거 보면

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낭독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쓰기 그리기 해요. 그래서 나라는 이 사람들이 내 아니 내가 이 존귀한 존재를 깨달을 때, 한 4회 5회만 해도 이분들은 정말 완전히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마나 기뻐하고 제가 저기 종로3가 전철 3번 출구 속에서 나올 때부터 기다리는 이 아저씨들이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다 남자야. 남자가 그만큼 연약해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가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면 큰절을 하세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그냥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안남재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해석에 대한 질문이 독서를 통해서 찾아질 수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찾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성인을 위한 독서의 열린 활동에 관련해서 가장 어울릴 만한 작가님을 모신 거 아닌가 실제 그런 삶에서 실천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시라 정해주신 책 내용을 떠나서 저희한테 많은 시사하는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청중 박수와 웃음

안남재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글이요. 〈기차길 옆〉이었는데요. 기차길 옆 오막살이 아기자기 잘도 잔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도 많이 그러셨겠지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의 글이 뒤에 동요와 관련된 글 중에서 이 글이 좀 긴 편이기도 하였고 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그러니까 글의 동요에 대한 작가님의 글이 시적 구성을 닮았더라고요.

첫 번째 그 내용이 시로 보면 첫 번째 연에 해당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는데 해석 한번 해볼게요. 기차의 굉음 소리와

고요함의 잠자는 아기를 묘사한 시점으로 보면 이제 서경을 묘사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구조는 단락에서는 번잡스럽고 부패하고 요란한 세상을 묘사한 시로 보면 이제 서사적인 기술에 해당하는 것 같았고 세 번째는 저 눈동자에는 핏발이 서고 머릿속은 몽롱하고 옥수수만도 못한 용기로 겨우 버티는 가난한 부스러기 같은 우리를 한탄하는 그런 구조인데, 시적으로 보면 이제 절정에 해당하는 것 같았고요. 네 번째 마지막 연은 아가야 나도 너처럼 단잠을 자고 싶어. 마지막에 이거는 시적으로 정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지막 연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서정적인 내용으로 이제 글을 끝내는 그런 구조로 읽혔어요. 그래서 역시 작가님은 다르구나. 이런 짧은 동요와 항목에서 이런 글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쭙고 싶은 거는 글을 쓸 때 물론 제가 구조적으로 분석해 본 내용에 공감이가는지 한번 여쭙 보고 싶어요.

정말 여쭙보고 싶은 거는 그 뒤에 보면 이제 아기 아기를 잠자고 있는 힘없는 아기 그다음에 옥수수를 나무에 비해서 나약한 옥수수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제 일제 치하에서 적혀진 만들어진 동요라서 우리 민족과 비교하는 그런 근건의 시선들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옥수수와 아기에 대한 옥수수와 자연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보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노경실 어쨌든 문학을 얘기할 때는 시대 배경을 이해를 해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여기 있는 동요들이 반 이상은 서양 동요 미국, 미국 특히 미국의 전래동화 전래 동요 또는 찬송가 미국의 그리고 바로 이제 일제시대 또는 막 해방되고 나서 이제 미군 끝나고 떨어지는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학교 종이 땡땡 뭉치기도 미국 동요잖아요. 근데 옥수수인 것도 결국은 일제시대 때 의미고 정말 그때 어떤 작가가 저라도 글을 쓰거나 작가의 본능으로서 글을 쓰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미술을 할 때 그런 시대 배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남재 네.

노경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친일과 친일문학이다 부일 문학가다 이런 사람의 글을 보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광수 춘원 이광수의 도서를 보면 그런 시대의 아픔은 솔직히 그전에 별로 다른 사람 서정주나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한편 우리가 항상 뭘 볼 때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과 완전한 또 한 편의 뒷면은 정말 문학적으로 예술로 해석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눈을 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작품을 그냥 시대로만 해석하다 보면 정말 그거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죠.

그냥 역사를 읽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문학이라는 게 역사보다 역사만큼이나 훌륭한 게 그 예술성과 이 시대성을 같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학의 위대함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 뒤에 해설을 써놨어요. 한 편, 한 편마다 시대나 작가 모시고 이 시대에 이럴 수가 있겠구나. 6.25가 끝난 방금 끝났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왔구나. 이걸 같이 생각하면서 시대성과 문학성을 생각해서 읽으시면 훨씬 좀 격 있는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남재 다음으로는 이 책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동요가 〈가을밤〉인데요.

가을밤 가사 아까 풀피리님이 연주해 주셨는데, 가사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사 다 생각나시죠? 여기 보면 이제 마루 끝

에 나와 앉아 별만 세는 아이 이제 절절하게 감정 이입을 해 주셨는데요.

작가님 글 보기 전에는 〈가을밤〉이라는 동요를 들을 때 가사에 천착하기보다도 그냥 곡조가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가사도 슬프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읽고 나서는 이렇게까지 슬픈 가사였구나.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게 됐거든요. 보면 이제 이 제목을 보면,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라고 글의 제목을 정해주셨잖아요. 일제 치하 강점기 때 만들어졌고 가난이나 이제 질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간 엄마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엄마의 부재에서 저는 그냥 엄마는 살아있는 상태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작가님들 보니까 이미 이제 하늘나라 먼저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아이가 이제 가을밤에 대상을 이제 곡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너무나 슬픈 노래 이 곡에 대해서 작가님의 조금 더 자세한 소개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경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제가 한 번은 그래도 수두 같은 게 실화인데 이거 실화인데 제가 일산 백석동에 사는데 백석역에서 내리고 겨울에 이제 백석역에서 “다음은 백석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문 앞에 가서 이제 문이 열리면 내려야지 하고 서 있는데 그 옆에 또 한 모녀가 서 있더라고요. 나이는 한 5살 여자는 좀 젊어보이는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냥 노숙 모녀예요. 노숙자. 근데 그 아이를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게 한 2초? 3초? 2초도 안 걸렸어요. 그 1~2초 사이에 엄청난 생각이 지나갔어요. 내가 애한테 애 또 우리 집까지 가자. 거기 전철 나가면 우리

집 아파트인데 가면 따뜻하고 다 씻겨주고 나는 결혼도 안 해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널 다 키워줄게. 그럼 애가 자기 엄마 그 더러운 손 잡고 내 제 미래를 키운 모정일씨 하면서 따라올까? 모르죠. 그다음 내가 뭐 블랙핑크 제니인가 누구처럼 너무 예쁘고 사회적 유명 인사 너는 나랑 있으면 너의 모든 내가 너 아이돌로 만들어주고 다 해줄 거야. 가자. 이런 말 해줘. 너는 지금 이 밤에 어디 가서 잘 거야. 너 얼굴 봐. 얼마나 예쁜 얼굴 드립잖아. 너희 엄마 지금 술 냄새 나 이러면서 간다고 애가 같까요? 어디가 근데요 중학생만 돼도 엄마가 재벌 회장이었으면 좋겠다. 저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청중 웃음

노경실 이거. 근데 애들이 순간 농담 그래서 엄마가 없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아주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해 봐. 아이들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 때는 정말 가난한데 그리고 예 이 다 가난했지만은 여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정용에 끌려갔는지 돌아가셨는지, 바람을 뺐는지 옛날에 또 그렇게 수수한 분이가 많았을 때 항상 예 도박에 찹 생활에 하여튼 그러니까 엄마가 없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그렇다고 이 아이가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또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마저도 없다는 게 저는 더 깊은 슬픈 거다. 그 기러기가 울어봤자 기러기도 지나가 바람도 와 봤자 다 지나가는 정말 애 옆에 앉아서 그냥 울지마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여러분이 글 읽을 때 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

안남재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옹달샘>인데요. 작가님이 이제 옹달샘은 갈등을 풀어주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옹달샘은 하모니카하고 수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사람에게도 옹달샘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하시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읽으셨겠지만 옹달샘 같은 친구는 폭포처럼 요란한 스펙을 자랑하지 않고 강물처럼 폼나는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 수돗물처럼 막힘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이 작고 오목한 샘 ‘옹달샘’ 친구일 것. 꼭 마치 지란지교 꿈꾸며 2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는 반성이 되기도 했고요. 너무 ‘옹달샘’ 같지 않은 친구를 보냈던 거 아닌가. 한 가지 안심이 됐던 건 제가 ‘옹달샘’ 같은 친구 되기는 쉽겠다. 능력도 없고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 글이 또 참 울림이 컸거든요. 작가님 작성하시게 된 내용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노경실 네 저는 친구가 없어요. 한 명도. 왜냐하면 너무 이른 나이에 스물세 살에 등단을 했어요. 이른 나이에 저는 아무것도 친구들은 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저는 등단을 해서 제가 등단할 때만 해도 문단에 어른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주영 선생님이 증인이거든요. 그러고 스물세 살부터 그 어른들이랑 같이 다니고 일하고 이리고 그러다가 좀 몇 년 있다가 이번에도 소설이 당선이 된 거예요. 심지어 소설이 그러다 보니까는 더 친구가 없고 친구가 있다해도 이 문단에서의 작가들도 또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어느새 친구는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야학의 그 어린아이들 아이들만 있는 거야. 아이들만 교회에서 주일학교 야학의 아이들, 앞 못 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고 나중에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곁에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지금도 알코올 중독자도 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 쪽방촌 지금 엄청나. 외롭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같이 힘들다. 커피 한 잔 마시자.

안남재 오길주 교수님 앞으로 좀 덜 바빠지시는 걸로 결론이 나네요.

노경실 그 사람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말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랑받고 싶다는 거야. 그런 노래가 유행이 되잖아요. 나 상처 받아 너 상처 받아 우리 모두 상처받았네, 이러면서 다 나 좀 달래 달라고 나 좀 나 여기 아프다고 자기 거 이런 시대인데 저도 별 수 있나요? 저도 만팔로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쪽 잔다르크처럼 살고 있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끔씩 이런 그냥 그냥 쓰레빠를 쑥 신고 가도 계속해서 있는 좀 그런 친구 없나. 있어도 이 사회가 이 시스템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그냥 그냥 몇 시죠? 문자일 정도로 만족하고 그래서 바램이에요.

안남재 영광입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준비 모임할 때 제가 알게 됐는데 카카오톡을 안 쓰시는 것들도 그다음에 또 질문하고 싶은 게요. <옥수수 하모니카>인데요. <옥수수 하모니카> 읽으면 되게 흐뭇해지는 내용이었잖아요. 아빠와 오남매와 얽힌 추억 그리고 또 이제 맴 맴에서도 보면은 오남매가 이제 곤충 몰래 먹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비행기에서 또 아빠랑 두 발 비행기로 세계 곳곳 여행도 시켜주시고 어린 시절 아빠와 오남매 간의 그런 추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곧 드러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어린 시절 추억을 좀 말씀해 주세요.

노경실 네 어린 시절에는 놀이공원도 없었고 영화 제가 아버지랑 제대로 같이 본 게 옛날에 계림극장이 있었어요. 아시는 거기서 돌아온 외팔

이에요. 그게 진짜로 돌아온 외팔이 보고 전차 탄 거 그래서 제가 그걸 그림책으로 쓴 게 아빠와 함께 세상 구경이라는 그림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말한 것처럼 여행이다 놀러 갔다 근사한 이런 거 없어요.

기껏해야 옛날에 지금은 서울시 교육청으로 변한 어린이 회관이 있어요. 그게 어린이 회관 그게 옛날에는 한 시간 한 바퀴가 돌아왔어. 위에 동그란 게요. 거기가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이스 전차 탄 거 돌아온 외팔이 본 거 그다음에는 아버지가 이제 책 사다준 거. 그거 외에는 없고 그냥 맨날 집에서 아버지 아침에 일 나가면 밤에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혼자 밥 우리 거기 땡 둘러앉아 있는 거 아버지 식사하는 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들 그런 백열등 아래서 그런 것밖에는 없는데 지금 아이들에 비하면 지금 아이들은 매일 일기장을 쓸 수 있잖아. 그지? 어디 갔다 어디 요즘 학교도 안 가잖아. 체험 여행 이래 가지고 아버지가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경험과 체험은 없는데도 그냥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먹고 밥 먹고 했는데 그게 지금의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따뜻한 담요처럼 저는 아주 그 기억 때문에 제가 훨씬 건강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렇게 위해서 좀 일할 수 있고 그런 게 된 것 같아.

안남재 네 그러시구나. 또 질문거리가 좀 몇 개 더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오빠 생각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아름다운 오빠 생각 자료 화면에 보면, 저희가 너무 아름답게 받았던 가사의 느낌이 오빠가 부일문학가였다가라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웬지 꼭 독립운동하다가 목숨을 잃은 바 같은 느낌의 가사인데 반전이었는데 작가님도 혹시 이 사실을 처음 아시게 되었을 때 어떠셨는지요?

노경실 저는 놀라지 않고 시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다 할복자살하고 이 나라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좀 강한 사람은 견뎌내고 약해서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 시대를 통과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살아보지 않은 이상은 그 어려움 속에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일 놈 죄인으로 이렇게 완전히 낙인 찍어서 그 후손까지 살기 힘들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아픔을 견뎌내주고 살아온 것만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저의 모든 것은 거의 다 지하철인데 지하철에서 노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막 핸드폰 크게 틀어놓고 막 편하게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지 노인들은 공수를 샀네, 맞네 막 이러면서 통화 막 땡까땡까땡까 노래 듣고 싸우고 그래도 어쨌든 저는 노인들을 보면 너무 그분들한테 저는 무조건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살아내줘서 고맙습니다. 살아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 부일문학이든 또 우리랑 비슷한 게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나치 그쪽 유럽 쪽 거기도 엄청 단죄가 심하지 단죄할 건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 시대에 있지 않은 이상은 모르죠. 솔직히 우리도 지금은 대단하게 우아하게 있지만 만약에 다른 세력이 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여튼 다른 세력이 와서 우리 목을 조이고 내 자식의 칼을 목에 겨둔다면 일단은 통과해야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어리석었다 잘못했다 물론 반성을 하겠지만, 그래서 놀란 게 아니라 이게 시대 아픔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을 키워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하기보다 이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키우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힘이 총과 칼이 아니라도 문학의 힘이 예술의 힘을 키울 수도 있고 각 분야에서 우리가 힘을 키우는 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안남재 네 네 지금 시간이 제가 질문을 몇 개 더 있는데 저기 함께하신 여러분들 질문 받고요. 혹시 이제 시간 남으면 제가 준비했던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실 이 책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하세요. 아무 질문 집 주소도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좀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 그거 유튜브에서 오바마 한국 연설 그거 보셨죠? 영상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오바마 한국 연설 치면 오바마가 우리나라 10년 전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연설을 하고 미국 기자들이 왔어요.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저마다 이제 오바마한테 질문 하나 하려고 해야지. 또 자기 나라에 최면에 드니깐. 질문을 하나까 근데 오바마 그걸 딱 알고 단칼에 잘랐어요. 한국 기자만 질문하시오. 끝까지 답을 안 했어요. 그때 한 똥똥한 목 짧은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차이나 차이나 기자 근데 이 기자는 오바마 말을 세 번이나 끊어 오바마가 “나는 한국 기자한테 주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딱 그어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오바마가 나중에 다시 한 번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조그마한 애가 없을 줄 알았죠. 내가 아시아 대표로 질문합니다. 아시아 대표로 대단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하세요.

청중 1 오늘 이렇게 노경실 작가님을 실제로 뵙고 하니까 직접 이렇게 살아온 얘기가 참으로 감동스러워서. 작가님은 작가님이시면서도 실천가 삶의 실천가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번 제가 점심을 먹다가 어떤 어르신



이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이 동요는 들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하고 있어요. 왜 이 어르신이 저에게 동요를 들려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청중 1 그 주인공이 바로 들어가는 모습,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어르신이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들 시각이 아닌 어른 시각에서 이런 동요를 아이들이 뜻도 모르고 이렇게 불리고 단지 맴맴 했더라는 반복적인 소리에만 그것을 접목해서 이 노래가 많이 울려 퍼지는지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노경실 작가님께서 한번 그림 이것을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할아버지한테 아이들한테?

노경실 아이들한테는 그대로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나귀라는 자체가 정력을 상징하거든요. 정력 특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애들한테 차로 가리고 뭐 이러지 말고 이 시대는 몇 년도에 세워졌고 이런 내용이야. 나귀이란 동물은 특히 서양에서는 특히 더 강해요. 정력 그런 음란한 거 할 때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거 이런 거 나는 그러

니까 너희들이 뭐든 무조건 유행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가려서 듣고 이런 해석 인문학이 뭔가 해석의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중 1 그니까 여기서 또 할머니는 건넌 마을 아전 시대 이러면서.

노경실 서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중 1 원하는 동요라는게 이런 어떤 어떤 의미를 좀 아이들이 아름다운 노랫말 이런 걸로 마음을 좀 품게 하는 그런 노래가 더 많이 울려 퍼지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실 네 여기도 역사 아까 제가 시대성 얘기했잖아요. 그 시대니까 그 시대에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가 역사의 모습으로 장면으로 기억하는 그것도 중요하게 네 나쁘니까 그 역사를 지운다. 이거는 절대 아니죠. 네 시대를 얘기하는 아픈 거죠. 또 질문하세요. 그냥 아니 이 모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읽기 또는 낭독 작가 또는 저 개인 아무거나 좋아요.

청중 2 아니 작가님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노경실 제가 좀 까다로워요.

청중 2 아 얼마 되죠? 나중에 연락주세요.

노경실 제가 연락드릴게요.

청중 3 생각하고 또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 대해요. 네 이런 자리에 온 것이 너무 좋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줘서 너무 좋은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해서 한번 더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또 살아오신 그 모든 것이 좋은 거 보다 안 좋은 바닥에 있는 곳을 다 체험하시고 현재도 거기에 또 임해서 하고 계시니까. 너무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은 일을 혼자서 다 담당하시는구나. 많은 걸 배웠어요.

노경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형님들이 요즘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정말 제가 하여튼 청소년들 엄청 많이 만나는데 개네들이 제일 모르는 게 나예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존귀한 존재지 모르고 그냥 나는 돈 쓰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신체적인 물리적인 나부터 해서 정말 이 심리적 정신적인 영혼까지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하나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거기 이름에 비전이 담겨 있잖아. 근데 자기 이름 뜻을 끝까지 에세이 형태는 못 써요.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순자 너무 쉬워. 순할 순, 아들자, 네 안 돼. 제 이름으로 할게요. 네 저는 이 경사 경 열매 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경사스러운 열매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실래요. 짧게 일단 기쁨의 열매라고 먹었어요. 기쁨의 열매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단계별로, 일단 땅속에 들어가야 돼. 땅은 뭘까요? 어둠이에요 흙이에요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그걸 견뎌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나와요. 잘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온갖 비바람 추위 더위 벌레 모기 개 사람 다 온갖 다 이겨내고. 그래야지만 이 열매를 맺어. 그때 열매도 보통 3년 지난 건 먹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어도 사과나무 5년 지나고 그랬어.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나마 남한테 줄 수 있는데 나도 먹고 그래서 저는 내가 글 쓸 때 한편에 내 이름 가지고 에세이 쓰기를 하거든. 자기가 나는 힘들고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웠고 슬프고 외로울 때마다 경실아. 조금만 견뎌. 이제 열매를 맺을거야. 맺은 것 같이 3년만 더 기다리잖아. 그 더 윤이 생기잖아. 너만 먹지 않잖아. 관계 속에서 같이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자기 이름을 자기 인

생을 이렇게 에세이로 쓸 줄 아는데 일단 자기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몰라. 철수 김철수 누가 저였어? 주지서 스님이요. 좋아 좋아. 근데 그분은 돌아가신 것 같은데 니 이름의 뜻이 뭐고 그 이름에 담은 비전이 뭐고 이걸로 그런 표현을 좀 써보자.

신뢰도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아저씨들도 그다음 애들한테 마지막이 물리적인 거 또 물어봐요. 니가 응애응애 태어나는 순간, 너는 몇 센치였니? 대한민국에서 제가 북한 말고 다 가봤지만 한 명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 봤어. 7cm 10cm 아니 니가 몰라야 내가 그거 어디를 7cm 10cm 어머니가 살아계시냐고 물어. 근데 그런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근본부터 이제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여기서도 학생들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 계시면 좀 나에 대한 자존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냥 나 때리고 여기다 칼로 그어요. 다른 사람 사랑해 못 사랑해 다른 사람도 칼로 그어요.

안남재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시간이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뜨거워지는 뭔가 있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한 번 크게 쳐 주시기 바랍니다.

책세상

| 책세상1 |

나에게 맞는 커피 찾기

표인혜*

요즘 아침 산책을 하다보면 청명한 파란 하늘과 햇살, 벚나무 잎이 떨어진 그 길을 “바스락바스락” 밟으며 걷는 시간이 좋기만 하다. 가끔 같은 시간에 산책 나온 앞집 강아지 ‘햇살’ ‘세인’이도 보곤 하는데, 볼 때 마다 더 땡땡스럽게 여기저기 쿵쿵거리며 공원을 “충충” 걷는 모습이 귀엽고, 생기발랄해 한참을 미소 짓게 한다. 엇그제까지 많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지친 나에게, 보상을 주듯 가을이 온 것을 느끼며, 때가 되면 오는 계절의 정확함에 경이롭고 감사함을 느낀다. 그렇게 사색하듯 산책이 마무리 되면, 그곳 사거리의 카페에 도착하고, 오늘도 카페 커피 향기에. 난, 자연스럽게 테라스에 앉아 따듯하고 부드러운 카페라떼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한곤 한다.

예전에 나는 인스턴트커피 한잔만 마셔도 가슴이 뛰고, 잠을 자지 못하는



남원일 지음

* 경민대 교양과 강사. <커피와 커피문화> 담당

카페인에 매우 민감한 체질이라, 커피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결혼은 커피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과 하게 되고, 남편의 권유로 18년 전 남편에게 맛있는 커피를 내려 주기 위해 커피에 관한 공부를 시작 지금은 커피 전문가가 되었다. 내가 시작할 때는 커피에 대한 정보와 문화가 그리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과, 커피를 좋아하는 나라로 상위권이고 커피문화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최근 강의에서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커피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자신한테 맞는 커피와 커피 메뉴, 건강한 커피 즐기기, 다양한 카페에 대해 관심 있어 하는 모습들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커피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 매우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러던 중 커피에 관심이 없던 공대생이 커피 전문가가 되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아주 맛있는 최고의 커피를 만들고 있는 로스터리 공장의 공장장의 책을 알게 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도 커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시작하여, 지금은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공장장이다. 커피도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기호 식품이다. “나에게 맞는 커피 찾기”는 카페의 복잡한 메뉴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 커피를 좋아하고 있지만, 맛있는 커피에 대해 궁금한 사람,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싶은 분에게 알려주는 원두와 추출기구등에 관한 정보, 자신의 커피 취향을 찾기 위한 가이드북이 될 수 있다.

본문 1장에서는 자신의 커피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자신에게 맞는 커피를 찾는 방법을, 커피 맛에 있어 원두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한 잔의 커피의 완성되어 가는 과정, 원두부터 커피음료가 되는 과정, 커피 맛보기과정까지 잘 알려준다. 3장에서는 커피를 어떻게 내리는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 그림, 사진, 글로 잘 표현하였다.

4장에서는 커피의 보관 및 구매가이드로 알아두면 실생활에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정보도 알려준다. 책 말미에는 커피용어사전을 정리해 넣어 커피 관련된 용어를 쉽게 찾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놓았다.

문 밖을 나서 걷다보면, 도로변으로 편의점,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등 수 많은 곳에서 커피음료를 마실 수 있으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개성 있게 다양하게 꾸며진 공간과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는 수많은 카페가 있기도 하다. 포털사이트, SNS에서는 국내, 해외여행에서도 가볼만한 카페목록이 작성, 늘 소개되고 있고, 인기 있는 카페는 발 디딜 틈이 없다. 또한 관련 브랜드 커피가 마트에서 판매되어 쉽게 구하기도 한다. 커피가 넘치는 지금의 시대에 커피에 대해 관심을 조금 더 가진다면, 자신만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핸드드립 방식(drip) 커피 추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한다. 필터에 분쇄된 커피를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추출하는 매뉴얼 드립(manual drip) 커피 추출은 매우 매력이 있다. 원두에 따라, 추출방식, 도구에 따라 시각의 즐거움 향기, 맛의 다양함을 즐길 수 있는 과정이다. 드립에 대한 과정과 준비도 ‘나에게 맞는 커피 찾기’에 잘 서술되어 있다. 새콤, 달콤, 씹쓰레한 커피가 더욱 생각나고 좋아지는 이 계절 커피한잔에 가을 햇살 한 스푼, 여유로움 한 스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책세상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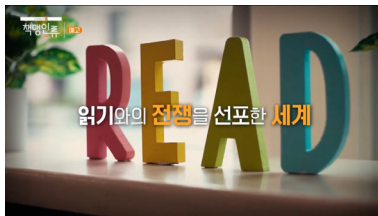
함께 읽기 **zoom**으로 만나다

정명자*

1. 시작하며

〈세계는 더 이상 읽지 않는다〉

(EBS 다큐 세계 읽기 전쟁, 2023.9.28. 21시 55분 방영)



- ▶ 한국, 성인평균 독서량 연간 7.5권 - 2년 전 보다 1.9권 감소
- ▶ 호주 많은 성인들이 기본적인 읽기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미국, 청소년 읽기 점수 사상 최대 감소폭 기록
- ▶ 스웨덴, 문맹시대를 만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책과 읽기, 문해력, 삶의 질, 국가적 위기 등을 떠올리게 하는 위정보가 많이 놀랍다.

시대적으로 다양한 문명의 이기에 책이 멀어지고, 새롭고, 편리하고, 자극적인 놀이문화에 익숙해지는 현실은 '문맹'을 걱정하는 위기를 맞게 되는 듯하다. 이러한 시기에 작은 소모임에서 책과 친해지고, 책을 통해 인생을 밝게 열어가는 노력들이 더해져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개개인의 기쁨과 행복이 늘어나고, 서로간의 소통이 원활해 지고, 정서와 인성이 순화되고, 꿈이 커가고, 그리고 함께 행복한 우리가 되어가기를 소망하며 작을 실천을 하고 있는 독서모임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2. 들어가며

• 소모임 형태

<https://us05web.zoom.us/j/3856913493?pwd=aG1NaDUxVCt0R1F5dEdCcGpncWVhZz09>

위 주소에서 월~금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만난다. 2023.1.1. 시작

* 전 중원대 겸임교수

• Zoom 소모임 시간

- ◆ 읽기-아침 7시 부터 7시 30분 까지 30분간 줌을 켜 놓은 상태에서 읽기만 한다.
- ◆ 토론하기-아침 7시 30분부터 8시는 읽은 내용을 참여자 각자 1인당 3~5분간 이야기한다.

• Zoom 소모임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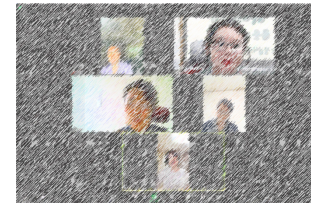
- ◆ 8시까지이므로 개별 토론시간 약속을 꼭 지킨다.
- ◆ 1년에 2번 OFF LINE로 모임 갖기(대략 5월, 10월)

• Zoom 소모임 내용

- ◆ 도서선정은 참여자가 순차적으로 자신의 차례에 함께 읽고 싶은 책을 SNS에 올려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된다.
- ◆ 선정된 도서는 30~50 페이지 정도로 하루 읽을 분량을 미리 정하여 올린다.
- ◆ 토론 시 보고 깨달은 점 실천할 점 이야기 나누기
- ◆ 독서 후 마음속에 담고 싶은 글귀 이야기 나누기
- ◆ 매주 월요일은 영어그림동화를 참여자가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PPT로 작업하여 화면공유를 통해 한 페이지 씩 돌아가며 읽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
- ◆ 8시 이후 영어 1,000문장 진행-4문장을 돌아가며 묻고 대답하는 형식

• Zoom 소모임 참여자

- ◆ 책을 통해 행복한 경험으로 삶을 풍요롭게 가꾸고자 하는 5인 - 50~70대 (이○○1, 이○○2, 문○○, 정○○, 김○○)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ON LINE 독후 활동

OFF LINE 모임

• Zoom 소모임 진행

- | | |
|----|------------------------------------|
| 1월 | 1. 걷기의 힘
세인 오마라 저 / 구희성 역 |
| | 2. 성공의 법칙
나폴레옹 힐 / 왓차피디아 |
| | 3.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데일카네기 / 중앙경제평론사 |
| 2월 | 4.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 차이정원 |

- 3월 5.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쭈린 / 다연
- 4월 6.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 / 데이원
- 5월 7. **다시 나는 희망의증거가 되고 싶다**
서진규 / RHK
- 6월 8. **이웃집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토머스스텐리, 세라스텐리펠로 / 비즈니북스
9. **장사의 신**
우노다카시 / 샘앤 파커스
- 7월 10. **챗GPT 질문이 돈이되는 세상**
전상훈, 최서연 / 미디어숲
11. **호모데우스**
유발 노아 하라리 / 김영사
- 8월 12. **총균쇠**
제레드 다이아몬드 / 김영사
- 9월 13.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 문학동네

• Zoom 소모임 영어 그림동화책 읽기

7월부터

1. What does it mean to be present?
2. MY Dad,

3. Seven Blind Mice
4. Little Beauty
5. Voices
6. let's go for a Drive
7. The Nonsense Show
8. it's okay to be different
9. Froggy
10. Frederick
11. There is a bird on your head

3. 나오며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에 책을 통해 전해지는 기쁘고, 달뜨고 감사하는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재미있어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이 책을 안 읽었더라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 선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책을 좀 더 일찍 읽었더라면...” “앞으로 책 내용이 기대가 되요” 등의 이야기들이 매 토론 시간마다 진정한 울림으로 전해 옵니다.

누구랑 읽든, 언제 읽든, 좋은 책을 함께 읽고 느낌을 공유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하루 일과 중 하나입니다.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그간의 경험과 또 다른 책들과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되기도 하고, 각기 가진 소중한 생각들을 나누며, 사람을 다시 느끼고, 희망을 품게 되고, 오늘 읽은 책 내용 중 한 가지의 실천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약속된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이 되고, (여행이나, 병원, 이른 약속으로 개

인적인 불참사유는 있으나) 이러한 가운데 소중한 습관하나가 나를 키우고, 우리를 키우는 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경험으로 인한 바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 둘 ‘문맹시대를 만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걱정들이 덜어지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러한 소 모임들이 늘어나도록 작은 노력을 더해야겠습니다.

나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 들면

결국 온산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 책세상3 |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

안남재*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떠났다.’

어른을 위한 그림책을 쓰는 대만 작가 지미 마리오의 책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의 첫 소절이다. 이어지는 첫 페이지의 다음 대목은 이 책의 주제를

* 오투라인 대표

암시한다.

내가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마다

아빠는 “가자, 영화 보러 가자.” 라고 말했다.

“엄마가 영화를 무척 좋아 했거든, 언젠가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책은 영화를 소재로 하여 그리움을 주제로 다루는 이야기다.

좀 더 자세히는, 영화와 함께 성장하는 한 여성의 인생이 소재이고 떠난 자에 대한 남겨진 자의 그리움이 주제다.

‘영화 속 세상은 정말 신비로웠다.’던 소녀는 ‘때로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영화를 보러’갔으며 ‘때로는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엄마가 더 보고 싶었다.’고 한다.

아빠 방에 몰래 들어가서 엄마가 놓고 간 예쁜 스카프의 냄새를 맡으며 엄마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던 소녀는 차츰 성장한다. 그리고 그 성장의 마디마디에 영화는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이자 안식처였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인생을 경험하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했으며 ‘곤란한 상황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부딪힐 때, 인생의 다음 단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을 때’, ‘늘 영화에서 답을 찾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 그녀에게 아마도 영화와 영화관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하는 일체화된 대상이었던 듯하다. 왜냐하면 14살 풋풋한 사랑이 싹트다 이별을 맞이하는 곳도 영화관이었고, 29살 결혼까지 이어진 연인을 만난 곳도 영화관이었으며, 평생 행복한 미래를 함께 해 나갈 것 같았던 남자가 영

화 만드는 일에 실패한 후 좌절과 번민 속에 괴로워하다가 뜻밖의 이별을 고하고 모습을 감춘 곳도 영화관 입구였다. 삶의 굵이굵이에 부딪히는 현실과 영화관은 맞닿아 있었고 그 영화관에서 맞닥뜨리는 영화의 서사가 주는 의미들은 그녀의 삶에 중요한 모티브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좋아했던 영화였고 ‘언젠가 영화관에서 만날지도 몰라’라고 했던 아빠의 말을 어린 시절에 들은 그녀에게 영화를 보고 영화관에 가는 일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일종의 의식이었을 지도 모른다. 작가가 책의 제목을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이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였을까.

요새는 굳이 영화관을 찾지 않고 안방에서 리모콘으로 영화를 즐기는 이들이 많다. 여러 OTT플랫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편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편하게’라는 의미는 일시정지라든가 끊어보기 혹은 운동이나 식사 등 다른 볼일과 함께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편하게’가 어찌면 역설적인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오롯이’영화 감상만에 빠져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가 끝나고 나서라도 리모콘이 가져다 주는 또다른 ‘편리성’은 곧바로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영화의 여운이나 감상에서 즉시 빠져나오게 되어 버리기도 한다. 반면에, 영화관에서의 영화관람은 압도적인 대형화면과 잘 설계된 음향, 반 강제적인 몰입, 영화관 자체가 주는 다소 고전적인 ‘그 어떤 느낌’에 의한 여운 등은 ‘리모콘 관람’과는 비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영화관에서의 영화관람이 우리 삶의 갈피에 꽂히는 추억의 강도는 사뭇 다르다.

언젠가 티브이에서 해외입양아를 소재로 다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아주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된 후 외국인 부모 밑에서 자라난 한 여성이 한국의 친엄마를 찾아오는 내용이다. 입양한 부모가 아무리 잘 해준다 해도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들 사이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과 인종적인 편견으로 인한 서러움이 왜 없었으랴.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모국에서 그녀는 자신의 생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난, 엄마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궁금해요. 어떻게 생기셨을까.

나는 엄마를 얼마나 닮았을까...그래서 보고 싶어요.”

진한 그리움은 미움을 소멸시키는 것일까.

절절한 보고픔아래 그 외 다른 모든 감정은 티끌 같아지는 것일까.

다시 책이야기로 돌아가자. 이 책에서 열여섯 번째 생일을 맞이한 소녀는 홀로 작은 케익을 사가지고는 영화관에 들어가서 케익을 먹으며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부서진 건물에 걸터앉은채 소녀는 다음과 같이 혼잣말을 한다.

엄마, 제 생일 기억하세요? 아직도 영화를 좋아하세요?

엄마는 어떤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배우는요?

엄마, 엄마는 용감하게 꿈을 좇는 사람인가요? 꿈을 이루셨나요?

따뜻한 엄마품에 안겨 잠들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며, ‘엄마’라고 부르고 얼굴을 만져보고 싶기도 했을 것이며, 아빠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엄마에게만 털어놓고 싶은 고민과 비밀이 있었을 소녀는 ‘혹시 나중에 만나도 못알아

볼까봐’ 걱정을 하며 그렇게. 엄마를 그리워 한다.

유사 이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남겨두고 떠났으리라.

전쟁터로 끌려간 남편,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떠난 아들, 행방불명된 딸, 갑작스레 이별을 통보하고 떠난 연인, 자식을 두고 떠난 아빠, 자식을 두고 떠난 엄마.

떠난 사람들이 떠난 이유와 돌아오지 못 한 사연은 각기 달라도 남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남은, 끝내 해결되지 못하는 그리움들은, 그 이별이 주는 영원성으로 인해 유한한 생을 숙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욱 아프게 한다.

어느덧 소녀도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빠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일상이자 낙이다.

그러던 어느날 아빠와 함께 간 영화관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이 이어진다.

작가는 어쩌면 신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결말을 신파적이지 않게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끝낸다. 그리고는 독자가 목이 메이든 아니면 평평 울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예의 그 환상적이고 예술적인 그림으로 끝 장면을 선사한다.

들뢰즈는 ‘영화의 서사와 이미지는 단순히 재현된 허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례 중 하나로써의 실제, 사유해야 할 실재의 부분’이라고 했다. 즉, 영화는 ‘가상된 세계’로써 의미없는 허상이 아니라 ‘있을 법한 사례’ 혹은 ‘있었던 실제’로써 현실의 한 부분이며 대자적 존재로써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작가 지미 마리오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이 창작하는 수많은 예술형식 중에서 특히 영화라는 창작물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헌사를 바친 듯 하다.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장면에서 작가가 좋아하는 배우와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의 장면들을 오마주하였으며 명작에 속하는 여러 영화의 포스터도 등장한다.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 린크올라 감독의 '그랑블루' 등 여러 명작에 등장했던 장면들을 조우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 책세상 4 |

인생은 지금(Now or Never)

김유진*



* 경민대학교. 두 아이를 둔 어머니며, 늦깎이 대학생이다. 위로와 지혜를 주는 그림책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보육을 전공하면서 얻게 된 커다란 기쁨 중 하나는 그림책과의 만남이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와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시작한 대학 공부는 어렵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다. 그중에 그림책 관련 수업은 나에겐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동화나 그림책은 아이들의 학습 도구로만 여겼었다. 그냥 아이들이나 보는 쉬운 책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그림책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인문학에 최적화된 매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대학 생활에 흥미를 불어넣어 준 원동력이기도 하다.

〈인생은 지금〉이라는 책을 수업 시간에 소개받고 바로 그날 구입했다. 어른이 읽으면 더 좋은 그림책, 부부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한다.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작가 다비드 칼리의 위트 있는 글과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세실리아 페리의 정겨운 그림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은퇴한 노부부의 대화로 엮어진 이 책에서는 지금을 즐기지 못하고 매일 무언가를 내일로 미루는 우리에게 질문한다 “왜 자꾸 내일이래?”

은퇴한 남편은 여행, 외국어 공부, 악기 배우기, 요리 배우기, 밤낚시, 종일 풀밭에 누워 하늘 보기, 숨이 찰 때까지 달리기, 강에 뛰어들기, 사랑한다고 외치기 등 그간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실행에 옮기고 싶다.

사는데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은 모두 다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뭐하러?” “대체 왜?” “지금은 말고.” 이렇게 시큰둥하게 말한다. 계속 내일 하자고 말하는 아내에게 “왜 자꾸 내일이래? 인생은 오늘이야” 라고 남자가 말한다. 남편이 하고 싶은 것들은 평생 본인의 버킷리스트였는지도 모르겠다.

책표지, 퍼즐처럼 구멍이 난 자리, 남자와 여자가 등을 돌리고 있다. 남자

와 여자는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향해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면 퍼즐처럼 빈 공간이 채워진다.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는 인생 퍼즐 조각 같은 것일까? 책을 읽은 후 남편과 친정 부모님이 생각났다. 나는 한 가정의 아내로서, 자녀를 둔 엄마로 삶의 피로감에 모든 일이 귀찮아지는 날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커피 한잔의 편안한 휴식이다.

젊은 시절 외국에서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있다가도 뭔가 배우고 싶고 바람도 쏘고 싶은 날 소파에 누워 잠만 자던 남편이 떠올랐다. 남편 역시 삶에 지쳐서 소파에 누워있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남편이 함께 놀아주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때 남편은 이 책의 부인처럼 “내일, 내일 하자”고 했다. 그런데 요즘 남편은 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중에~ 피곤해~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애들이랑 다녀와~ 나 좀 쉬자~”

내 말을 듣는 남편도 젊은 날의 나처럼 서운할까?

남자와 여자가 강통에 실을 매달아 전화기 놀이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마음에 남는다. 남자는 강통 전화기를 귀에 대고 여자는 가슴에 대고 있다. 남자는 입으로 말을 하지만 여자는 가슴으로 말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 장면은 현실적으로 대화를 즐기지 못하고 답답했던 내 마음을 잘 표현해준 것 같다. 내가 가슴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소리로 내지 못하는 말들을 남편은 듣지 못했다. 돌아보니 남편도 역시 가슴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해가 되니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림책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작가의 의중이 무엇일까 기대가 된다. 다음 장면의 그림을 해석하면서 성취감도 생기고 흥미를 느낀다. 특히 여러 사람들과 독서 활동 시 각자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눌 때 독서의 질이 향상되고 문학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

다. 나를 더 성장시킨다. 함께 읽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생각들이 건드려진다. 자기보기와 깨달음도 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채워짐으로 자아성찰이 되고 복잡한 머릿속도 정화된다. <인생은 지금> 이 책에서 느낀 잔잔한 울림들은 소소하지만 충분히 행복한 씨앗이 되어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韓國讀書아카고라學會)'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READING ACAGORA ASSOCIATION OF KOREA'(약칭, RAAK)라 한다.

(우리 학회의 명칭 '아카고라(ACAGORA)'는 아카데미(ACADEMY)와 아고라(AGORA)를 합성한 약어로써, 독서 이론의 학구적 학술성(academy)과 독서 운동의 열린 활동성(agora)을 표방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지부는 국내의 지방과 국외의 소정 지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독서 이론의 학구적(學究的) 학술 연구와 독서 교육의 진취적 학습 운영과 독서 활동의 역동적 확산 운동 등 독서 전반의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독서 문화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 1회 이상의 정기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연 1회 이상의 학술지 발간
3. 독서 학술 논저 공모제 시행
4. 독서 교육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개최
5. 독서 문화 자료 전시회 개최
6.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업 진행

제5조 (학술지)

본 학회는 학술지 『독서 아카고라 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 약칭 ARR)를 발간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독서, 책, 출판, 미디어, 교육을 전공하거나 관련 학문에 관심을 둔 모든 자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이 승인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독서 관련 학술 이론 전공자
 - ② 학술 연구 및 저술가로서 본 회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 ③ 각급 학교의 독서 관련 교육자
 - ④ 위 ①, ②, ③ 외의 독서 문화 콘텐츠 관련 전문직 종사자
 - ⑤ 독서 운동가로서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인준을 얻은 자
2. 명예 회원은 본 회의 유관 원로 중 본 회칙 제2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제9조의 소관 업무를 적극 후원할 인사로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추대한다.
- ① 명예 회원의 후보는 회장 및 회장단, 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지명한다.
 - ② 명예 회원 지명 발의자는 별지 양식의 심의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 ③ 이사회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심의 의결하고, 회장은 이를 인준한다.

3.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각급 학교 및 각종 교육 기관, 또는 그 교육 기관의 독서 관련 부서 (예: 도서관, 학회, 기타)
- ② 독서 유관 전문 직종 (예: 언론, 미디어, 각종 출판계, 기타)
- ③ 위 ①, ② 이외의 개인 및 단체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거 하여 가입 의사를 밝힌 자

제8조 (회원 권리)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총회 참석 및 발의, 표결권
- 2.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학회 주관 학술활동 참여권
- 4. 회비 납부의 의무
- 5. 명예회원과 준회원에게는 본 학회의 제반 사업과 활동에 참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본 학회와의 개별 약정을 준행할 의무를 진다.

제9조 (회원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학회의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2. 학술지 논문 심사 시 정해진 심사비를 납부할 것

3. 내규에서 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것

제10조 (회원 징계)

- 1. 본 학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학회는 임원진 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①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술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② 연구 부정행위 또는 학술지 운영 방해 행위가 확인된 경우
 - ③ 정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고, 5년 이상 경과시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 ④ 징계는 경고, 자격 정지, 제명으로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 ⑤ 제명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 후 확정된다.
 - ⑥ 각종 회원은 본 회칙 제 1, 2 조에서 밝힌 바 본 회의 정신과 목적에 배치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3장 총회**제11조 (구성)**

총회는 본 학회(회원)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12조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임원진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제13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2. 이사의 인준
- 3. 예산 및 결산 승인
- 4. 정관 개정
- 5. 기타 중요 사항

제14조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원은 서면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타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5조 (임원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부회장
- 3. 이사
- 4. 위원장
- 5. 감사
- 6. 고문

제16조 (회장)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주재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 (감사)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학회의 운영, 재정 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이사)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학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결정한다.

제19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연임할 수 있고, 학술지 논문 심사, 게재 여부 결정 등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 (기타 임원)

연구윤리위원과 실무 간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내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5장 재정

제21조 (재정 구성)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구성한다.

- 1. 회원 회비
- 2. 찬조금
- 3. 기타 수입금

제22조 (회비 및 경비)

회비 및 각종 경비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회원은 이에 따라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부칙]

제23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관례,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4조 (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년 1월 1일 1차 제정
- 2023년 1월 1일 1차 수정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심사위원회 구성)

『독서 아카고라 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제2조(일반논문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뢰)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해 편집회의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심사 결과를 취합한다.
- ② 심사위원 선정은 1차 및 2차 편집회의를 통해 진행하며, 필요 시 온라인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온라인 회의는 외국이나 지방 거주 등으로 대면 참석이 어려운 편집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일반논문의 심사 과정)

-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일반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주제와 관련된 해당 분야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다음 4가지 중 하나로 판정하며,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④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불가’ 판정이 없는 논문은 게재를 확정한다.
- ⑤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확정한다.
- ⑥ ‘게재 불가’ 판정이 2인 이상이면 게재하지 않는다.
- ⑦ 그 외의 심사 결과들은 다음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판정한다.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판정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판정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⑧ ‘수정 후 게재’ 판정이 있는 경우, 해당 수정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⑨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나 게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해당 논문은 차기 호로 이월할 수 있다.
- ⑩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있는 경우, 수정된 원고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재결정한다.
- ⑪ 필요한 경우, 심사 과정을 차기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⑫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종 반려 처리되며, 동일 주제로 재투고할 수 없다.

제4조(일반논문의 표절 및 변조 관리)

- ① 표절 및 변조 관련
 - 편집위원회는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해 표절·연구부정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 표절·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투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한다.
- ② 표절 및 변조 관리에 따른 조치
 - 표절 또는 변조가 확인된 논문은 즉시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해당 논문은 본 학술지에 재투고할 수 없다.
 - 표절·변조 행위는 학계 윤리 위반으로 간주하며, 필요 시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일반논문의 표절 및 검증 절차)

편집위원회는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해 다음 절차에 따라 표절 검증을 실시한다.

- ① 초기 검증
 - 접수된 모든 원고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검사한다.
 - 표절률이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준(예: 30%)을 초과할 경우, ‘표절 의심’ 단계로 분류한다.
- ② 심층 검토
 - ‘표절 의심’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직접 내용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다.
 - 투고자에게 표절 의혹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해명 및 조치
 - 투고자가 해명을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내린다.
 - 표절이 확인되거나 해명이 부적절할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 불가’로 결정하고 재투고를 금지한다. 그리고 필요시 연구윤리 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 아울러 본 학술지의 투고를 5년간 금지한다.
- ④ 기록 및 보관
- 표절 검증 과정과 결과는 문서로 기록·보관하며, 향후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한다.

제7조(기획논문의 심사 및 관리)

- ① 기획논문의 주제는 본 학술지 임원진에서 결정하며, 관련 분야의 적합한 연구자에게 원고를 의뢰한다.
- ②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는 논문 주제와 관련된 해당 분야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고, 심사의견서를 첨부한다.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판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④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기획논문은 본 학술지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재투고할 수 없다.
- ⑤ 기획논문의 심사 절차 및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와 학술지 회장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타 사항)

-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 ②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2019년 1월 1일 1차 제정
- 2023년 1월 1일 1차 수정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투고 규정

1. 논문 투고의 범위 및 자격

- 1) 『독서 아카고라 연구』는 독서이론, 독서교육, 독서문화와 관련된 전반의 논문을 게재한다. 구체적으로 독서 관련 전반은 독서, 책, 출판, 미디어, 교육 등이다.
- 2) 『독서 아카고라 연구』의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단, 임원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외를 두기로 한다.

2. 논문의 작성 원칙 및 제출 기준

- 1) 원고는 '한글(컴퓨터 문서작성기)'로 작성하여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단, 도판 등 파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복사·인쇄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 2) 원고 분량은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제한한다. 단, 150매가 넘는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한다.
- 3) 연구 논문의 경우, 체제는 '제목(한글 및 영문 제목)-국문요약-핵심어(6개 내외)-차례-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영문 제목과 외국어 필자명 포함)-키워드(6개 내외)'의 순서가 되도록 한다.
- 4) 국문요약은 편집본 기준 15줄, 영문초록의 경우 250자 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 5) 본 학술지는 연 1회 발행한다. 마감은 9월 15일 학회 메일이나 논문 투고 시스템으로 투고한다. 이에 따른 발행일은 10월 31일로 정한다.

3. 논문 작성의 형식

- 1) 저자 표시
 - ① 단독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학교, 직위를 표시한다. (*전자메일의 경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적지 않는다.)
 - ② 공동논문: 표시 형태는 단독논문과 같고, 제1저자와 제2저자를 구분해 표시한다. 아울러 교신저자일 경우, 이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③ 저자의 차례: 필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필자가 원하는 언어로 표기한다. 단 중국과 일본인 필자의 경우 한자(漢字)로, 국내 필자는 영어로 표기한다.
- 2)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
 - ① 국문요약은 국문(한국어)로 작성한다.
 - ② 외국어 초록은 영문으로만 작성한다.
- 3) 장, 절, 항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 4) 각주의 출전 표시는 ‘저자, 서명, 출판 사항, 인용 쪽수’ 순서로 표기하고, 세부사항은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 5) 논문의 마지막에 참고문헌 목록을 제시한다. 참고문헌에 대한 완벽한 서지정보(저자, 논저명, 해당 권호, 발행처, 발간 연도, 실제 참고한 페이지 등)를 명시해야 하며, 논문의 경우, 발표지의 수록 페이지까지 밝혀야 한다.
- 6) 논문 투고 시 사용할 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 ①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전집류 등: 『 』 (신문의 경우 0000년 00월 00일로 표기)
 - ② 논문 명: 「 」
 - ③ 작품 명: < >
 - ④ 원문 인용, 대화: “ ”
 - ⑤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 2019년 1월 1일 1차 제정
- 2023년 1월 1일 1차 수정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투고 논문 심사 규정 및 심사서 양식

제1조 (심사위원회 구성)
『독서 아카고라 연구』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2조 (일반논문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해 편집회의를 통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하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취합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외국과 지방에 있는 편집위원들이 참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일반논문의 심사과정)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 주제와 관련된 전공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한 가지로 판정을 내리고, 심사 소견을 붙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불가’ 판정이 없는 논문은 게재를 확정한다.
④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확정한다.
⑤ ‘게재 불가’ 판정이 2인 이상이면 게재하지 않는다.
⑥ 그 외의 심사 결과들은 다음의 <표>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판정한다.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결과			판정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㉗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보완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알리고, 수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논문에 한해 게재를 결정한다. 수정·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게재를 보류하고 심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 ㉘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보완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알린다. 수정 후 다시 투고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수정·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게재를 보류하고 심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 ㉙ 최종적으로 반려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4조 (기획논문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뢰)

- 기획논문의 주제는 본 학술지 임원진에서 기획하고 해당 분야의 적격자에 의뢰하여 원고를 수합한다. 기획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㉑ 편집위원회는 기획논문에 대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한 가지로 판정을 내리고, 심사 소견을 붙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㉒ 기획논문 중에서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의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재투고할 수 없다.
 - ㉓ 기획논문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본 연구원의 원장에게 일임한다.

제5조 (기타)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제6조 (심사서양식) 『독서아카고라연구』 논문 게재 심사서

논문제목

1. 요건 심사: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심사 항목		평가 등급				
제목	적절성	5	4	3	2	1
전개	구성 및 논리	5	4	3	2	1
자료	신뢰성 및 정확성	5	4	3	2	1
초록	적절성 및 정확성	5	4	3	2	1
인용윤리	정확성 및 표절여부	5	4	3	2	1
총점						

2. 내용 심사: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심사 항목		평가 등급				
내용의 독창성		5	4	3	2	1
내용의 객관성		5	4	3	2	1
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학문적 기여도		5	4	3	2	1
총점						

3. 심사 요지: 심사 내용, 수정 사항 및 지적사항, 의문점 등

4. 최종 평가: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판정 결과	판정 사유
게재가	* 공란 부족시 별지 첨부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위와 같이 논문을 심사하고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또는 서명)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연구 윤리 규정 및 서약서 양식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의 『독서 아카고라 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는 독서이론, 독서교육, 독서문화, 독서 전반(독서, 책, 출판, 미디어, 교육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인문학의 발전과 세계적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자각하여 연구 활동에 따르는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고, 한국 학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에 본 학회는 회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연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이를 통해 연구 활동의 엄밀함을 담보하고, 학회와 회원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1조 (회원의 의무)

- 1) 본 학회 회원은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과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 2) 본 학회의 회원은 표절과 조작을 연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표절과 조작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의 양심과 명예를 존중한다.
- 4) 본 학회의 회원은 공개된 연구는 공적 자산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한 규정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DB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본 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심의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 2) 위원회는 관련 학문 분야의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

본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 윤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심사하고 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회장이 요청한 경우,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연구 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한다.
- 4)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을 비롯하여 연구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 5) 위원회는 심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윤리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한 사항
 - ①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②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③ 회원의 품위와 관련한 사항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한다.
-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한 사항
 - ①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②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 무고 또는 허위로 제보한 경우.
 - ③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심사 절차)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건의 심사 절차를 논의하되, 심사의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 제보자,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5)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

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8)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소된 자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8조 (심사결과와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 (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제명
- 2) 해당 논문의 저작권 취소 및 인용 금지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학회 견책 서한 발송
- 5)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를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10조 (후속 조치)

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1조 (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제1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붙임양식)

표절 / AI 도구 사용 여부 확인 및 자가 점검 연구 서약서

- 2019년 1월 1일 1차 제정

- 2023년 1월 1일 1차 수정

[붙임양식]

표절 / AI 도구 사용 여부 확인 및 자가 점검 연구 서약서

『독서 아카고라 연구』는 연구의 윤리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자들이 문헌 활용 및 참조, 해석, 개념 분석 및 논증 등 연구의 핵심 부분을 본인의 사유와 판단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표절의 근절은 물론, AI 도구는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독서 아카고라 연구』의 투고자는 연구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가 점검표의 항목을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 제목: _____

1) 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 및 참고 문헌의 누락은 없습니까?

[] 예 / [] 아니오

2) 논문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챗GPT, Claude, Gemini, DALL-E, Midjourney 등)를 사용하였습니까?

[] 예 (사용한 AI 도구명과 버전: _____)

[] 아니오

※ AI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논문 제목과 날짜, 성명, 서명만 작성해 주십시오.

3) 논문 작성 중 AI 도구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① 투고할 원고에서 해당 부분의 글자 색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십시오.

②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 사용한 AI 도구와 버전(예: 챗GPT-4)

- 활용한 구체적 내용(예: 문법 수정)

- 예시: '챗GPT-4를 사용하여 문법 수정' 또는 '챗GPT-4를 활용한 영문초록 영작' 등

4) AI 도구가 생성한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예 / [] 아니오 / [] 해당 사항 없음

본인은 본 점검표의 모든 항목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윤리 위반 시 논문의 철회 및 투고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또한 AI 도구 사용 여부를 진실하게 기재하였음을 서명으로 확 인합니다.

날짜: _____

성명 및 서명: _____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독서 아카고라 연구』)

저작권 이양 및 활용 동의서

논문 투고자는 본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독서 아카고라 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에 투고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제1조 (저작권의 귀속)

본인은 본 논문이 『독서 아카고라 연구』에 게재되는 경우, 논문의 저작권(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 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전적으로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에 이양함에 동의합니다.

단, 저자는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적 활용(예: 강의, 연구, 개인 홈페이지 게재 등)을 위해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2조 (이용 및 배포)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는 본 논문을 학술지 인쇄본,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베이스(KCI, RISS, DBpia, e-article 등), 학회 홈페이지 등에 수록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학회는 학술적, 교육적, 비영리적 목적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재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연구윤리 및 책임)

본인은 본 논문이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표절, 중복게재, 허위 저자 표기, 위력에 의한 저 자 등재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논문 내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제4조 (기타)

본 동의서의 효력은 논문이 게재 확정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본 동의서의 사본 및 전자서명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논문 제목: _____

저자명(대표저자): _____

소속: _____

연락처: _____

전자우편: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YYYY년 MM월 DD일)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임원

회장단	고문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 조월례 (아동문학평론가)
	회장	오길주 (경민대학교)
	부회장	김명석 (성신여자대학교) / 김현경 (경민대학교)
	감사	김연홍 (동국대학교) / 정명자 (중원대학교)
이사회	총무이사	홍유화(한국외국어대학교) / 박경원 (북바인딩 연구소 시루)
	기획이사	김장호 (경민대학교)
	교육이사	안남재 ((주) 오투라인)
	출판이사	김경희 (가천대학교)
	홍보이사	권민주 (성균관대학교)
	사업이사	김소영 (경민대학교)
	대외협력이사	민상훈 (LEC 어학원)
	국제이사	미국: 윤재영 (Purdue University) / 중국: 전금화 (吉林大學) 일본: 박종후(同志社大学) / 인도: 연규득 (Christ University)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도영 (춘천교육대학교)
	위원	권태현 (충북대학교) / 김낙현 (중앙대학교) / 김승현 (홍익대학교) 변경가 (서원대학교) / 유준동 (강원대학교) / 이승은 (고려대학교)
		조성윤 (동국대학교) / 조재형 (전남대학교) / 최배은 (숙명여자대학교)
윤리위원회	위원장	한영균 (연세대학교)
	위원	한승우 (중앙대학교) / 이윤정 (경철대학교) / 오세정 (충북대학교)
		이상현 (부산대학교) / 백진우 (서강대학교) / 서보영 (계명대학교)
편집간사		이세인 (동국대학교) / 윤은서 (강원대학교)
총무간사		오준호 (강원대학교) / 최주원 (강원대학교) / 이종연 (강원대학교)

ACAGORA READING RESEARCH

2023 | vol.5

| Special Topics: Open Activity of Reading for Adults

Study of the Open Activity of Reading for Adults | **Oh, Kil-Ju**(Kyungmin University)

Research on Reading Techniques

to Revitalize Adult Reading Education | **Cho, Ye-Sin**(Chung-Ang University)

Development Study of a Korean Folk Tale Reading Model Based

on the Intercultural Approach | **Hong, Yoo-Wha**(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mples of Adult Reading Activities

for Reading Education | **Kim, Eun-Ock**(The Seoul Society for Children's Literature & Reading)

| General Topics

Writing Education in College for Enhancement of Reading Ability

and Writing a Link to Major T | **Kim, Hyun-Kyung**(Kyungmin University)

Prospect of Exchange and Publishing Pattern of a Story Book about Old Story

of North and South Korea | **Kim, Kyung-Hee**(Gachon University)

| AKA Performance

The Leafblow playing Goblin, Gobleaf | **Kim, Chung-Keun**

| Book Talk

Reading "One line is good." The children's song along

with human growth instinct and books | **Noh, Kyung-Sil**

| Book World

Searching a suitable coffee for me | **Pyo, In-Hye**

Reading together by the Zoom | **Jung, Mung-Ja**

The Rainbow of Time | **An, Nam-Jae**

Now or Never | **Kim, Yu-jin**

| Appendix

Acagora Reading Research Regulations